한·독·란 공동 성노예전
Korea · Germany · Netherlands Joint Exhibition for Forced Sexual Slavery

제2차 세계대전의 여성 피해자
Women Victims in World War Ⅱ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차 세계대전의 여성 피해자
Women Victims in World War Ⅱ

새로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A New History, The Story of 'Comfort Women'

•

'위안부' -끝나지 않은 역사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History

•

나치 독일 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Forced Sex Labour in Nazi German Concentration Camps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91년 8월 14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학순 씨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학순 씨는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 '위안부' 였다는 것은 개인적인 수치로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차별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약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세계 각지의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김학순 씨의 용기에 힘을 얻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증언해 주었습니다. '위안부'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겪은 일을 역사의 장으로 끌어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2007년에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18년 동안 세계 각지의 많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토대로 전시 하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도 전시 하 여성 인권 유린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네덜란드, 독일 3국이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나치 독일 하 강제수용소의 강제 성노동에 관한 전시는 전쟁 중 여성 인권 유린의 문제를 폭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아직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대한 치유를 통해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에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거에 받은 고통만큼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옥선 씨의 증언과 더불어 발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이야기는 꼭 알려 져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불행이며,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뜻과 힘을 같이한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한국의 여러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용덕

On August 14, 1991, the late Kim Hak-soon, revealed for the very first time that she used to be a 'comfort woman' for Japanese soldiers. It must not have been an easy decision for her to reveal the past pain and suffering, because until then, having been a "comfort woman" was not only a humiliating fact that scarred her mind and body, but it was also the reason she had to brace herself for society'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igh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Over the years, many former "comfort women" from all over the world gained courage from Kim Hak-soon's testimony, which allowed them to testify against the outrages they themselves had to endure. Surviving "comfort women" spoke out against their past suffering, and this brought the issue to the forefront of the pages of history. This effectively raised more awareness of the issue.

The international society also expressed much interest in the issue regarding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In 2007,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Netherlands, and the EU Parliament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apology by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issue regarding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became a humanity-wide, universal issue concerning wartime violation of the rights of women, backed by the courageous testimonies of "comfort women" survivors over the last 18 years and the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exhibition was jointly planned by Korea, the Netherlands, and Germany, in an effort to bring to shed light on wartime infringement on women's rights.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uffered pain that differs across regions and time periods. The exhibit on Dutch "comfort women" victims will create a global consensus on this issue. The exhibit on forced sex labor in concentration camps during Nazi rul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approach the issue of wartime violation of women's rights from a wider perspectiv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yet to heed the calls of the victims and international society.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past, bu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future by healing the past. Through this exhibition, it is our hope that more people can listen to the voice of truth and sympathize with the courage of the brave surviving "comfort women."

Former "comfort women" say that speaking of their past suffering is almost as painful as the suffering itself. Despite that, these victims have begun shedding light on the issue, and for what? I would like to close with the testimony of Lee Ok-seon.

> "My story must be heard. I did not want to speak of it, as it is much too painful for me to recall. However, we must let ourselves be heard, so that this may never happen again and so that other women can be protected. The truth must be known."

This tragedy might be taking place somewhere in the world today, at this very moment, and it is our responsibility not to look the other wa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people of the Netherlands, Germany, and Korea who worked so hard and brought their will together to prepare for this exhibition.

Kim, Yong-deok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새로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용기를 생각하며 • 010
-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 012
- 증언, '위안부' 문제를 문제화하다 • 014
- 일본 군대의 '위안부' 여성들 • 016
- '위안소' 지도와 일본의 침략전쟁 일지 • 019
- 1931~1945년 일본의 침략전쟁과 '위안소' 설치 • 022
- 동원명령과 '위안부'가 된 여성들 • 026
- 위안소 이용 규칙 • 029
- 실태 1: 중국 최대의 위안소 거리, 한커우 지칭리 • 033
- 실태 2: '위안부' 와카하루(若春)에 대한 기억, 그리고 박영심의 기억 • 037
- 실태 3: 법정에 선 인도네시아의 '위안소' • 040
- 실태 4: 본토결전; 일본군의 급증과 오키나와 '위안소' • 045
- '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 048
- 일본 우익의 공격 • 051
-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논란 • 054
- 18년 동안 계속된 수요시위 • 058
- 국제연대운동과 국제사회의 노력 • 062
- 2007년 각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 066
-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운동가로 • 073
- 과거 반성과 '위안부' 문제의 해결 • 076

'위안부' -끝나지 않은 역사

-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쟁 • 080
- 포로병과 강제노동 • 082
- 인도네시아에서 강제 매매춘과 성폭행 • 085
- 엘리 코리 환 데르 푸르흐 • 087
- 2007년 네덜란드 '위안부' 결의안 • 090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 091
- 2009년 2~5월에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이 주네덜란드 일본대사관에 제출한 탄원서 • 093

나치 독일 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 나치 강제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 098
- 독일 라벤스브뤽 전시에 대해 • 100
-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 성노동 • 102
- 형법과 매춘 • 104
- 강제수용소 포로들간의 위계구조 • 106
- 강제수용소 유곽의 설치와 포상규정 • 108
- 강제수용소 유곽에서의 '생활' • 110
- 유곽 출입 신청-요금-절차 • 112
- 독일의 1933~1945년과 강제수용소 조직 • 114
-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 • 118
- 수감자들의 출신성분 • 122
- 폭력과 테러 • 126
- 라벤스브뤽 기념관 • 1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 Herinnering van de moed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 010
- De eerste getuige, Hak Soon Kim • 012
- Getuigenissen brengen de kwestie "troostmeisjes" naar boven • 014
- "Troostmeisjes" in het Japanse leger • 016
- Een kaart van een "trooststation" en de tijdslijn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 019
-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en inrichtingen van "trooststations" 1931-1945 • 022
- Mobilisatiebevelen en "Troostmeisjes" • 026
- Regels voor het gebruik van "trooststations" • 029
- Zaak 1: China's straat met de meeste "trooststations," Hankou Zicheng • 033
- Zaak 2: Herinneringen van "troostmeisje" Wakaharu en herinneringen van Young Shim Park • 037
- Zaak 3: Rechtszaak "trooststations in Indonesië • 040
- Zaak 4 : De grote bestorming: een toename van het Japanse leger en het Okinawa 'trooststation' • 045
- "Troostmeisjes" en de Japanse overheid • 048
- Aanval van de rechtervleugel van Japan • 051
- Debat over "troostmeisjes" zoals beschreven in Japanse geschiedenisboeken • 054
- Woensdagdemonstraties die 18 jaar lang plaatsvonden • 058
- Internationale solidariteitsbeweging en inzet van de internationale gemeenschap • 062
- "Resoluties troostmeisjes" van respectieve landen, 2007 • 066
- Van slachtoffers tot overlevenden, van overlevenden tot activisten • 073
- Introspectie van het verleden en de oplossing van de "troostmeisjes" kwestie • 076

- Oorlog in Nederlands-Indië • 080
- Krijgsgevangenschap en dwangarbeid • 082
- Gedwongen prostitutie en seksueel geweld in Nederlands-Indië • 085
- Ellen Corry van der Ploeg • 087
- Nederlandse resolutie over troostmeisjes in 2007 • 090
- De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 091
- Petities van de Stichting Japanese Ereschulden aan de Amdassade van Japan, februari-mei 2009 • 093

- Gedwongen Seksarbeid in nazi concentratiekampen • 098
- Over de Ravensbrück Expositie in Duitsland • 100
- Gedwongen Seksarbeid in nazi concentratiekampen • 102
- Strafrecht en prostitutie • 104
- De hiërarchische structuur onder gevangenen in concentratiekampen • 106
- De bouw van concentratiekampbordelen en beloningsvoorschriften • 108
- "Leven" in een concentratiekampbordeel • 110
- Aanvraag, kosten en proces van een bordeelbezoek • 112
- Duitsland 1933~1945 en het concentratiekampsysteem • 114
-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 118
- De herkomst van de gevangenen • 122
- Geweld en terreur • 126
- Het Ravensbruck Memorial Museum • 132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새로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A New History,
The Story of 'Comfort Wome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용기를 생각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커밍아웃(coming out)' 행위에 비유되고는 한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각오해야 하듯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 또한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였음을 밝힌 그녀들의 '용기' 에 주목했다. 그녀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몸과 마음에 각인된 고통에 대해 말하지 못했으며, '더러운 몸, 수치스러운 몸' 이라는 주위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성폭력에 맞서 싸운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가 50여 년 동안 쌓인 뒤에야 그녀들은 비로소 그 고통이 '성폭력 피해' 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때, 그녀들의 용기는 더욱더 커질 수 있었다.

일본군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 기간 15년 동안 시행했던 '위안소' 제도는 여성에 대한 병사의 성폭력 행위를 전쟁승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위안소' 가 당시 일본에 의해 허가된 공간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곳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들이 은폐되었으며, 가해자는 가해책임을 회피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은 전쟁 중의 '위안소' 생활에서 살아왔남고, 전쟁 후 세상의 소외에서 살아남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일을 역사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의 '커밍아웃' 은 '위안소' 의 기억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위안소' 제도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낳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전쟁의 반인간적 속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미래를 향한 역사교육이 이 모든 비극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리라 강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녀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며, 어쩌면 앞으로 우리들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용기에 보태는 우리들의 지지와 용기는 바로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일본군'위안부' 라는 호명이 당시 병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본질을 드러내는 '성노예' 라는 용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다만 본 도록에서는 전쟁기간 일본군이 제도화했던 '위안소' 의 역사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친 일본군 '위안부'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Herinnering van de moed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Jezelf bekend maken als een voormalige "troostmeisjes" wordt soms vergeleken met "openbaar uitkomen voor je seksuele geaardheid". Dat komt omdat een persoon veel overwegingen moet maken en vastberaden moet zijn om de schade die haar is aangericht als slachtoffer te onthullen, net zoals seksuele minderheden tegen de vooroordelen en discriminatie in de wereld moeten vechten wanneer zij hun seksuele geaardheid bekend maken.

Tijdens het organiseren van deze tentoonstelling besteedde d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esalniettemin" aandacht aan de slachtoffers die onthulden dat zijn "troostmeisjes" waren. Hun fysieke en psychologische pijn was onbeschrijfbaar, zelfs na de afloop van de oorlog en ze moesten het vooroordeel van anderen dat zij "vieze en schandelijke lichamen" hadden doorstaan. Vijftig jaar werk van dappere vrouwen die vochten tegen seksueel misbruik leidde tot de realisatie dat "troostmeisjes" "slachtoffers van seksueel geweld" waren. Toen zij opmerkten dat er personen waren die aandacht besteedden aan hun stemmen en woedend waren na het horen van hun ervaringen, kregen zij nog meer moed.

Het "troostkamp" systeem dat 15 jaar lang, van 1931 tot 1945, werd uitgevoerd door het Japanse leger is problematisch in de zin dat het daden van seksueel geweld in de naam van overwinning in de oorlog systematiseerde. Alleen al doordat het "troostkamp" werd toegestaan door Japan werden ontelbare verhalen geheimgehouden en ontweken de daders de verantwoordelijkheden voor hun daden.

Voormalige "troostmeisjes" doorleefden de oorlog en leefden in "troostkampen", en brachten hun ervaring naar de voorgrond van de geschiedenis door de isolatie waarmee ze geconfronteerd werden na de oorlog te overleven. Hun "openbare uitkomen" speelde een belangrijke rol in de onthulling van de essentie van het "troostkamp" systeem doordat de herinneringen van "troostkampen" door de ogen van slachtoffers gereconstrueerd konden worden. Zij brachten tevens problemen naar voren van de onmenselijke aard van oorlogen die geweld tegen vrouwen creëerden en verder legitimeerden. Ze benadrukten ook de noodzaak voor Japans oprechte verontschuldiging en compensatie, en het feit dat hun tragediën het beginpunt zullen worden voor onze geschiedenisonderwijs dat gericht is op de toekomst.

De verhalen van "troostmeisjes" zijn niet alleen hun eigen verhalen maar ook die van het heden en misschien ook wel van onze toekomst. Hierin ligt de behoefte om de geschiedenis van het "troostvrouwen" systeem te begrijpen en het wagen van een poging om een oplossing te vinden. Dat komt omdat de steun en moed die we de voormalige "troostmeisjes" geven ons heden en onze toekomst zijn.

Aangezien de term "troostmeisjes" de positie van soldaten in die tijd weerspiegelt, kan het zijn dat het gepaster is om de term "seksslaven" te gebruiken wat de essentie onthult van wat de slachtoffers daadwerkelijk waren. In deze tentoonstelling wordt de term "troostmeisjes" echter gebruikt, aangehaald in dubbele aanhalingstekens. Dit om de historische aspecten van "troostkampen" te benadrukken die tijdens de oorlog werden gesystematiseerd door het Japanse leger.



["나는 '위안소' 제도의 피해자였다": 1991년, 한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였음을 밝힌 김학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k was een slachtoffer van het "comfortkamp" systeem" 1991, Hak Soon Kim onthult voor de eerste keer in Korea dat zij een "troostmeisje" was voor het Japanse leger.]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김학순의 증언

"오후에 잡혀 트럭에서 하루 밤을 새고 갔다. 가다가 총소리가 나면 다 내려서 트럭 아래 들어가 엎드려 있었다. 다음날 컴컴할 때쯤 트럭에 탄 사람들이 모두 내렸다. 군인 몇 명이 우리를 어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컴컴하고 정신도 없어 그날은 대체 거기가 어딘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조금 있더니 낮에 양아버지를 끌고 갔던 장교가 방에 들어와 나를 포장친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힘에 끌려 옆방에 가니 그 장교는 나를 끌어안으며 옷을 벗기려 했다. 안 벗으려고 하다가 옷이 다 찢어졌다."

"우리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나가려 하면 보초가 물어봤다. 군인들이 오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갔다. 한 달 정도 있다 보니 노상 오는 군인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만 전속으로 받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인들은 토벌을 많이 나갔다. 일주일에 삼사일은 밤에 토벌을 나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다. 토벌을 하고 돌아올 때는 군인들이 노래하면서 행진을 하고 왔다. 그러면 우리도 일어나 있어야 했다. 보통은 군인들이 오후에 왔지만 토벌하고 온 날은 아침부터 군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런 날은 하루에 일곱, 여덟 명의 군인들을 받아야 했다."

(김학순, 1992,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De eerste getuige, Hak Soon Kim

De getuigenis van Hak Soon Kim

"'s Middags werd ik ontvoerd en in een vrachtwagen gestopt die de hele nacht doorreed. Toen we geweerschoten hoorden, kwamen we allemaal uit de vrachtwagen en gingen we eronder liggen. Iedereen kwam de volgende dag toen het donker was uit de vrachtwagen. Een aantal soldaten nam ons mee naar een huis."

"Het was een donkere dag en ik was verward dus ik had geen idee waar ik was. Na een tijdje kwam de officier die eerder die dag mijn stiefvader had meegenomen de kamer binnen en nam mij mee naar een andere kamer met gesloten gordijnen. Ik werd de kamer in gedwongen en de officier trok me in zijn armen en probeerde me uit te kleden. Ik stribbelde tegen en al mijn kleren scheurden."

"Niemand was direct verantwoordelijk voor ons, maar naast de plek waar wij zaten, was een militaire eenheid, en elke keer wanneer we probeerden te vertrekken, vroeg een bewaker waar we heengingen. De soldaten kozen de kamer van hun keuze. Ik was daar ongeveer een maand, er kwamen geen nieuwe mensen maar dezelfde soldaten bleven maar komen."

"De soldaten gingen vaak op strafexpedities. Drie tot vier dagen per week gingen ze 's nachts op dergelijke expedities en keerden dan vroeg in de ochtend weer terug. Wanneer ze terugkwamen, kwamen ze marcherend en zingend terug. Dan moesten wij ook wakker zijn. Normaalgesproken kwamen de soldaten 's middags maar wanneer ze op expeditie waren geweest kwamen ze al vanaf de ochtend binnenstromen. Op die dagen zagen we zeven tot acht soldaten op één dag."

(Hak Soon Kim, 1992, Book of Testimony 1: Forcibly Conscripted Chosun Comfort Women, Hanwul.)

증언, '위안부' 문제를 문제화하다

Getuigenissen brengen de kwestie "troostmeisjes" naar boven



일본군 '위안부' 였던 여성들. 이 여성들의 과거에 대한 '말하기' 는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와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공식적인 역사' 의 관심 밖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는 윤정옥 교수(이화여대)의 문제제기로 수면 위로 올랐다. 그녀는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를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에 앞장섰다. 이에 고무되어 1991년 8월, 김학순(당시 74세)은 생존자로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희생자였음을 밝혔다. 그녀의 증언은 다른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50년 동안의 오랜 침묵은 거센 풍랑이 되어 일렁거렸다.

"내 이야기는 꼭 알려져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이옥선,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작 DVD)

이 여성들의 증언은 여러 의미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소' 제도에 관한 희소한 문헌자료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금기시해 왔던 여성의 성적 피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가부장제적 성문화와 가족문화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 © 아시아프레스
** © 伊藤孝司
나머지 사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Voormalige "troostmeisjes." Hun "onthullingen" van het verleden kan gezien worden als een uitdaging en verzet tegen het ontwijken van verantwoordelijkheden door Japan en Korea's patriarchaat.

Eind jaren '80 werd de kwestie van "troostmeisjes" naar voren gebracht door professor Jung Ok Yoon (Ewha Womans University). Daarvoor lag het buiten het domein van Japan's enige interesse in "officiële geschiedenis". Samen met veel organisaties voor vrouwen heeft professor Yoon ervoor gezorgd dat de wereld te horen kreeg over "troostmeisjes" en zij stond aan het voorfront van het oplossen van de kwestie. Geïnspireerd door deze beweging onthulde Hak Soon Kim (toen 74 jaar) in augustus 1991 als eerste overlevende dat zij een slachtoffer was van het "trooststation" systeem wat andere voormalige "troostmeisjes" aanmoedigde. Een stilte van vijftig jaar werd onderbroken en veroorzaakte een grote golf van opschudding.

"Mijn verhaal moet verteld worden. Eerlijk gezegd is het verhaal te pijnlijk om te vertellen maar we moeten praten zodat deze dingen nooit meer zullen gebeuren en ter bescherming van andere vrouwen. De waarheid moet verteld worden." (Ok Sun Lee, Honor and Human Rights to the Grandmothers, DVD geproduceerd door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e getuigenissen van deze "troostmeisjes" zijn op vele manieren van onschatbare waarde. Het zijn niet alleen zeldzame documentaireverslagen over het "comfortkamp" systeem van het Japanse leger, maar leveren ook kritische bewijzen die de beweringen van de Japanse overheid weerleggen. Daarnaast leveren deze getuigenissen een mogelijkheid om de patriarchale familie en sekscultuur te onderzoeken door gevolgen van seksueel gedrag tegen vrouwen openlijk te bespreken; wat tot nu toe als een taboe beschouwd werd in de Koreaanse maatschappij.

일본 군대의 '위안부' 여성들
"Troostmeisjes" in het Japanse leger

'comfort woman' 이라는 말
Over de term "Troostmeisjes"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944년 8월 10일, 미얀마 미트키나(Myitkyinn)에서 일본군을 함락시키고 소탕작전을 진행하던 미군은 일본인 민간인 2명과 조선인 여성 20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곧바로 미얀마의 레도(Ledo) 포로수용소로 수용되고 미군은 20일간의 심문 끝에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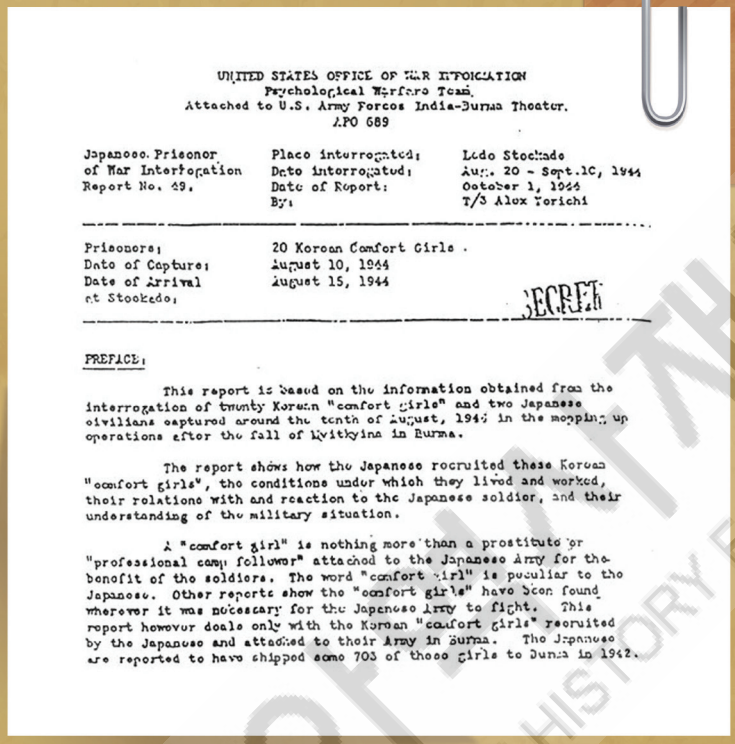
Op 10 augustus 1944, toen de Tweede Wereldoorlog bijna afgelopen was, vond het Amerikaanse leger dat het Japanse leger verslagen had in Myitkyinn, Myanmar, twee burgers en 20 Chosun vrouwen tijdens het uitvoeren van een zuiveringsoperatie. Zij werden onmiddellijk naar het Ledo Krijgsgevangenenkamp gebracht en na 20 dagen vol verhoren schreef het Amerikaanse leger een verslag over hen.





1944년 8월, 미얀마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
이 여성들은 일본 군대에 소속되어 일본군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 'prostitute'로서, 바로 'comfort girl'이었다. 함께 발견된 일본인 민간인은 'professional camp followers', 곧 위안소 업자였다.

Deze vrouwen waren "prostituees" of met andere woorden "troostmeisjes" die in kampen zaten voor het plezier van Japanse soldaten in het leger. De Japanse burgers die samen met hen gevonden werden, waren "professionele kampvolgers." Zij waren met andere woorden troostkamphandelaren.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Psychological Warfare Team
Attached to U.S. Army Forces India-Burma Theater.
APO 689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Place interrogated: Date interrogated: Date of Report: By:	Ledo Stockade Aug. 20 - Sept.10, 1944 October 1, 1944 T/3 Alex Torichi

Prisoners: 20 Korean Comfort Girls.
Date of Capture: August 10, 1944
Date of Arrival at Stockade: August 15, 1944

SECRET

PREFACE:

This report is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interrogation of twenty Korean "comfort girls" and two Japanese civilians captured around the tenth of August, 1944 in the mopping up operations after the fall of Kwitkyina in Burma.

The report shows how the Japanese recruited these Korean "comfort girl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lived and worked, their relations with and reaction to the Japanese soldier,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military situation.

A "comfort girl" is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or "professional camp follower" attached to the Japanese Army for the benefit of the soldiers. The word "comfort girl" is peculiar to the Japanese. Other reports show the "comfort girls" have been found wherever it was necessary for the Japanese Army to fight. This report however deals only with the Korean "comfort girls" recruited by the Japanese and attached to their Army in Burma. The Japanese are reported to have shipped some 703 of these girls to Burma in 1942.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들의 동원과정, 군 통제 하의 생활, 그리고 일본군 병사와의 관계 등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위안부' 라는 말이 특이한 일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안부' 는 일본군이 싸우기 위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발견되었다고 했다.

전쟁 시기 일본군만이 사용했다는 '위안부' 라는 말은, '위안부' 의 존재를 둘러싼 일본군의 시선을 잘 보여준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15년간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위해 병사들에게 여성의 성을 제공할 시스템을 마련했고, 여기에 동원된 여성들을 '위안부' 라고 불렀다. 병사들을 위해 존재하며, 병사들에게 '위안' 을 제공하여 전쟁을 뒷받침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그리하여 '위안부' 로부터 '위안' 을 받은 병사들이 전쟁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기를 바랐다.

In dit verslag staat algemene informatie over "troostmeisjes" waaronder het mobilisatieproces, het leven onder militair toezicht en de relatie met Japanse soldaten. Ook wordt in dit verslag aangegeven dat de term "Troostmeisjes" een eigenaardige Japanse uitdrukking is en dat deze "troostmeisjes" overal waren waar de Japanse soldaten vochten.

De term "troostmeisjes" dat schijnbaar alleen door Japanse soldaten gebruikt werd tijdens de oorlog geeft hun standpunt ten aanzien van "troostmeisjes" duidelijk weer. Japan, dat 15 jaar lang oorlog voerde vanaf het Manchurian Incident in 1931 tot de tweede Sino Japanse oorlog in 1937 en de Pacifische Oorlog in 1941, ontwikkelde een systeem waarmee soldaten seks konden krijgen wat zou bijdragen aan een effectieve uitvoering van hun oorlogen. Vrouwen die voor dit doel gemobiliseerd werden, werden "troostmeisjes" genoemd wat betekent dat zij er waren voor het genot van de soldaten en dat zij de Japanse oorlogen moesten steunen door het leveren van "troost" aan de soldaten. Van de soldaten die "troost" ontvingen van "troostmeisjes" werd verwacht dat ze hun leven volledig zouden toewijden aan de oorlog.

시선: '위안부'와 성노예
Perspectief: "Troostmeisjes" en "Seksslaven"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짜릿하다. 그것은 참 달콤한 추억이었다. 그들['위안부'들]은 우리들의 연인들이었다."
전 일본군 병사의 회상 내용 중. 1992년, 교토
[안연선, 2003,『성노예와 병사만들기』, 삼인, 130~131쪽 재인용]

"저는 위안부라는 말이 싫습니다. 위안부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운 이름입니다. 제가 왜 위안부입니까? 위안부에 강제를 붙여 주십시오."
피해생존자 이용수의 증언 내용 중. 2007년 4월 28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

누구를 위한 '위안'인가. '위안부'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낭만으로,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남아 있다. '위안부'라는 호명 속에 여성의 인격은 없다. '위안부'라는 말은 여성의 성을 전쟁 수행의 도구로 삼았던 일본의 과거와 그 역사적 특수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본질적 성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Het windt me nog steeds op als ik aan die tijden denk." Het zijn erg goede herinneringen. Zij ["Troostmeisjes"] waren onze geliefden."
Uit de herinneringen van een voormalige Japanse soldaat. Kyoto, 1992.
[Gereciteerd uit Yeon Sun Ahn, The Making of a Sex Slave and a Soldier, Sam In, 2003, pp. 130 131.]

"Ik haat het word "troostmeisjes." Het is een ontzettend verachtelijke, schandelijke en weerzinwekkende naam. Waarom zou ik een "troostmeisje" genoemd moeten worden?" Ik zou graag willen dat "gedwongen" toegevoegd zou worden aan de naam."
Uit de getuigenis van voormalig troostmeisje Yong Soo Lee.
28 april 2007. Belfer Center, Harvard Kennedy School.

Voor wiens "troost" was het? De term "troostmeisjes" blijft voor sommigen romantisch en voor anderen verschrikkelijk. Er zit geen greintje vrouwelijke karakter in de naam "troostmeisjes." De term "troostmeisjes" wordt recht aangedaan in het feit dat het verleden van Japan en haar historische eigenaardigheid waarin seks gebruikt werd als een middel van oorlogsvoering demonstreert. Als men echter de essentiële kenmerken van "troostmeisjes" in beschouwing neemt, zou er naar ze verwezen moeten worden als sekssl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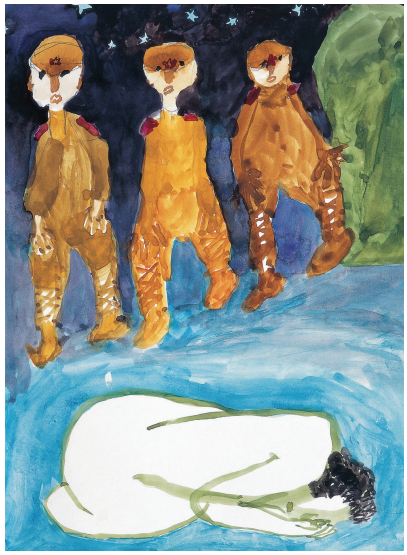




© NARA

중국 침략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 麻生徹男, 1993,『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Soldaten die op hun beurt wachten in een "troostkamp" tijdens de Sino Japanse Oor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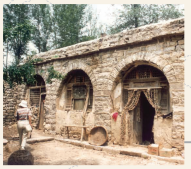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여성들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그렸던 그림. 출처 :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장품
Schilderijen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voor een traumarevalidatieprogramma.

'위안소' 지도와 일본의 침략전쟁 일지

Een kaart van een "troosstation" en de tijdslijn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COMFORT STATIONS" THE JAPANESE MILITA



Shanxi Province, China.
These Yaodong (houses for local) in Jinguishe, Japanese Military headquarters after the invasion of Yu Prefecture in Shanxi Province, were where member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were imprisoned and tortured. For women, the Yaodong became rape centers. Between 1942 and 1944, Wan Aihua, Gao Xicui and Zhou Xixiang were confined here and gang-raped for prolonged periods of time.

During the period that began with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which was followed by the outbreak of war with China in 1937 and the Asian-Pacific War in 1941, and continued until Japan's defeat in 1945, the Japanese Military invaded and occupied many areas in Asia. The Japanese Military set up "comfort stations" throughout Asia wherever it invaded, including Korea and Taiwan, which were then Japanese colonies, and in Japan itself. Women from all over Asia were confined there, and continually raped by Japanese officers and soldiers.

Women enslaved by the Japanese Military not only Koreans, Taiwanese and Japanese, but also local women from wherever the Japanese military was stationed: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the Netherlands, East Timor, Malaysia, Thailand, Guam, Burma, India and Vietnam.

This map shows the locations of "comfort station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Military, including places where combat troops abducted, confined and raped women on their own. Various sources are used to prepare this map: testimonies and documents of the victimized women, former Japanese soldiers, and local residents; official documents and military related documents including evidence from military trials, soldiers' dairies, records of battles, and memoirs.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Kinsuiro," (the building in the center with a big roof) was used as a "comfort station" in Nanjing. In 1939, Pak Yong-sim was brought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comfort station," where about 20 Korean women were also confined. The room where Pak Yoong-sim stayed, No. 19 on the second floor, still exists as seen in the photograph.





As a young girl, Marta Abu Bere was brought to a room in this "comfort station," where she stayed in a room with four other women. They did construction work during the day, and were raped by soldiers at night. The hot springs in Marobo were used as a health resort for Japanese soldiers.



Penang, Malaysia.
A former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 now the Tong Lock Hotel. In 1943, Rosalind Saw was forced into a truck and brought here by Japanese soldiers. Most of the some 50 women confined here were Chinese, except for three or four Malaysians. Rosalind Saw was not freed until Japan lost the war.

Russia
People's Republic of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Japan
Burma (Myanmar)
Laos
Thailand
Cambodia
Vietnam
India
Andaman Islands
Nicobar Islands
Malaysia
Singapore
Brunei
Indonesia
East Timor
The Philippines
Taiwan
Hainan
Palau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Marshall Islands
Papua New Guinea
New Ireland
New Britain
Bougainville
Solomon Islands
Guadalcanal
Port Moresby
Nansei Islands
Chichijima
Saipan
Tinian
Guam
Yap
Pohnpei Is.
Chuuk(Truk)Islands

* The yellow line shows the furthest extent of the Japanese invasion.
* Country and city names, as well as borders, are current as of 2008.
* In cases where places names have changed significantly, the former name is given in parenthesis.

Photos: Furusawa Kiyoko, Nakahara Michiko, Nishino Rumiko, Nobukawa Mitsuko

red testimonies of 'comfort women' survivors
blue Japanese soldiers testimonies and journals
yellow official and military related documents
green witness testimonies and others

wam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AVACO Bldg.2F, 2-3-18, Nishi-Waseda Shinjuku, Tokyo 169-0051 Japan
The Web Map of "Comfort station" : http://www.wam-peace.org/ianjo-map/

2009©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wam) Funded by North East Asia History Foundation

©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이하 WAM)

‘위안소’ 지도와 일본의 침략전쟁 일지

		전쟁 일지
1895	4.17	일본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듬
1910	8.22	일본 조선을 강제로 병합
1931	9.18	일본군에 의한 만주사변 발발
1932	1.	제1차 상하이사변
	3.	
1937	7.7	일본의 중국 전면 침략 개시
	12.13	일본군 중국 난징 점령, 대학살
1938	1.	제2차 상하이사변
1939	3.10	일본군 하이난섬 점령
1941	7.	
	12.8	일본군 미국 진주만, 영국령 말레이반도 침공 개시
	12.25	일본군 홍콩 점령
1942	1.2	일본군 마닐라 점령
	1.23	일본군 라바울 점령
	2.15	일본군 싱가포르 점령
	3.5	일본군 바타비아(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점령
	3.8	일본군 버마(현재 미얀마) 랑군 점령
	3.9	일본군 자와섬 점령
	9.3	
1942	3.10	
	6.20	
1943	6.	
1944	7.7	미군 사이판섬 탈환
	8.10	
	9.	중국 윈난성 라멍의 일본군 수비대 전멸 미군 루손섬 상륙
1945	1.9	
	1.14	
	4.1	오키나와 전투 시작(~6. 23)
	8.6, 8.9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
	8.15	일본 정부 무조건 항복 선언

Een kaart van een "trooststation" en de tijdslijn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Oorlogen
1895	4.17	Kolonisatie van Taiwan
1910	8.22	Geforceerde annexatie van Chosun (Lee dynastie)
1931	9.18	Het begin van het Manchurian Incident ingezet door het Japanse leger
1932	1.	Het eerste Shanghai Incident
	3.	
1937	7.7	Japanse inzet van troepen voor de invasie van China
	12.13	Japanse bezetting van en een bloedbad in Nanjing
1938	1.	Het tweede Shanghai Incident
1939	3.10	Japanse bezetting van Hainan
1941	7.	
	12.8	Inzet Japanse troepen voor de bezetting van Pearl Harbor en Malaya
	12.25	Japanse bezetting van Hong Kong
1942	1.2	Japanse bezetting van Manilla
	1.23	Japanse bezetting van Rabaul
	2.15	Japanse bezetting van Singapore
	3.5	Japanse bezetting van Batavia (voormalige naam van Jakarta, Indonesië)
	3.8	Japanse bezetting van Rangoon, Burma
	3.9	Japanse bezetting van Java
	9.3	
1942	3.10	
	6.20	
1943	6.	
1944	7.7	Amerikaanse leger wint Saipan terug
	8.10	
	9.	Vernietiging van de vestiging van het Japanse leger in Rameong, Yunnan provincie, China
1945	1.9	Amerikaans leger arriveert op het eiland Luzon
	1.14	
	4.1	Strijd om Okinawa begint (~6.23)
	8.6, 8.9	Bomaanvallen op Hiroshima en Nagasaki
	8.15	Japanse overheid kondigt onvoorwaardelijke overgave a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위안소' 일지

상하이 해군 '위안소' 개설
상하이 육군, 위안부단을 불러옴

상하이 육군 '위안소' 개설

군의관 후카다 소좌, 인도네시아 점령 전 '위안소' 설치 계획에 대해 보고

일본 육군성, 해외 위안시설 총수 400여 곳으로 집계
– 중국 280, 동남아시아 100, 서남태평양 10, 남부사할린 10

일본군 보루네오에 위안부 50명 파견 요구
필리핀 타클로반에 '위안소' 개업

바타비아의 아오치, 일본군의 명령으로 '사쿠라 구락부' 개설

버마(미얀마) 미트키나에서 조선인 '위안부' 20명 발견

중국 윈난성 라멍의 일본군 수비대 전멸. 중국 윈난 라멍에서 박영심 등 조선인 '위안부' 4명 발견

오키나와 국두지대, 위안시설 증강을 위한 인원 증원 기록

"Trooststations"

"Trooststation" geopend in Shanghai voor de marine
Het leger in Shanghai haalt een groep troostmeisjes binnen

"Trooststation" geopend in Shanghai voor het leger

Majoor en oorlogsdokter doet verslag over inrichtingsplannen van "trooststations" vóór de bezetting van Indonesië

Japanse leger heeft een totaal van ongeveer 400 troostfaciliteiten in het buitenland
- China (280), Zuidoost Azië (100), Zuidwest Pacific (10), Zuid Sakhalin (10)

Japans leger eist dat 50 "troostmeisjes" naar Borneo gestuurd worden
"Trooststations" geopend in Tacloban, Filippijnen

Aochi in Batavia opent "Sakura Club" in opdracht van het Japanse leger

Twintig Chosun "troostmeisjes" worden gevonden in Myitkyina, Burma

Vier Chosun "troostmeisjes" (Young Shim Park en anderen) worden gevonden in Rameong, Yunnan Provincie, China

Verslagen over een stijging van het aantal "troostmeisjes" vanwege de stijging in het aantal troostfaciliteiten in Kunigami, Okinaw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31~1945년 일본의 침략전쟁과 '위안소' 설치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en inrichtingen van "trooststations" 1931-1945

일본군 '위안소' 는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전장을 넓혀가며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위안소' 가 생겼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전쟁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위안소' 또한 형태과 성격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Het is opmerkelijk dat de "trooststations" van het Japanse leger over een wijdverspreid aantal regio's en over een lange periode gecreëerd werden. Terwijl Japan zijn slagveld uitbreidde werden overal waar het Japans leger zat "trooststations"ingericht. De "trooststations" varieerden qua structuur en karakter naar gelang Japan betrokken was bij oorlogen op verschillende momenten en in verschillende regio's.

1932년 상하이 공격: 최초의 '위안소' 설치
1932 Aanval op Sjanghai: inrichting van het eerste "trooststation"

일본군의 요청으로 '위안소' 가 처음 개설된 것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과정에서였다. 1931년 9월 중국 동북지역을 공격하고 이른바 '만주사변' 을 일으킨 일본군은 다음해인 1932년 1월 상하이로 전선을 넓혀갔다. 이때 일본 해군에서 최초로 '위안소' 를 열었고 곧이어 육군에서도 '위안부단' 을 조직하였다. 그 동기는 일본군이 중국인 여성을 강간하여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병사들이 성병에 걸려 병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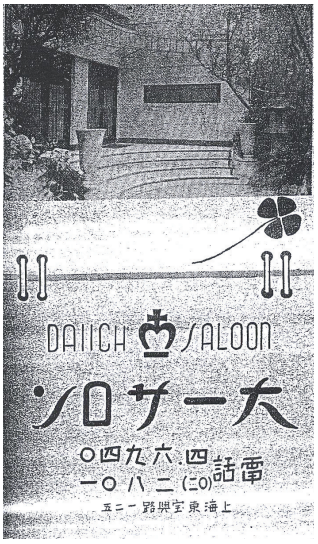
"지난 전쟁시대에 위안부 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나는 위안부안의 창설자이다. 쇼와 7년(1932년) 상하이사변 때에 2~3건의 강간죄가 발생해서 파견군 참모부장인 나는 동지(同地) 해군을 모방하여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안부단을 데려왔다"

『岡村寧次大將資料第一　戰場回想編』, 1970, 302~303쪽

상하이 침략 당시 상하이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오카무라 야스지의 회상이다. 그는 상하이 주둔 해군을 모방하여 육군에 '위안부' 를 처음 두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De eerste inrichting van een "trooststation" op verzoek van het Japanse leger vond plaats tijdens de invasie van China. In september 1931 viel het Japanse leger de Noordoostelijke regio van China aan wat het begin was van het zogenoemde "Manchurian Incident". In januari van het jaar daarop breidde het leger haar slagveld uit naar Sjanghai. Op dat moment, kort nadat het leger een "troostmeisjesstation" had georganiseerd, opende de Japanse marine voor het eerst een "trooststation". Dit werd gedaan om te voorkomen dat het anti Japan sentiment van Chinezen tegen het verkrachten van Chinese vrouwen door Japanse soldaten zou groeien en ter afwending van een mogelijke vermindering van militaire kracht vanwege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en.

"Er waren in de oorlogen in het verleden geen "troostmeisjes". Ik schaam me om dit te zeggen maar ik ben de oprichter van het "troostmeisjesstation". In Showa 7 (1932) vonden twee of drie gevallen van verkrachting plaats tijden het Sjanghai Incident. Als chef staf van het expeditieleger in die tijd wilde ik onze marine evenaren en liet ik een "troostmeisjeseenheid" transporteren door een verzoek in te dienen bij het Nagasaki kantoor."
Herinneringen van Okamura Yasuzi, chef staf van het expeditieleger van Sjanghai tijdens de invasie van Sjanghai. Hier bekent hij dat hij de Japanse marine wilde evenaren door "troostmeisjes" voor het eerst naar het leger te brengen.



© 『支那在留邦人人名錄』, 金風社, 1940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 다이이치살롱(大一サロン). 일본 해군이 상하이에 최초로 개설한 3개의 위안소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고급 유곽(공창)이었는데, 일본 해군이 군 전용 위안소로 만들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는 최초의 위안소 건물이 옛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다.

Daich Saloon, het eerste "trooststation" voor het Japanse leger. Dit is het eerste van de drie "trooststations" die door de Japanse marine in Sjanghai opgericht werden. Daarvoor was het een bordeel dat eigendom was van een Japanse, maar de Japanse marine maakte er een "trooststation" van dat alleen voor dienstplichtigen bestemd was. In Sjanghai staan de gebouwen van het eerste "trooststations" en de meeste verkeren nog in originele staat.

1937년 난징대학살 : '위안소' 제도의 체계화
1937 Het Nanjing bloedbad: systematisering van het "trooststation" systeem

1937년 7월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고, 12월에는 난징을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민간인을 학살하고 대규모의 강간을 저질렀다. 바로 '난징대학살' 사건이다. 이러한 만행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자 일본군은 병사를 달래고 양민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위안소' 제도를 체계화했다. 일본군이 직접 짓거나 관리하는 '위안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1938년) 1월 13일 오늘 급히 주보 담당의 명을 받아 주보에 갔다. 전쟁터의 군대는 재미있는 곳이다. 여급만이 있는 주보니까. 팔 물건은 하나뿐이다. 여자를 사려는 군인들이 몰려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바빴다."
田中常雄編, 1989, 「荻島靜夫陣中日記」, 『追憶の視線』下卷, 102쪽.
제101연대 제2대대가 중국 상하이에 주둔했을 당시 오기시마(荻島) 하사의 종군 일지. 주보(酒保)란 군대의 매점(PX)을 말한다. 일본군은 군대내의 주보를 '위안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In juli 1937 begon Japan een grootschalige, agressieve oorlog tegen China en in december bezette het Nanjing. Chinese burgers werden afgeslacht en verkrachtingen kwamen op grote schaal voor. Dit is het "Nanjing bloedbad." Toen de barbaarse daden het onderwerp werden van internationale veroordeling, systematiseerde het Japanse leger het "trooststation" systeem ter opbeuring van haar soldaten en ter bescherming van onschuldige vrouwen. Vanaf dit moment steeg het aantal "trooststations" welke direct ingericht of beheerd werden door het Japanse leger aanzienlijk.

"Vandaag, op 13 januari (1938), ontving ik een dringend bevel van degene die verantwoordelijk was voor de kantine. Het slagveld is een leuke plek voor een leger. Aangezien er in de kantine alleen serveersters zijn, staat er slechts één ding op het menu. De plek zat vanaf de middag tot laat in de nacht vol met soldaten die daar kwamen om vrouwen te kopen."
Uit het oorlogsdagboek van Korporaal Okisima uit de tijd dat het 2de Bataljon van het 101ste Regiment in Sjanghai, China gestationeerd was. Kantines verwijzen naar een kampwisseling (PX), dat in het leger ook gebruikt werd als "trooststation".



출처 :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일본군 병참이 지정한 '위안소'. 중국 상하이에 소재. 간판에는 〈병참 지정 위안소 고향〉이라 씌여있다. 일본군이 지정한 '위안소'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Daich Saloon, het eerste "trooststation" voor het Japanse leger. Dit is het eerste van de drie "trooststations" die door de Japanse marine in Sjanghai opgericht werden. Daarvoor was het een bordeel dat eigendom was van een Japanse, maar de Japanse marine maakte er een "trooststation" van dat alleen voor dienstplichtigen bestemd was. In Sjanghai staan de gebouwen van het eerste "trooststations" en de meeste verkeren nog in originele staat.

1941년 태평양전쟁: '위안소'의 확대
1941 De Pacifische oorlog: uitbreiding van "trooststations"

1941년 12월 일본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싱가포르, 필리핀, 버마(현재의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공격했다. 동시에 일본군이 점령해간 지역에는 차례로 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현지 주민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느끼도록 애정과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가 회교도로 일부다처의 경향이 있지만 정조감도 강하다. 만약에 하나라도 강간 등을 행하여 일본군의 군기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주민은 생활난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성병도 많기 때문에 촌장에게 할당하여 엄중한 검진 하에 위안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金原節三, 「陸軍省業務日誌摘錄」 내용 중 「深田軍醫少佐蘭印衛生狀況視察報告」, 1941. 7. 16.
군의관 후카다(深田) 소좌가 1940년 9월부터 1941년 6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를 시찰하고 보고한 내용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군 '위안소' 설립을 계획했다. 이들의 주도면밀한 계획과는 달리 현지 주민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은 끊이지 않았다.

In December 1941 begon Japan een oorlog tegen de Verenigde Staten, Groot Brittannië en Nederland, en viel de Filippijnen, Burma en Indonesië aan. Alle regio's die bezet waren door de Japanse troepen werden voorzien van "troosts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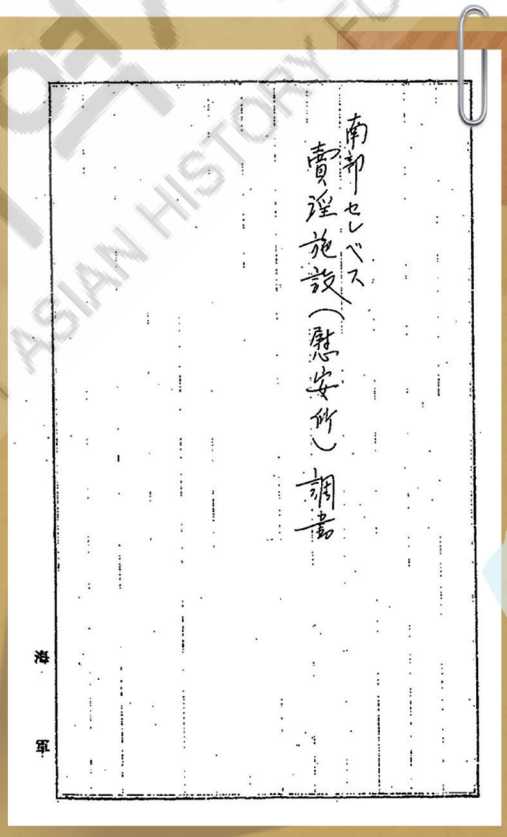
"We moeten met genegenheid en oprechtheid handelen zodat de plaatselijke bewoners een gevoel van vertrouwen naar ons toe kunnen voelen. Velen van hen waren Mohammedanen die neigden naar polygamie maar die ook een sterk gevoel van kuisheid hadden. Strikte voorzorgsmaatregelen waren vereist om te voorkomen dat ze het Japanse leger zouden wantrouwen wat veroorzaakt zou kunnen worden door een enkel geval van verkrachting. Lokale vrouwen waren er echter veel betrokken in prostitutie om zo genoeg te verdienen om te kunnen leven. Aangezien er echter vele seksuele aandoeningen waren, werd het vereist dat trooststations ingericht werden op basis van medische onderzoeken die uitgevoerd werden door het hoofd van het dorp."
Een verslag van oorlogsdokter en Majoor Hukata nadat hij Batavia (voormalig Jakarta), Indonesië van september 1940 tot juni 1941 geïnspecteerd had. Japan begon al voor het uitbreken van de Pacifische oorlog plannen te maken voor "trooststations". In tegenstelling tot hun nauwkeurige plannen werden talloze plaatselijke bewoners verkracht door Japanse soldaten.

「남부 셀레베스 매음시설(위안소) 조사」, 1946. 6. 20.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한 후 네덜란드군 군법회의 검찰관의 명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남부 셀레베스섬 소재의 '위안소'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1946년 현재, 현지 여성 '위안부' 223명이 파악됐다. 이들의 '모집 및 고용계약'은 주로 민정부 촉탁과 실업단원이 맡았다고 한다.

Verslag over Prostitutiefaciliteiten (trooststations) in Zuid Celebes, 20 juni 1946.

Een verslag over "trooststations" in Celebes in het zuiden van Indonesië in opdracht van aanklagers van de Nederlandse krijgsraad nadat Japan in de oorlog verslagen werd. Op dat moment, in 1946, werden 223 lokale vrouwen geïdentificeerd als "troostmeisjes". Hun "rekrutering en werkcontracten" werden schijnbaar uitgevoerd door de Regeringscommissie en de Industriële Eenhe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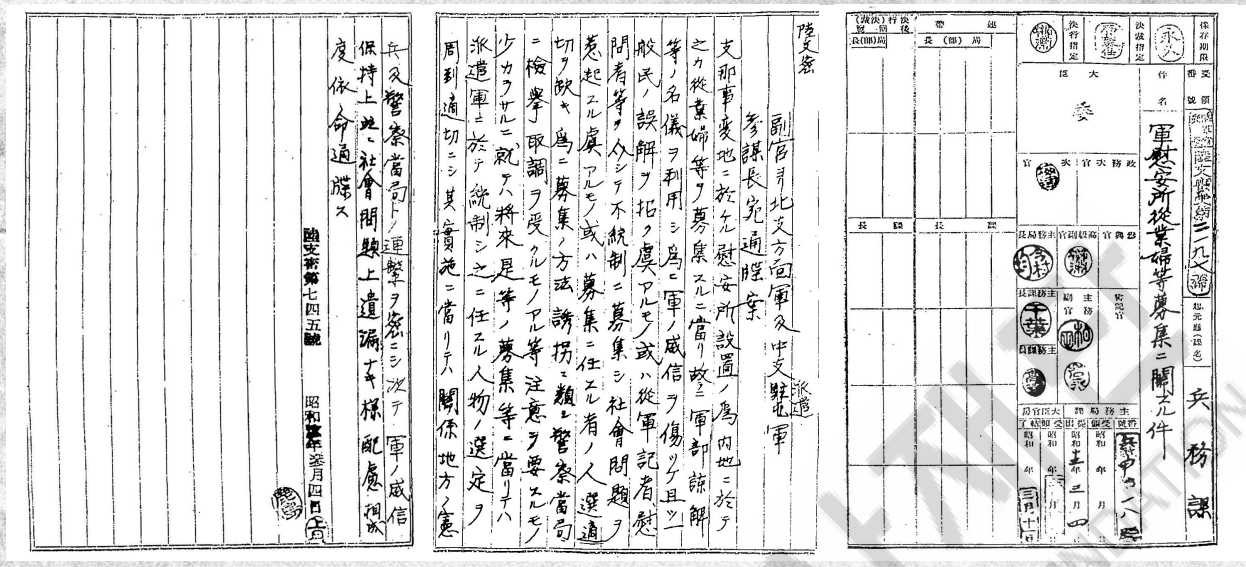


동원명령과 '위안부'가 된 여성들

Mobilisatiebevelen en "Troostmeisjes"

일본군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로 하여 '위안부' 동원방식에 변화를 보인다. 그 이전까지는 동원명령은 내리지만, 동원과정에서는 일본군의 존재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층층이 얽힌 브로커 매커니즘을 활용했으며, 관계지방의 헌병이나 경찰 등의 협조를 지시했다. 집집의 남편이나 아들을 군인으로 동원해 간 상황에서 군인을 위한 '위안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군인 가족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한 공창 및 인신매매 반대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다. 일본군 스스로 일본군'위안소' 제도의 존재를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Het Japanse leger veranderde vanaf 1941, toen de Pacifische Oorlog uitbrak, de manier waarop "troostmeisjes" gemobiliseerd werden. Tot die tijd werden mobilisatiebevelen gegeven maar de blootstelling van het Japanse leger in het proces was minimaal.
Een complex handelaarmechanisme werd gebruikt en de samenwerking van de van de gendarme of politiemacht van relevante regio's werd bevolen. Er werd gevreesd dat de onthulling van "troostmeisjes" die gemobiliseerd worden tot weerstand zou leiden van militaire families, vooral aangezien vaders en zonen van de meeste families al gemobiliseerd waren om te vechten in de oorlog. Daarnaast zou de sterke internationale consensus tegen toegestane prostitutie en mensenhandel Japan in het middelpunt zou hebben geplaatst van scherpe kritiek. Het Japanse leger zag zijn "comfortkampen" al als een "schande van zijn eigen na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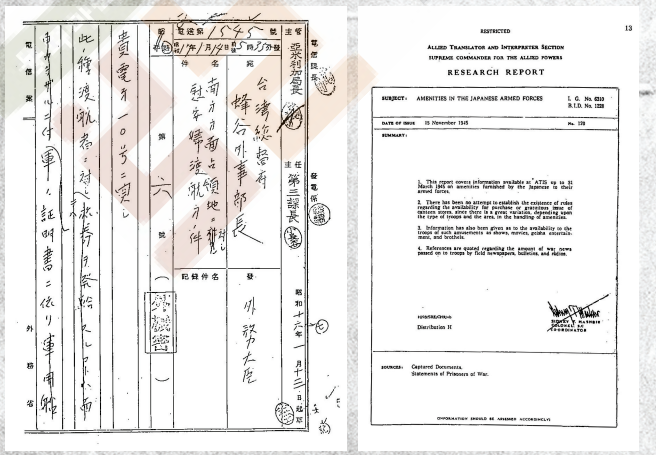
앞으로 이들['위안부']을 모집할 때는 파견군 쪽에서 통제하고 이를 담당할 인물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하며, 이것을 실시할 때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 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를 바라면서 이 통지를 보낸다.

陸軍省副官通牒, 1938. 3. 4,「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關する件」.

Dit bericht is verzonden in afwachting van een strikte personeelsselectie voor het expeditieleger dat van nu af aan verantwoordelijk zal zijn voor het rekruteren van deze "troostmeisjes" en, daardoor, van een zorgvuldige overweging in nauwe samenwerking met de regionale gendarme en politieautoriteiten om vergissingen in het behouden van de status van het leger en de gemeenschap te voorkomen.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전황이 급박해지자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방식은 좀 더 직접적인 것으로 바뀐다. '군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위안부' 수송을 기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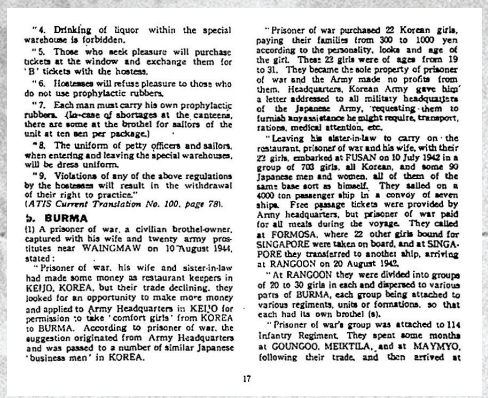
Met het uitbreken van de Pacifische Oorlog in 1941 en steeds dringend wordende oorlogsomstandigheden werden de mobilisatiemiddelen van "troostmeisjes" van het Japanse leger directer. "Militaire certificaten" werden uitgegeven zodat het transport van "troostmeisjes" op een snelle en nauwkeurige manier uitgevoerd kon worden.



"이러한 종류의 도항자(위안부)에 대해서는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군의 증명서에 의하여 도항시킬 것"

外務大臣, 1942. 1. 14,「南洋方面占領地に對し慰安婦渡航方の件」.

"Dergelijke passagiers (troostmeisjes) zullen vervoerd worden in overeenstemming met militaire certificaten [aangezien het uitgegeven van paspoorten omslachtig is]."



"4. Drinking of liquor within the special warehouse is forbidden.

"5. Those who seek pleasure will purchase tickets at the window and exchange them for 'B' tickets with the hostess.

"6. Hostesses will refuse pleasure to those who do not use prophylactic rubbers.

"7. Each man must carry his own prophylactic rubbers. (In case of shortages at the canteens, there are some at the brothel for sailors of the unit at ten sen per package.)

"8. The uniform of petty officers and sailors, when entering and leaving the special warehouses, will be dress uniform.

"9. Violations of any of the above regulations by the hostesses will result in the withdrawal of their right to practice."
(*ATIS Current Translation No. 100, page 78*).

2. BURMA

(1) A prisoner of war, a civilian brothel-owner, captured with his wife and twenty army prostitutes near WAINGMAW on 10 August 1944, stated:

"Prisoner of war, his wife and sister-in-law had made some money as restaurant keepers in KEIJO, KOREA, but their trade declining, they looked for an opportunity to make more money and applied to Army Headquarters in KEIJO for permission to take 'comfort girls' from KOREA to BURMA. According to prisoner of war, the suggestion originated from Army Headquarters and was passed to a number of similar Japanese 'business men' in KOREA.

"Prisoner of war purchased 22 Korean girls, paying their families from 300 to 1000 yen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looks and age of the girl. These 22 girls were of ages from 19 to 31. They became the sole property of prisoner of war and the Army made no profits from them. Headquarters, Korean Army gave him a letter addressed to all military headquarters of the Japanese Army, requesting them to furnish him assistance he might require, transport, rations, medical attention, etc.

"Leaving his sister-in-law to carry on the restaurant, prisoner of war and his wife, with their 23 girls, embarked at FUSAN on 10 July 1942 in a group of 703 girls, all Korean, and some 90 Japanese men and women, all of them of the same base sort as himself. They sailed on a 4000 ton passenger ship in a convoy of seven ships. Free passage tickets were provided by Army headquarters, but prisoner of war paid for all meals during the voyage. They called at FORMOSA, where 22 other girls bound for SINGAPORE were taken on board, and at SINGAPORE they transferred to another ship, arriving at RANGOON on 20 August 1942.

"At RANGOON they were divided into groups of 20 to 30 girls in each and dispersed to various parts of BURMA, each group being attached to various regiments, units or formations, so that each had its own brothel (s).

"Prisoner of war's group was attached to 114 Infantry Regiment. They spent some months at GOUNGOO, MEIKTILA, and at MAYMYO, following their trade, and then arrived at

17

ⓒ NARA

「聯合軍飜譯通譯部局(ATIS) 관계문서 조사보고서 No.120(1)」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 (ATIS) onderzoeksrapport over gerelateerde documen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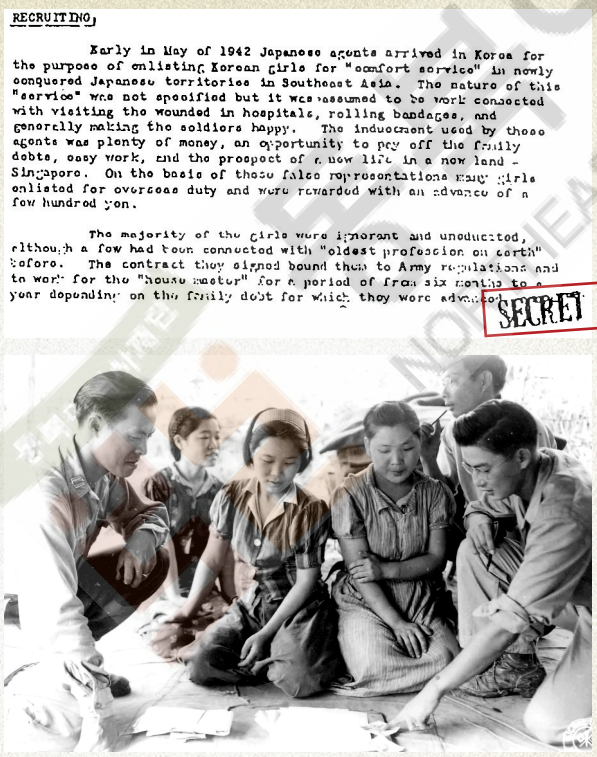
[Voorzieningen in de Japanse strijdkrachten] , 1945. 11. 15.

1942년에 당시 한국에서 '위안부'를 모집하여 미얀마에서 '위안소'를 운영했던 일본인 업자는 1944년에 포로로 잡힌 후 연합군의 심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당시 한국에 소재했던 일본군 육군사령부(조선군사령부)의 요구에 응해, 한국인 여성 22명을 인신매매했으며 '위안부'를 미얀마로 데리고 오는 데 필요한 모든 원조는 조선군사령부가 일본 육군의 모든 사령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이다.

이들 피해여성들을 조사한 또 다른 보고서는 '위안부' 여성들이 누가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업자들은 이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유혹했으며, 대부분 가족의 빚을 걱정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그것은 솔깃한 제안이었다.

Een Japanse handelaar die in 1942 een groep "troostmeisjes" bij elkaar had gebracht in Korea en een "troostkamp" runde in Myanmar, onthulde het volgende tijdens een verhoor door de strijdkrachten toen hij in 1944 gevangen genomen werd als krijgsgevangene. Hij bekende dat hij 22 Koreaanse vrouwen had verhandeld in overeenstemming met de eisen van het Militair Hoofdkantoor van het Japanse leger (Militair Hoofdkantoor Chosun) en dat alle ondersteuning die hij nodig had om de "troostmeisjes" naar Myanmar te brengen geleverd werd door het verzoek dat het Militair Hoofdkantoor Chosun indiende bij het hoofdkantoor van het Japanse leger.

Een ander verslag dat de slachtoffers had onderzocht, toont aan dat de "troostmeisjes" niet wisten door wie ze mee werden genomen, waar ze heen werden gebracht en ook niet waarom. Handelaren lokten die vrouwen met de smoes dat ze veel geld zouden verdienen en een kans zouden krijgen op een nieuw leven. Voor vrouwen wier families schulden hadden en die geen opleiding hadden was een dergelijk aanbod aantrekkelijk.



RECRUITING

Early in May of 1942 Japanese agents arrived in Korea for the purpose of enlisting Korean girls for "comfort service" in newly conquered Japanese territories in Southeast Asia. The nature of this "service" was not specified but it was assumed to be work connected with visiting the wounded in hospitals, rolling bandages, and generally making the soldiers happy. The inducement used by these agents was plenty of money, an opportunity to pay off the family debts, easy work, and the prospect of a new life in a new land - Singapore. On the basis of these false representations many girls enlisted for overseas duty and were rewarded with an advance of a few hundred yen.

The majority of the girls were ignorant and uneducated, although a few had been connected with "oldest profession on earth" before. The contract they signed bound them to Army regulations and to work for the "house master" for a period of from six months to a year depending on the family debt for which they were advanced.

SECRET

ⓒ NARA

United States Office of War Information,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49.", 1944. 10.

Amerikaans Bureau voor Oorlogsinformatie, "Japanse Krijgsgevangene Verhoorverslag Nr. 49.", 1944. 10.

위안소 이용 규칙

Regels voor het gebruik van "trooststations"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위안소'는 일본군 병참 시설의 일부였다.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방법과 운영요령, 이용규칙 등을 안내서로 만들었고, '위안부'의 동원, 이동, 생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했다.

"이런 일이란 게 군대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테지만, 전쟁터에 가면 삐집이…… 조달되는 여자의 내구성이라든가 소모 정도, 게다가 어디 여자가 좋다는 둥 나쁘다는 둥 말하고는 했지요. 거적을 들치고 그곳에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대기시간'이 장교는 몇 분, 하사관은 몇 분, 병사는 몇 분…… 하는 것까지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요금도 등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삐집 설치요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경리학교에서 배웠습니다"

樓田茂 · 鹿内信隆, 1983,『いま明かす戰後秘史』上巻, サンケイ出版.

육군경리학교를 나온 시카나이가 재학시절을 떠올리면서 한 말이다. 여기에서 '삐집'은 '위안소'를 가리킨다. '삐'는 중국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인데, 병사들 사이에서 '위안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병사들에게 '위안부'는 인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경리학교에서 경리장교가 되는 사람에게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 방법까지 교육을 시켰다.

Tijdens de Pacifische oorlog maakten "trooststations" onderdeel uit van de faciliteit van de Japanse militaire commissaris. Het Japanse leger maakte handleidingen waarin de inrichtingsmethoden, uitvoeringsrichtlijnen en regels van de "trooststations" uitgelegd werden. Het regelde ook algemene zaken betreffende de mobilisatie, het vervoer en het leven van "troostmeisjes".

"Zoiets als dit was misschien nooit gebeurd als er geen leger was, maar de *pijip* op de slagvelden... We maakten opmerkingen over de duurzaamheid van geleverde vrouwen en hun uitputtingsniveau, en over het feit dat vrouwen uit bepaalde regio's goed of slecht waren. De "wachttijd", tijd die gemeten werd vanaf het moment dat iemand het rieten gordijn opendoet en de kamer binnentreedt totdat hij weer weggaat, moest ingesteld worden afhankelijk van of hij een officier, onderofficier of soldaat was. Het tarief werd ook bepaald naar aanleiding van de rang van iemand. Deze regels werden beschreven in wat de "pijip handleiding" genoemd werd waar ik in managementschool ook over onderwezen werd."

Opmerkingen van Shikanai over herinneringen van zijn tijd op de militaire managementschool waarvan hij is afgestudeerd. Hier verwijst het woord pijip naar een "trooststation". In het Chinees is Pi een minachtende term voor de genitaliën van een vrouw en deze term werd door soldaten gebruikt als verwijzing naar "troostmeisjes". "Troostmeisjes" werden daarom door de soldaten niet gezien als mensen. Het Japanse leger onderwees diegenen die managementofficiers werden op managementscholen over de inrichting en werking van "comfortstations".

〈위안소 규정〉 Regels met betrekking tot "trooststations"

1938년 1월에 중국 상하이에 개설됐던 육군위안소 벽에 걸린 〈위안소 규정〉. 상하이파견군 병참사령부의 명령으로 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안소는 육군 군인, 군속(軍屬), 군부(軍夫)만이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하는 사람은 위안소 외출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입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를 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에 입장권과 콘돔 한개를 받아야 한다.
1. 입장권의 요금은 하사관, 병사, 군속은 2엔, 장교는 5엔이다.
1.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은 지정된 방에 들어가 30분 동안만 머물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하고 군기를 어지럽힌 사람은 강제로 퇴실시킨다.



출처 : 麻生徹男, 1993,『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Regels betreffende "trooststations"] die op de muur van een "trooststation" geplaatst waren in Sjanghai, China in januari 1938. Het bestaat uit bevelen door het commissaris hoofdkantoor van het expeditieleger dat in Sjanghai gestationeerd was. De hoofdlijnen van de inhoud zijn:

1. Alleen militaire soldaten, burgers verbonden aan het leger en militaire autoriteiten worden toegelaten tot dit "trooststation". Degenen die toegang wilden moesten in bezit zijn van een "trooststationpas".
1. Degenen die toegang wilden moesten zich registreren en betalen waarna zij een toegangskaartje en een condoom ontvingen.
1. Toegangstarieven waren als volgt: twee Yen voor onderofficiers, soldaten en burgers verbonden aan het leger; vijf Yen voor officiers.
1. Degenen die een toegangskaartje hadden gekocht mochten maximaal 30 minuten blijven vanaf het moment dat zij een aangewezen kamer binnengingen.
1. Degenen die de regels en militaire discipline overtraden werden met geweld verwijderd uit de kamer waarin zij zich bevonden.

병사의 성병 예방은 '위안소' 설치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병사의 콘돔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정기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성병 검사를 하였다.

1937년에 징집되어 상하이파견군 병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소 테츠오(麻生徹男) 군의관은 1938년 1월 2일, 갑자기 병참사령부의 긴급명령을 받았다. 육군위안소를 설립하려 하니, 상하이의 한 소학교에 가서 그곳에 모여 있는 여성 104명의 성병검사를 하라는 것이다. 다음날 가 보니 일본인 여성 24명, 조선인 여성 80명이 있었다. 며칠 후 이 여성들은 일본 병영으로 운송되어 콘돔 사용법과 기모노 입는 법을 교육받았다. 군대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조선인 소녀들은 이제야 앞으로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을 알고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했다.

Het voorkomen van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en onder soldaten was één van de meest belangrijke zaken van de "trooststations". Daarom stelde het Japanse leger het gebruik van condooms verplicht en voerde regelmatig onderzoeken uit naar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 onder "troostmeisjes".

Oorlogsdokter Asotezuo die in 1937 opgeroepen was en in een militair ziekenhuis werkte voor het

expeditieleger dat gestationeerd was in Sjanghai, ontving op 2 januari 1938 een dringend bevel van het commissaris hoofdkantoor. Hem werd verteld naar een bepaalde lagere school in Sjanghai te gaan en een onderzoek naar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en uit te voeren onder de 104 vrouwen die daar zouden zijn aangezien het commissaris hoofdkantoor van plan was een "trooststation" in te richten. Toen hij daar de volgende dag heenging, trof hij er 24 Japanse en 80 Chosun vrouwen aan. Een paar dagen later werden deze vrouwen naar Japanse barakken gebracht en onderwezen over het gebruik van condooms en het dragen van Kimono's. De Chosun meisjes die dachten dat zijn zich bezig zouden houden met koken en de was doen in militaire eenheden realiseerden zich eindelijk wat de toekomst voor hen in petto had en huilden in doodsangst.



출처 :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콘돔 〈돌격1번〉. 상하이 육군위안소에서 사용된 콘돔. 일본군은 병사들이 '위안소' 를 이용하는 이유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콘돔에 〈돌격1번〉이라고 새겼다.

Condoom [Blitz Nr. 1] Condoom gebruikt in een "trooststation" van het leger in Sjanghai. Het Japanse leger graveerde [Blitz Nr. 1] op condooms in de hoop dat de soldaten de redenen waarom ze de "trooststations" gebruikten niet zouden vergeten.



출처 :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군의관 아소 테츠오가 군의 명령으로 '위안부' 들의 성병검진을 한 후 간호사들과 함께 촬영을 하였다. 아소 테츠오의 사진은 '위안부' 제도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Oorlogsdokter Asotezuo nam een foto met de zusters nadat hij de onderzoeken naar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en onder de "troostmeisjes" had uitgevoerd in opdracht van het leger. Zijn foto speelde een belangrijke rol in het onthulling van de realiteiten van het "troostmeisjes" systeem.



출처 :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검사 장비가 제대로 없는 것을 보고 아소 테츠오는 조수들과 함께 임시검사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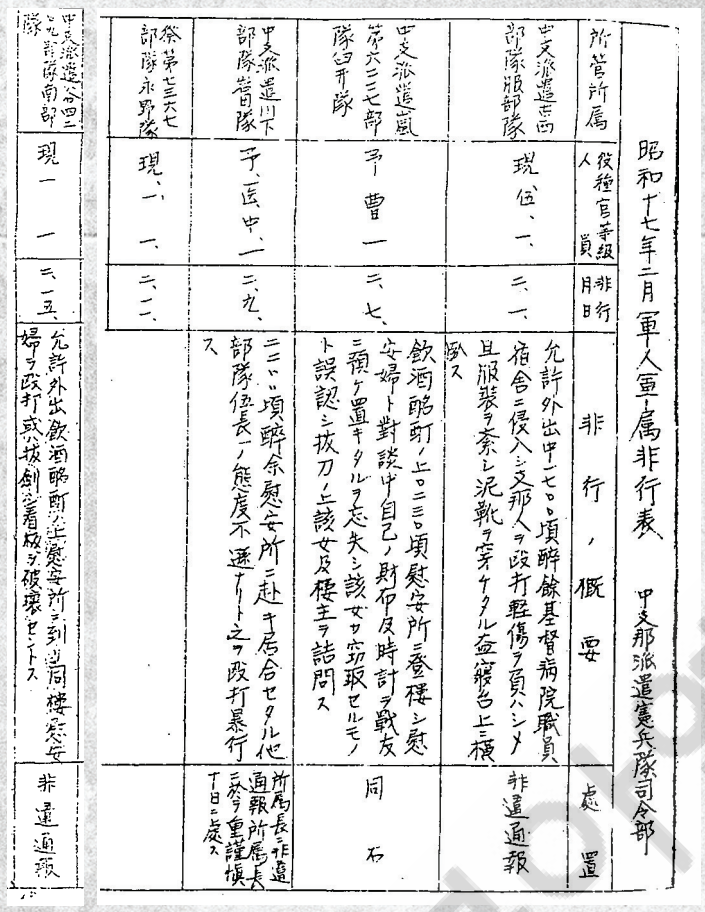
Asotezuo kwam erachter dat er geen goede onderzoeksapparatuur was en maakte samen met zijn assistenten een tijdelijke onderzoekstafel.



출처 : 麻生徹男, 1993, 『上海より上海へ』, 石風社.

여성들이 줄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Vrouwen die in de rij staan voor een medisch onderzoek.



昭和十七年二月軍人軍屬非行表

中支那派遣憲兵隊司令部

所管所属	役種官等級人員	非行月日	非行ノ概要	處置
中支派遣西部隊服部隊	現、伍、一、	二、一、	允許外出中一七〇〇頃醉餘基督病院職員宿舍ニ侵入シ支那人ヲ殴打軽傷ヲ負ハシメ且服装ヲ紊シ泥靴ヲ穿ケタル盃寢台上ニ横臥ス	非違通報
中支派遣山風第六二二七部隊臼井隊	予、曹、一	二、七、	飲酒酩酊ノ上〇二三〇頃慰安所ニ登楼シ慰安婦ト對談中自己ノ財布及時計ヲ戰友ニ預ケ置キタルヲ忘失シ該女ヲ窃取セルモノト誤認シ抜刀ノ上該女及楼主ヲ詰問ス	同石
中支派遣川下部隊菅隊	予、医、中、一	二、九、	二二〇〇頃醉余慰安所ニ赴キ居合セタル他部隊伍長ノ態度不遜ナリト之ヲ殴打暴行ス	所属長ニ非違通報所属長ニ於テ重謹慎十日ニ處ス
祭第七三六七部隊永昇隊	現、一、一、	二、一二、		
中支派遣谷四二〇九部隊南部隊	現一一	二、一五、	允許外出飲酒酩酊ノ上慰安所ニ到リ同楼慰安婦ヲ殴打或ハ抜劍シ着板ヲ破壊セントス	非違通報

중국 중부 지방에 파견됐던 헌병대가 작성한 군인 군속의 비행표이다. 병사들이 술을 먹고 '위안소'에서 폭행을 행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월 7일. 술을 먹고 몹시 취한 상태에서 2시 30분경에 위안소에 갔음. 자기의 지갑과 시계를 전우에게 맡겨 둔 것을 잊어버리고 '위안부'가 몰래 훔쳐갔다고 오인해서 칼을 빼어 들고 그녀와 업주를 혼내고 따짐"

"2월 15일. 외출 때에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위안소에 갔음. '위안부'를 때리고 칼을 빼서 간판을 부수려고 했음"

〈위안소 이용 규칙〉에는 음주 및 폭행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병사들은 술에 취했고, 칼을 빼어 들고 위협했으며, '위안부'를 때렸다. 어느 '위안부'에게 그것은 평생 헤어나오기 힘든 악몽의 씨앗이었다.

"사람 취급을 안 해. 말 못한다. 장교놈들이 술을 처먹고 와 갖고 그 긴 칼 있지. 질질 끌고 다닌다. 자기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목이라도 쳐서 죽이겠더라고. 그 놈들을. 아휴 아휴---- 그 말을 어디다 다--"
정대협 전쟁과여성인권 센터, 2004,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전쟁과 여성인권.

Een formulier over wangedrag ingevuld door militaire politieagenten uitgezonden naar een centraal gebied in China. De inhoud bevat geweldsdaden die door dronken soldaten gepleegd waren op "trooststations".
"7 februari. Een militair ging rond 02:30 uur zeer dronken naar een trooststation. Hij was vergeten dat hij een medesoldaat had gevraagd zijn portemonnee en horloge te bewaren en dacht dat een "troostmeisje" deze gestolen had. Hij bedreigde haar en de beheerder door zijn zwaard te trekken."
"15 februari. Een militair ging tijdens verlof compleet dronken naar een trooststation. Hij sloeg een "troostmeisje" en probeerde het uithangbord kapot te slaan door zijn zwaard te trekken."

De [Regels voor het gebruik van trooststations] verbieden drank en geweld duidelijk, maar soldaten waren dronken, bedreigden "troostmeisjes" met hun zwaarden en sloegen hen. Voor de "troostmeisjes" waren die ervaringen de oorzaak van nachtmerries die nooit meer zouden verdwij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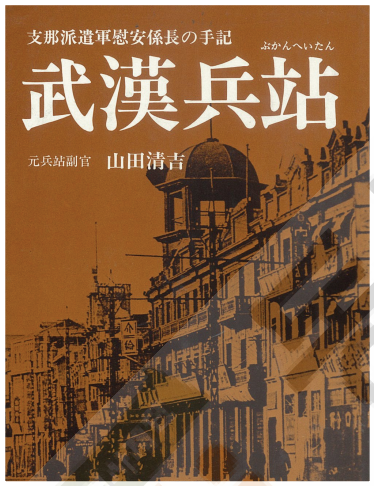
"Ze behandelen je alsof je niet menselijk bent. Waar moet ik in godsnaam beginnen? De officiers komen dronken binnen en die lange zwaarden die ze hebben, die slepen ze rond. Als ik niet deed wat ze me opdroegen, leken het alsof ze gereed waren om mijn keel meteen open te snijden. Die klootzakken. (Diepe zucht) Waar moet ik in godsnaam beginnen..."
War and Women's Human Rights Center, de Koreaanse raad voor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Stories that Make History, War and Women's Human Right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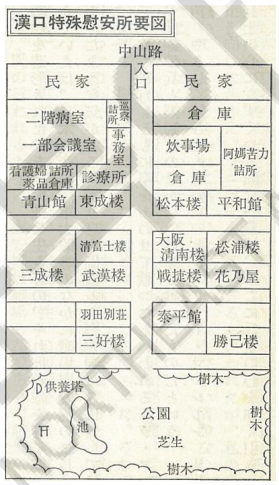
실태 1: 중국 최대의 위안소 거리, 한커우 지칭리

Zaak 1: China's straat met de meeste "troosstations," Hankou Zicheng

1937년 중국과 전면전을 개시한 일본군은 1938년 10월에 중국 중부에 있는 '우한(武漢)' 지역, 곧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을 점령했다. 곧이어 11월, 한커우의 지칭리(積慶里)에는 중국 최대의 위안소 거리가 만들어졌다. 한커우 병참사령부 위안계장이었던 야마다 세이키치(山田清吉)는 당시 '위안소'를 관리하고 감독했던 경험을 『우한병참(武漢兵站)』이라는 책을 통해 회고하였다.

Japan, dat in 1937 een grootschalige oorlog was begonnen tegen China, bezette in oktober 1938 Yuhan, Wuchang, Hankou en Hanyang in centraal China In zijn boek "Muhanbyeongcham", Yamada Seikichi, toenmalige Troostchef van het Hankou Militair Hoofdkantoor, kijkt hij terug op zijn ervaringen van het beheren van en toezicht houden op "trooss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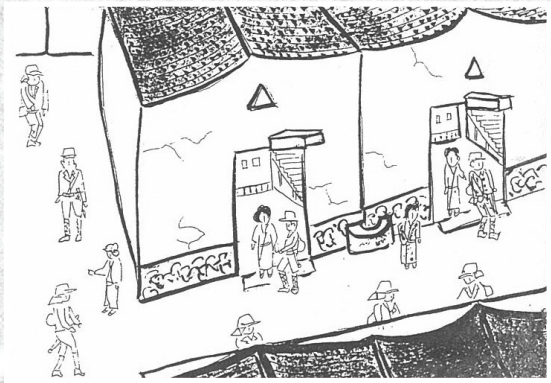
왼쪽의 약도도 책 안의 것을 직접 스캔할 것임.
1943년 현재 지칭리 내 '위안소'는 모두 20채였고, 일본인 '위안부' 130명, 조선인 '위안부' 150명이 있었다고 한다. 지칭리 입구에는 철 대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었다.

[Muhanbyeongcham] Voorpagina : direct gefotografeerd
De omslag van het boek " Muhanbyeongcham" en de kaart van "troosstation" Zicheng getekend door Seikizi
Vanaf 1943 waren er 20 "troosstations" in Zicheng, 130 Japanse "troostmeisjes" en 150 Koreaanse "troostmeisjes". Het stalen hek van de ingang van Zicheng weerhield mensen ervan om vrijwillig naar binnen te gaan.

출처 : 山田清吉, 1978, 『武漢兵站』, 圖書出版社.

한커우 위안소(지칭리)의 스케치
지칭리 위안소에 관한 어느 위생병의 기억과 스케치.
"가운데 들어서자 네 갈래의 길이 있었고 그 양측에 「○○루」와 「△△관」이라고 쓰인 간판을 건 가게가 늘어서 있었다. 가게 안에 한발 들어가자 여자들의 얼굴 사진이 몇 개인가 걸려 있다. 노는 방은 2층이다. 전우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내지의 요시하라 유곽과 같은 구조가 된다. 현재 이 시설에서 병사를 상대하는 여자들은 혼슈에서도 남쪽 출신자가 많고, 또한 말에 강한 사투리가 있는 반도 출신인이 많다고 한다. 여기 야간은 장교 전용이 된다."

Een tekening van een "troosstation" in Zicheng, Hankou
Herinneringen en een tekening van "troosstations" in Zicheng gemaakt door een medewerker



출처 : 村上千之助, 1992, 『野戰予備病院「ある衛生兵の私記」』, 私家版, 64쪽.

Toen ik het centrum binnenliep waren er vier straten en aan beide kanten van die straten zaten rijen winkels met uithangborden waar "Bordeel" en "Hal" opstond. Toen ik een winkel binnenging, zag ik een aantal foto's van meisjesgezichten aan de muur hangen. De plezierkamers zaten op de eerste verdieping. Volgens een andere soldaat was de structuur hetzelfde als die van Yoshihara bordelen in ons land. Ik had gehoord dat veel van de vrouwen in deze faciliteiten uit Honshu, het zuiden en het schiereiland kwamen en dat ze sterke accenten hadden. 's Avonds werden die plaatsen exclusief geopend voor officiers.

한국인 생존자, 하상숙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gerekruteerd door Japa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gefotografeerd in oktober 2008.



1994년, 일본군 '위안소' 의 실태조사를 위해 중국 한커우를 방문한 한국 조사팀은 그곳에서 하군자(河君子)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다. 활달하고 정이 많은 그녀는 지칭리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생존자였다.
종전 후 중국에 남았던 그녀는 우한지역 한국인들의 모임인 〈학습소조(小組)〉를 이끌면서 그 지역 '위안부' 생존자의 일상을 보살폈다. 1950년대 말 33명이었던 피해자들은 1994년 현재 10명도 채 살아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거나, 철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거나 했다고 한다.
'하군자' 는 '위안소' 에서 사용했던 이름인데, '위안소' 에서는 '키미코(君子)' 로, 종전 후 중국에서는 '쥔즈(君子)' 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녀의 본명은 하상숙이었다.

Het Koreaanse onderzoeksteam dat China in 1994 bezocht voor een onderzoek naar de Japanse militaire "troosststations" ontmoetten een vrouw genaamd "Ha Gun Ja." Ze was energiek en warmhartig, en een overlevende die in Zicheng als "troostmeisje" had gediend.
Toen de oorlog ten einde kwam, bleef ze in China en zorgde ze voor voormalige "troostmeisjes" in Yuhan door een groep genaamd 'Hakseup sojo (kleine groep voor leren)' te leiden voor Koreanen die in de regio woonden. Eind jaren '50 waren er 33 overlevenden maar nog geen 10 van hen leefden nog in 1994. Ze hadden zelfmoord gepleegd vanwege ernstige depressie of door voor een trein te springen.
De naam "Ha Gun Ja" was de naam de ze gebruikte in "troosststations". Ze gebruikte ook de naam "Kimiko" en daarna "Juinzu" in China. Haar echte naam was Ha Sang Sook.

하상숙 – 나의 이야기

나는 192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7살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선 남자를 따라갔다. 경성 여관에 젊은 여자 40명이 모였을 때, 여관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기차를 탔다. 단둥과 톈진을 거쳐 한커우에 내린 것이 1944년 12월이었다. 지칭리 주인집에 도착하니 언니들이 집 앞에 나와 있었다. 나를 보고 "저렇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이 들어왔구나" 했다. 주인은 내가 오는 동안 입고 먹은 것이 다 빚이라며, 그걸 갚으려면 3년은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만에 군의가 와서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주사를 놓았다. 언니들은 그것이 어린애 못 낳게 하는 주사라고 말했다. 주인은 나를 데리고 일본사람의 허가를 받으려면 나이를 올려 말하라고 시켰다. 일본사람들은 18살이 넘어야 허가장을 줬기 때문이다.
위안소는 2층이었다. 지칭리 입구에 철문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였다. 피(월경)가 나올 때도 솜으로 막고

군인을 받았다. 일본인 의사들은 피가 나올 때 군인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주인은 받으라고 했다. 매주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성병 검사를 받았다. 병이 있어서 손님을 못 받으면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솜에 먼지를 묻혀서 조금 발랐다. 병 있으면 손님 안 받고 좋았을 것을, 그 때는 몰라서 그랬다.
우리가 손님을 안 받으려 하거나 손님에게 잘하지 못하면 손님이 주인에게 항의했다. 그러면 주인이 나무몽둥이로 우리를 때리고 발길로 차고 그랬다. 군인은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 왔다. 일요일에는 많아서 밖에서 줄서서 기다렸다. 주인이 하루에 몇 명이 왔는지 장부에 적었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돈을 받지는 못했다.
어느날 일본이 전쟁에 졌다고 했다. 나는 고향에 가지 않았다. 이 몸으로 고향에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중국에서 살면서 나는 위안소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를 사용하여 '하군자'가 됐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28살 때 아이가 있는 중국 남자와 결혼했다. 의붓어미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딸들한테 잘했다. 중국인 남편(1994년 작고)이 내게 잘했으니까 내가 딸들한테 갚아야지.

정신대연구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1995,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60~82쪽에서 발췌 · 재정리.

Ha Sang Sook : Mijn verhaal

Ik ben in 1928 geboren in Seosan, in de zuidelijke provincie Chungcheong. Op 17 jarige leeftijd volgde ik een Chosun man die zei dat ik veel geld kon verdienen. In December 1944 arriveerde ik in Hankou nadat we Dandong en Tianjin gepasseerd hadden. Toen ik bij het huis van de werknemer aankwam in Zicheng zag ik oudere meiden voor het huis staan. Ze keken mij aan en zeiden: "zij is nog nat achter de oren." De werknemer zei dat alles dat ik gegeten en gedragen had tijdens de reis een schuld was en dat het drie jaar zou duren voordat die afbetaald zou zijn.
Op mijn derde dag werd ik onderzocht door een dokter die controleerde of ik ziektes had en hij gaf me een injectie. De oudere meiden zeiden tegen me dat het een injectie was waardoor ik geen kinderen zou krijgen. Toen ik toestemming ging vragen aan een Japanse persoon zei de werknemer tegen me dat ik moest zeggen dat ik ouder was dan dat ik daadwerkelijk was. Dit omdat die Japanners alleen toestemming gaven aan personen van 18 jaar en ouder.
Het "trooststation" was een gebouw met twee verdiepingen. De ingang van Zicheng was afgesloten met een stalen hek zodat ik niet zomaar kon komen en gaan. Zelfs toen ik bloedde (menstruatie) blokkeerde ik het met watten en zag nog steeds soldaten. Elke maandag gingen we naar het ziekenhuis en werden we onderzocht op seksueel overdraagbare aandoeningen. Ik deed wat vuil op een watje en wreef dat zachtjes in omdat de werknemer het niet leuk vond als ik geen klanten kon aannemen vanwege een of andere ziekte. Het zou fijn gevonden zijn om geen klanten te kunnen aannemen vanwege een ziekte. cDat wist ik toen niet.
Als we probeerden geen klanten aan te nemen of geen goede dienst leverde, klaagden de klanten bij mijn werknemer. Hij sloeg ons dan met een houten knuppel en schopte ons. Per dag kwamen ongeveer 10 tot 15 soldaten. Op zondagen waren er veel soldaten en die moesten dan buiten in de rij gaan staan en wachten. De werknemer schreef elke dag in zijn boek hoeveel soldaten er waren geweest maar we kregen nooit geld van hem.
Op een dag hoorden we dat Japan de oorlog had verloren maar ik ging niet terug naar mijn woonplaats. Ik bleef omdat ik me afvroeg wat ik daar zou doen met dat lichaam van me. Ik woonde in China en behield de naam die ik gebruikte in de "trooststations," "Ha Gun Ja." Ik was onvruchtbaar dus op 28 jarige leeftijd trouwde ik met een Chinese man die al kinderen had. Ik was goed voor zijn dochters omdat ik niet wilde dat mensen me hun stiefmoeder noemden. Mijn Chinese man (gestorven in 1994) was erg goed voor me dus ik wilde zijn goedheid teruggeven aan zijn dochters.

Chongshindae Onderzoeksinstituut,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ar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Chosun Comfort Women Forcibly Conscripted to China, Hanwul, 1995, van pag. 60 82 en anders georganiseerd.



1994년의 지칭리의 하상숙. 자신이 '위안부' 생활을 했던 건물 앞에서 촬영을 했다. 야마다 세이키치의 약도에 따르면 '위안소'의 이름은 '미츠나리루(三成樓)'였다.

Sang Sook Ha in 1994 in Zicheng, een foto voor het gebouw waarin ze woonde als "troostmeisje". Volgens de kaart die getekend werd door Yamada Seikizi was de naam van dit "trooststation" "Mizunariru."



2000년 현재 한커우 지칭리. 이 곳에 개설됐던 '위안소'는 전후(戰後)에 폐쇄되었다. 하지만 옛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Zicheng, Hankou in 2000. De "trooststations" die hier ingericht waren, werden gesloten nadat de oorlog was afgelopen. Een aantal gebouwen uit die jaren staat er nu nog.



지칭리 공원 안에 건립된 '위안부' 공양탑. 병으로 죽은 '위안부'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웠다.

Een toren in het Zicheng Park om de zielen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die overleden vanwege ziekte te herdenken en troosten.

출처 : 山田清吉, 1978,『武漢兵站』, 圖書出版社.

실태 2: '위안부' 와카하루(若春)에 대한 기억, 그리고 박영심의 기억

Zaak 2: Herinneringen van "troostmeisje" Wakaharu en herinneringen van Young Shim Park

1942년 5월, 일본군은 중국 윈난성의 라멍(拉盟 :松山[송산]으로 통칭)을 점령하고 중국군의 항일활동에 대한 미군의 원조 루트를 차단시킨다. 끈질긴 반격으로 맞서던 중국군은 1944년에 들어와 일본군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고 마침내 9월, 라멍수비대를 전멸시킨다. 포탄과 폭격이 휩쓸고 지나간 현장은 처참했다. 그러나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밴 그곳에서도 살아남은 자는 있었다. 미군 발행의 신문 『ROUNDUP』의 기자는 "JAP 'COMFORT GIRLS'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목의 기사로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NOVEMBER 30, 1944. C. B. I. ROUNDUP 9

JAP 'COMFORT GIRLS'

By WALTER RUNDLE
United Press Correspondent

SALWEEN FRONT—(Delayed)—Chinese troops mopping up among the Japanese fortifications on the Salween Front, recently captured 10 Japanese and Korean women who had lived with the enemy troops throughout three months of shattering artillery bombardment and desperate close in fighting that fully reduced Sungshan Mountain.

The Japanese had shipped a supply of women to the forward fortresses at Sungshan and other large garrisons on the Salween Front. American liaison officers in action with the Chinese troops were inclined to doubt their own eyes when they first encountered this evidence of Japanese ruthlessness, at Tengchung where they found one Korean girl buried alive in a Japanese ammunition dump as a result of a nearby bomb burst.

With the help of a Japanese-speaking Chinese student who had escaped from Manchuria and now is serving with the Americans, the personal story of five of the pathetic women of Sungshan was obtained. Four of them were Korean peasant girls, 24 to 27 years old. They wore Western-type cotton dresses they said they'd purchased in Singapore.

NOT WAC's

They sat on low stools and eagerly puffed American cigarettes as they gradually relaxed from the shock of months of bomb and shell explosions. They said that early in the spring of 1942 Japanese political officers arrived in their home village, Pingyang, Korea. With propaganda posters and speeches the Japs began a recruitment campaign for "WAC" organizations which they said were to be sent to Singapore to do noncombatant work in rear areas—running rest camps for Japanese troops, entertaining and helping in hospitals. All four said they needed money desperately. One said her father, a farmer, had injured his knee and that for the $1,500 puppet currency (about $12 U.S.), given her when she enlisted, his doctor bills were paid.

A party of 18 such girls sailed from Korea in June, 1942. Enroute, they said, they were fed stories of Japanese victories and of a new empire being created in Southeast Asia. They said they first became worried when they were shipped direct through Singapore and that when they were placed on a train headed north from Rangoon they became certain of their fate.

THE MADAME

When the party reached Sungshan, on the Salween front, the four were placed under the charge of a fifth woman—a 35-year-old regular Japanese prostitute who also was captured in the mopping up action.

There was a total of 24 girls at Sungshan. Among other duties, they had to wash Japanese soldiers clothing, cook their food and clean out the caves in which they lived. They said they were paid nothing and received no mail from home.

When Chinese troops attacked Sungshan, the girls lived below ground in caves. Fourteen of the original 24 were killed by shellfire. They said they all had been told they would be tortured if captured by the Chinese and all admitted they had believed such stories. They declined to give their correct names to protect their families but all said what they had lived through for the past two years had completely reversed their former naive trust of their Japanese overlords.

SINATRALIA

BUFFALO—(UP)—It ain't safe even to look like Frank Sinatra!

During intermission period at a movie, 18-year-old Bernie Burns took a quick break for a drink of water. As he walked up the aisle, 3,000 squalling, squealing bobby-sockers swarmed upon him.

Drooled one sweet young thing: "We thought he was was Frankie!"

Parent Expert Wrings Hands At Baby Leave

NEW YORK—(UP)—Dr Kenneth Rose, director of the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s all for bigger and better babies, but he doesn't believe that the British idea of giving overseas men furloughs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progeny is foolproof.

Rose believes that if the war lasts another year, American wives will join their British sisters in asking that their better halves be given leave home so an addition may be made to the family.

But Rose says the idea is impractical both militarily and sociologically. Militarily because, as the British Government has told its anxious potential mothers, it is impossible to shift a large body of men in war time, and sociologically because "one can't expect to send G.I. Joe home and expect the wife to be pregnant just like that."

Rose declared it was known that a husband's battle experience "temporarily decreases the fertility of a married couple."

He admitted that the desire of British wives to have their husbands available to raise a family was a natural outgrowth of the desire for parenthood, but said the only sane solution was a fast end to the war and speedy demobilization.

PS: Rose had no idea how to make a quick end of the war.

RAF Secret Weapon Plague To U-Boats

WASHINGTON— (ANS) — For the past year, the RAF has effectively employed a lethal, secret weapon against U-boats—a Mosquito fighter plane equipped with a rapid-firing six-pound gun slung beneath the fuselage, the British Information Services disclosed this week.

Firing shells that "look like red balls of fire," these "flying guns" have already disposed of at least one enemy sub, damaged several others and destroyed a JU-88 in flight at one-mile range.

It is said that use of the new weapon has forced the Nazis to adopt new convoy tactics in returning submarines to their home bases.

PIN-POINT 'CHUTING BY 10TH AIR FORCE SUPPLY WALLAHS

10TH AIR FORCE HQ, BURMA—You generally associate pin-point bombing with fighter and bomber planes.

But then you're not giving a fair shake to the gang who fly the 10th Air Force's Troop Carrier and Combat Cargo planes, who have a remarkable record for accuracy in supply dropping.

Battle lines in Burma have been so fluid at times that the pilots' instructions were out of date an hour after take-off. In many cases, they had to be briefed on new targets while in the air. But so fine has been their marksmanship, that seldom, if ever, have they 'chuted a package to the wrong team in the jungle warfare.

Less than two hours before the above picture was taken, the territory was in Jap hands. While the pilot was in the air, he was ordered to this point. Advance Allied patrols, left center, wait to pick up the packages.

'Mairzy Doats' DISCOVERED?

FRANCE — (ANS) — An American flight leader of a Thunderbolt squadron, on his way to attack a Nazi target recently in another of the fighter-bomber attacks which have wrought so much havoc with the enemy, received a radio message: "Return to base, Williams, headquarters has cancelled the mission."

"Okay," he replied suspiciously, "But first do me a favor, sing *Mairzy Doats*, will you?"

After a prolonged, embarrassed silence from the ground station, Williams called them: "Yeah, you Heinie so-and-so you don't know *Mairzy Doats* in Berlin, do you?" And the flight continued on its way.

Educated Food; Cook And Baker School Opened

New vocational horizons have opened for ambitious young men in the India-Burma Theater with the establishment at Base Section No. 1, SOS, early this month of a Cooks and Bakers School, first in the theater.

Henceforth theater-wide kitchens will be plastered with smoke-smudged diplomas stating that Pvt. Spatula is qualified to open C-ration cans or whip up a little fricassee of water buffalo.

During the four-week course at the new culinary college, students of the skillet will spend their mornings in the classroom and afternoons on the range, learning about such dangers as soggy pie crust and sandy spinach.

In the final week, says our informant, "students will be assigned to the various messes in Base Section No. 1 where they will prepare the meals and be given an opportunity to show their newly-learned cooking skill." Lucky lads in old Base No. 1 will thus head the list of guinea pigs for the theater's first educated slumburners, cooks with a conscience.

Brig. Gen. John A. Warden, CG of Base Section No. 1, welcomed the school's first students at the opening session. Maj. James K. Hisler of the KMC is officer in charge, assisted by a staff of instructors which includes three lieutenants, a warrant officer and two enlisted men.

Hartford Accepts Blame For Tragedy

HARTFORD — (ANS) — This city, through municipal inadequacies, "must bear some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rous circus fire here last July," declared the Municipal Board of Inquiry in a report handed to Mayor William H. Mortensen.

The board, set up by the aldermen in July, said it found no city official or department liable for major blame but that the city took few precautions to prevent such a disaster. The Big Top blaze took 168 lives.

FRENCH ARREST P.G. WODEHOUSE

PARIS—(ANS)—British author and journalist P. G. Wodehouse has been arrested on charges of aiding the Germans by his five radio broadcasts during 1941, French police disclosed this week.

The 63-year-old humorist, the first British subject to be nabbed by the French roundup of alleged collaborationists, has been given a conditional release, forced to live three miles from Paris under police surveillance.

Jackpot Fails, Court Pays Off

CHATTANOOGA— (UP) —A short, short story:

A man stepped up to a slot machine, inserted a coin and pulled the handle. He hit the jackpot. The machine refused to pay off. The man pitched it through a window.

He was hauled into court on a charge of malicious mischief. The judge had been campaigning against gambling. He said he didn't blame the man. Then he dismissed the case. Period.

HOSPITABLE LIEUTENANT'S GUESTS WERE 'WRONG UNS'

By ALBERT RAVENHOLT
United Press Correspondent

SOUTHWEST CHINA—The remote southwestern corner of Yunnan province, where China borders on Burma and Indo-China, has long been noted for its intrigue, but Lt. William W. Guth, commanding a small American detachment in that area, was more than surprised when two well-dressed gentlemen were shot and dragged through the street past his headquarters less than an hour after they had been his honored guests.

Guth, his Chinese interpreter and three American enlisted men were sitting around in their bamboo basha after dinner one evening listening to the radio when two men dressed in what appeared to be high quality Chinese officers' uniform looked in through the open door. Guth, [illegible] these isolated areas, invited the strangers in to visit awhile. As Guth explains it, "They bowed politely and sat down. We talked about the weather and speculated on how soon the monsoon rains would be finished.

"My interpreter told me he judged by their Chinese accent that our visitors came originally from Peiping. I asked my visitors where they had served before, taking for granted from their uniforms that they were officers in one of the numerous guerrilla detachments in our area. They both said they had served for some time in Shanghai and later on in Nanking.

"When the American news came over the radio from Chungking at nine o'clock my interpreter gave the visitors a running translation. When the announcer described how 14th Air Force fighter bombers had caught and strafed a concentration of Japa- [illegible] their heads in enthusiastic agreement, saying '*Mei kuo fei hen how*,' meaning in Chinese, 'American planes exceptionally good.'

"After the news broadcast we talked about various sections of America. Sgt. Paul J. Kinder explained his home was in Wapella, Ill., and Sgt. Russell J. Langlois explained he came from Long Island, N.Y., and therefore spoke English in a slightly different manner. Our visitors smoked some American cigarettes and I told them about my athletic career. They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swimming. After a little more pleasant chatting, the two visitors got up and excused themselves, and said they were sorry to leave but they had an appointment to keep. We asked them to drop in again whenever they were in the area and wished them [illegible]

"They hadn't been gone more than 15 minutes when one of the local magistrate's guards rushed in and inquired if two strangers had visited us. We answered yes and added they had walked out towards the road, and the guard dashed out. About half an hour later we heard five shots. We grabbed our guns and took up our prearranged positions in case of trouble. Ten or 15 minutes later, Chinese guards with torches and lots of commotion dragged two bodies up the street past our basha. To our surprise, they were our two visitors.

"We examined their clothing and found their credentials as Japanese majors in their inside pockets. Chinese officials later confirmed the identity of our visitors and said they probably had been members of special Japanese intelligence units which make extensive attempts to keep [illegible]

In mei 1942 bezette het Japanse leger Rameong (beter bekend als Songshan) in Yunnan, China en blokkeerde Amerikaanse hulproutes voor de anti Japanse bewegingen van het Chinese leger. Het Japanse leger slaagde er in 1941 eindelijk in het Chinese leger te bezetten na hardnekkige tegenaanvallen en vernietigde in september het Rameong garnizoen volledig. Wat er na de schoten en bombardementen overbleef was een werkelijk gruwelijk aanzicht. Er waren echter overlevenden die geheel ondergedompeld waren in de geur van de dood. Een journalist bij Roundup, een krant gepubliceerd door het Amerikaanse leger, schreef over de omstandigheden in een artikel genaamd "JAP 'COMFORT GIRLS' (Japanse "troostmeisjes")."



라멍수비대 전멸 후 중국군에게 발견된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

Koreaanse "troostmeisjes" gevonden door het Chinese leger na de vernietiging van het Rameong garnizoen.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라멍에서 중국군에게 발견된 한국인 '위안부' 4명이 심문을 받고 있다.

Vier Koreaanse "troostmeisjes" gevonden door het Chinese leger in Yunnan Rameong, China in september 1944 ondergaan verhoren.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은 수치"라고 훈련받은 일본군들은 집단자결을 하였다. 이 처참한 현장에는 '위안부'라고 생각되는 여성 2명의 사체도 함께 있었다.

Japanse soldaten werden getraind dat het een "schande was om levend gevangen genomen te worden als krijgsgevangene" en pleegden samen zelfmoord. In dit gruwelijk tafereel werden ook twee lichamen gevonden van vrouwen die waarschijnlijk "troostmeisjes" waren.

2000년, 라멍에서 살아남은 여성 중 한 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93년에 북한에서 '위안부' 피해를 밝힌 박영심이었다.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태어난 박영심은 빈곤한 가정형편에 평양의 양품점에서 식모로 일하던 중 1938년 17세에 "돈벌이가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난징(南京)의 '위안소'로 갔다. 버마(미얀마)의 라시오를 거쳐 박영심이 라멍의 '위안소'로 간 때는, 1943년 여름 즈음. 라멍에는 일본군이 점령한 직후부터 '위안소' 2채가 개설되어 있었다. '위안소'에서 박영심은 '와카하루(若春)'라고 불렸다. 그 뒤 1944년에 중국군에 발견되기까지, 같이 끌려갔던 '위안부'들은 "폭격에 죽고, 맞아 죽고, 병 걸려 죽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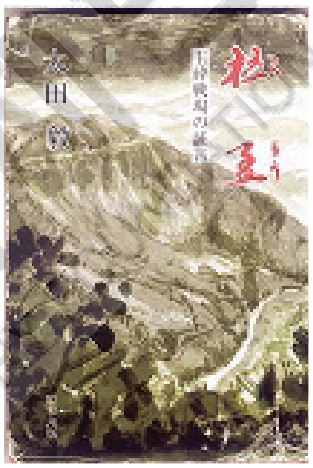
In 2000 werd bevestigd dat één van de vrouwen die Rameong had overleefd, in Noord Korea woonde. Het ging om Young Shin Park die in 1993 in Noord Korea had onthuld dat zij een voormalig "troostmeisje" was.

Young Shim Park, geboren op 15 december 1921, in de Provincie Pyongan, werd op 17 jarige leeftijd in

een "trooststation" in China geplaatst. Ze kwam uit een arme familie en werkte in een kledingwinkel in Pyeongyang, ze werd misleid door de woorden dat "ze veel geld zou kunnen verdienen." Rond de zomer van 1943 werd ze via Lashio, Burma in een "trooststation" in Rameong geplaatst. Twee "troosstations" werden meteen na de bezetting van het Japanse leger ingericht in Rameong. Daar werd Young Shim Park "Wakaharu" genoemd. Volgens haar stierven "troostmeisjes", die met geweld samen met haar daarheen genomen waren, vanaf 1941 totdat ze gevonden werden door het Chinese leger, "door bombardementen en ziekten en werden ze doodgeslagen."

라멍수비대의 최후에 관한 전쟁 기록인『拉孟 玉砕戦場の記錄』(太田毅, 昭和出版, 1984)에는 박영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 위안부 가운데, '와카하루'라는 22세의 여자는 본명은 박영심이라고 한다. 노래를 잘하고 지지 않으려는 느낌을 주는 좋은 여자였다"
WAM, 2006,『第3回特別展カタログ　置き去りにされた朝鮮人「慰安婦」』.

In『拉孟 玉砕戦場の記錄』(太田毅, 昭和出版, 1984),
een oorlogsverslag over de laatste momenten van het Rameong garnizoen, verhalen van Young Shim Park zijn opgenomen.
"Tussen de Chosun "troostmeisjes" zit een 22 jarige vrouw genaamd "Wakaharu" wiens echte naam Young Shim Park was. Ze scheen erg goed te kunnen zingen en gaf de indruk dat ze niets wilde verliezen."



출처 : 太田毅, 1984,『拉孟 玉砕戦場の記錄』, 昭和出版.



© 西野瑠美子

박영심이 사진의 임신한 여성이 자신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뱃속의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라멍수비대의 '위안소'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려운 처지에서 한 사람이 하루 30~40명을 치러야했다. 더욱이 싸움터에서 거칠어진 대로 거칠어진 놈들이 술까지 먹고 달려들어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중국의 포로수용소에서 7개월가량을 지낸 박영심은 1946년 2월, 고향으로 돌아온다. 결혼도 했지만, 남편에게는 '과거'를 전혀 말하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양자를 입양해서 키웠다. 2006년 8월 7일 북한에서 사망했다.

Young Shim Park wijst naar de zwangere vrouw op de foto die ze identificeert als zichzelf. De foetus heeft het naar verluidt niet overleefd.
Over het leven in "troosstations" van het Rameong garnizoen zegt ze het volgende:
"In een situatie waarin niemand wist wanneer ze zouden sterven, moesten we elke dag 30 40 soldaten zien. Ze waren zo grof geworden als ze op de slagvelden waren en ze waren zelfs dronken, de pijn was ondenkbaar."
Na zeven maanden doorgebracht te hebben in een krijgsgevangenenkamp in China, keerde Young Shim Park in februari 1946 terug naar haar woonplaats. Ze was getrouwd maar kon haar man nooit vertellen over haar "verleden". Ze kon geen kinderen krijgen dus ze adopteerde een zoon en voedde hem op. Ze stierf op 7 augustus 2006 in Noord

실태 3: 법정에 선 인도네시아의 '위안소'

Zaak 3: Rechtszaak "trooststations in Indonesië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으며 '네덜란드령 동인도'라 불리고 있던 인도네시아를 일본군이 공격한 것은 1942년 초였다. 일본군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내세우며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를 쫓아냈다. 이제 일본군은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아오던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했다. 동시에 '위안소'를 개설하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조선, 중국 등지에 있던 '위안부'를 이송해 오는 한편, 현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동원했다.

"위안부를 모집하면서 아주 지독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빠루아 섬에서 리스트에 올라 있던 아가씨들을 모아서 강제로 배에 태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지만, 그 여자들이 살고 있던 부락의 주민들이 항구로 모여들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더니, "딸을 돌려달라! 딸을 돌려달라!"고 외쳤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모여 있던 주민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두를 때는 무서웠어요. 엉겁결에 나는 허리에 찬 총에 손이 갔습니다."
禾晴道, 1975,『海軍特別警察隊　アンボン島BC級戦犯の手記』, 太平出版社.

해군특별경찰대의 장교였던 노기(禾)가 당시 경찰들을 지휘하여 유라시안 및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끌고 왔던 기무라(木村)로부터 들은 얘기이다. 1944년 전황이 악화되자 인도네시아 암본섬에 있는 '위안소'는 일단 해산되었다. 그러나 병사의 비행이 계속되자 다시 군 '위안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위안부'나 성매매 경험이 있던 자,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있는 자 등 "신속하게 대상이 될 만한 여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어느 정도의 강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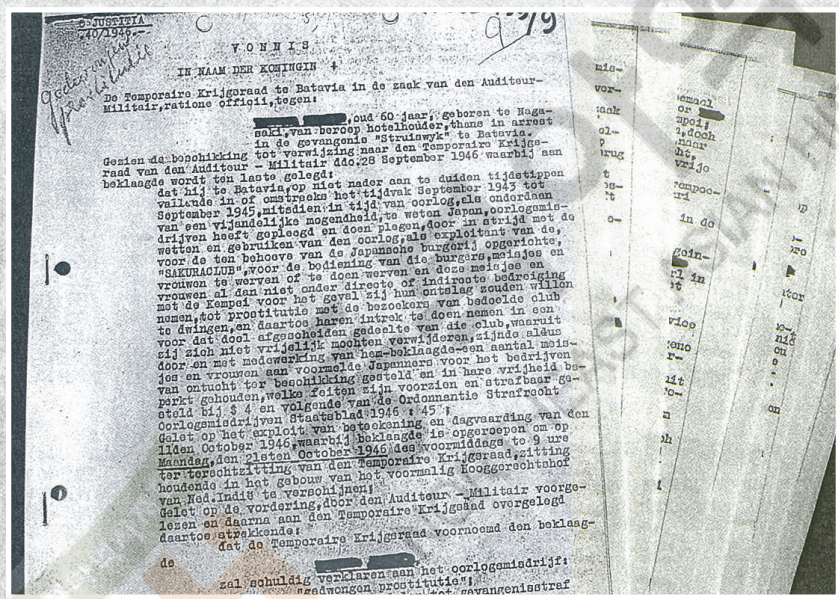
태평양전쟁 종결 후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각지에서 법정이 열렸는데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현재의 자카르타)에서도 네덜란드 임시군사법정이 열렸다. 이때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이들이 전쟁범죄자로서 법정에 서야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시켰는가, '강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여성을 유괴'했는가 여부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 당시 법정은 '강제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본군 '위안소' 자체가 갖고 있는 반인권적, 반여성적, 폭력적 성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네덜란드 여성이 끌려왔던 '위안소'만이 법정에서 문제가 됐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Aan het begin van 1942 viel het Japanse leger Indonesië, toen "Nederlands Indië" genaamd en voor lange tijd onder Nederlands beheer, aan. Japan dat zijn Groter Oostaziatische Co prosperity Sphere claimde, verdreef de Nederlanders uit Indonesië. Nu had Japan zichzelf laten zien als de nieuwe beheerder van Indonesië, een land vol verschillende volkeren. Het Japanse leger begon meteen met het inrichten van "trooststations" en lijfde op verschillende manieren "troostmeisjes" in uit Japan, Chosun en China.

"Ik heb verschrikkelijke dingen ervaren tijdens het rekruteren van "troostmeisjes". Het vond plaats op het eiland Saparua waar ik met geweld de vrouwen die op de lijst stonden aan boord van het schip bracht. Ik kan me nu nog steeds herinneren hoe de plaatselijke bewoners van de dorpen allemaal samenkwamen in de haven en schreeuwden "geef mijn dochter terug! Geef mijn dochter terug!" Toen ze met hun vuisten begonnen te zwaaien voelde ik me erg geïntimideerd. Zonder het

te realiseren greep ik met mijn hand het geweer dat om mijn middel zat. Ik vind het nog steeds eng als ik eraan terug denk. Dit is wat Noki, toentertijd een officier van de Speciale Politie van de Marine, van Kimura die beheerst en met geweld de Euraziatische of Indonesische vrouwen bracht, te horen kreeg. Toen de oorlogsomstandigheden verslechterden in 1944 werd het "trooststation op het eiland Ambon gesloten. De delicten van de soldaten stopten echter niet en er werd een nieuw plan ontworpen om "trooststations" opnieuw in te richten. "Een lijst met namen van vrouwen die snel beschikbaar waren" werd opgesteld waaronder vrouwen die al ervaring in prostitutie of als "troostmeisje" hadden en diegenen die zeiden dat ze in de prostitutie hadden gewerkt. Het wordt gezegd dat tijdens dit proces "enige mate van dwang onvermijdelijk was".

Na de Pacifische Oorlog werden op verschillende plaatsen in de wereld rechtbanken geopend om de oorlogsmisdaden van Japan voor de rechter te brengen. Batavia (tegenwoordig Jakarta), Indonesië was één van de plekken waar de Nederlandse Krijgsraad werd geopend. De mensen die te maken hadden met de inrichting en werking van "trooststations" moesten voor de rechtbank verschijnen als oorlogsmisdadigers. Ze werden onder druk gezet om te onthullen of ze "vrouwen hadden gedwongen tot prostitutie" en of die vrouwen "voor dat doeleinde waren ontvoerd". Op dat moment achtte de rechtbank het belangrijk om vast te stellen of er sprake was van "dwang". Antihumanitaire, antifeministische en gewelddadige kenmerken van de "trooststations" werden niet als problematisch beschouwd. Wat we moeten opmerken is het feit dat alleen het "trooststation" waar Nederlandse vrouwen met geweld ingelijfd werden als problematisch beschouwd werd.


JUSTITIA
-40/1946.-

VONNIS

IN NAAM DER KONINGIN !

De Temporaire Krijgsraad te Batavia in de zaak van den Auditeur-Militair,ratione officii,tegen:

saki,van beroep hotelhouder,thans in arrest in de gevangenis "Struiswyk" te Batavia.

Gezien de beschikking tot verwijzing naar den Temporairo Krijgsraad van den Auditeur - Militair dd.28 September 1946 waarbij aan beklaagde wordt ten laste gelegd:

dat hij te Batavia,op niet nader aan te duiden tijdstippen vallende in of omtrent het tijdvak September 1943 tot September 1945,misdaden in tijd van oorlog,als ondergeschikte van een vijandelijke mogendheid,te weten Japan,oorlogsmisdrijven heeft gepleegd en doen plegen,door in strijd met de wetten en gebruiken van den oorlog,als exploitant van de, voor de ten behoeve van de Japansche burgerij opgerichte, "SAKURACLUB",voor de bediening van die burgers,meisjes en vrouwen te werven of te doen werven en deze meisjes en vrouwen al dan niet onder directe of indirecte bedreiging met de Kempai voor het geval zij hun ontslag zouden willen nemen,tot prostitutie met de bezoekers van bedoelde club te dwingen,en daartoe haren intrek te doen nemen in een voor dat doel afgescheiden gedeelte van die club,waaruit zij zich niet vrijelijk mochten verwijderen,zijnde aldus door en met medewerking van hem-beklaagde-een aantal meisjes en vrouwen aan voormelde Japanners voor het bedrijven van ontucht ter beschikking gesteld en in hare vrijheid beperkt gehouden,welke feiten zijn voorzien en strafbaar gesteld bij $ 4 en volgende van de Ordonnantie Strafrecht Oorlogsmisdrijven Staatsblad 1946 : 45 ;

Gelet op het exploit van betekening en dagvaarding van den 11den October 1946,waarbij beklaagde is opgeroepen om op Maandag,den 21sten October 1946 des voormiddags te 9 ure ter terechtzitting van den Temporairo Krijgsraad,zitting houdende in het gebouw van het voormalig Hooggerechtshof van Ned.Indië te verschijnen;

Gelet op de vordering,door den Auditeur - Militair voorgelezen en daarna aan den Temporairo Krijgsraad overgelegd daartoe strekkende:

dat de Temporaire Krijgsraad voornoemd den beklaagde

zal schuldig verklaren aan het oorlogsmisdrij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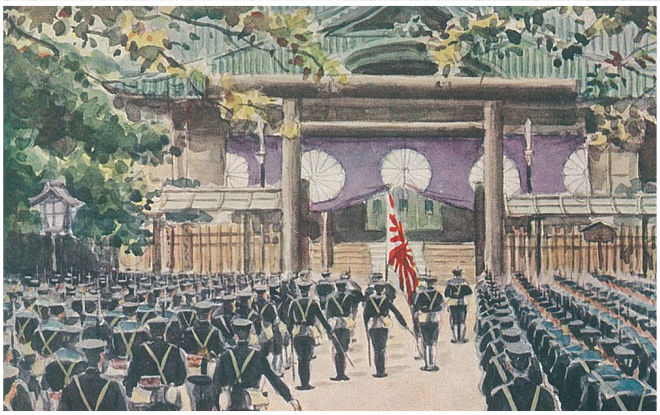
© 梶村太一郎, Berlin

사쿠라 구락부 사건 판결문

바타비아에서 '위안소' 사쿠라 구락부(櫻倶樂部)를 운영했던 아오치 와시오(靑地鷲雄)는 1946년 11월, 바타비아 법정에서 금고 10년을 언도받았다. 1943년 6월, 그는 일본 군정감부(軍政監部)로부터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명령받았다. 그의 지휘를 받아 네덜란드인 리스 베르홀스트(Lies Beerhorst)가 네덜란드 여성 20명을 모아 왔다. 그 중에는 12세와 14세의 소녀도 있었다. '헌병을 부르겠다'는 협박에 끌려온 여성도 있었다.

De uitspraak in de zaak Sakura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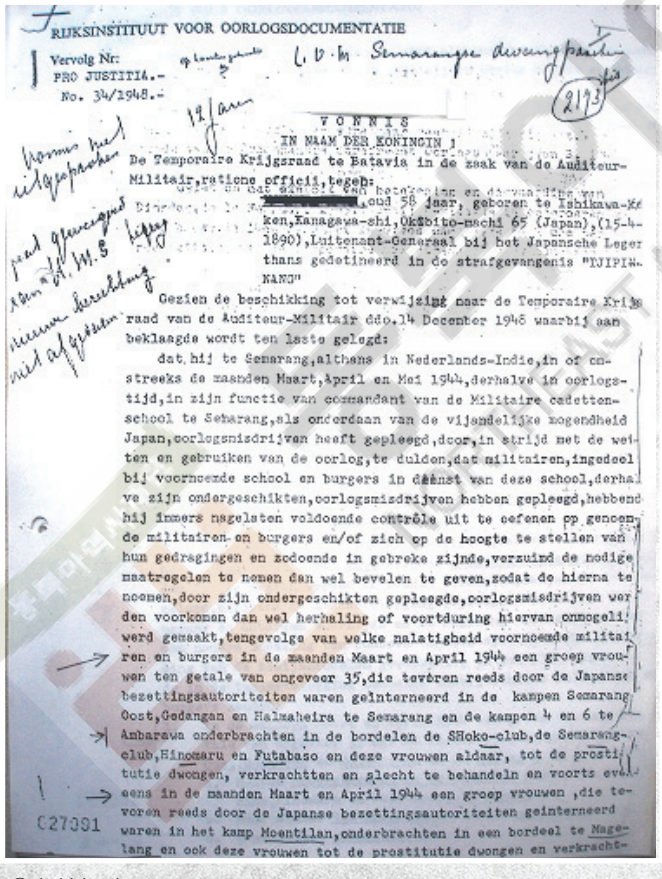
In november 1946 werd Washio Awochi die de Sakura Club in het "trooststation" van Batavia had geleid, veroordeeld tot tien jaar gevangenisstraf. In juni 1943 had hij van de Japanse militaire administratie het bevel gekregen een "trooststation" te openen. Onder zijn beheer rekruteerde Lies Beerhorst, een Nederlandse, ongeveer 20 vrouwen. Waaronder een 12 jarig en een 14 jarig meisje. Er waren een aantal vrouwen die met geweld weggehaald werden en door Beerhorst bedreigd werden dat zij de "militaire politie" zou bellen.



태평양 전쟁 당시 발간된 야스쿠니신사 엽서.

복역 중 사망한 아오치는 1967년부터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에서 사망한 일본인 군인, 군속 등을 '일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으로 떠받드는 신사이다.

Awochi stierf tijdens het uitzitten van zijn straf en werd in 1967 begraven bij de Yasukuni Shrine in Tokio, Japan. De Yasukuni Shrine is een plaats waar de "vertrokken zielen van diegenen die hun leven gaven voor Japan" te herdenken, waaronder Japanse soldaten en burgers die verbonden waren aan het leger, en stierven tijdens de oorlogen. Op de foto staat een ansichtkaart van de Yasukuni Shrine die uitgegeven werd tijdens de Pacifische Oorlog.



RIJKSINSTITUUT VOOR OORLOGSDOCUMENTATIE

Vervolg Nr:
PRO JUSTITIA.-
No. 34/1948.-

VONNIS
IN NAAM DER KONINGIN !

De Temporaire Krijgsraad te Batavia in de zaak van de Auditeur-Militair,ratione officii,tegen:

[redacted], oud 58 jaar, geboren te Ishikawa-Ken,Kanagawa-shi,Okubito-machi 65 (Japan),(15-4-1890),Luitenant-Generaal bij het Japansche Leger thans gedetineerd in de strafgevangenis "TJIPINANG"

Gezien de beschikking tot verwijzing naar de Temporaire Krijgsraad van de Auditeur-Militair ddo.14 December 1946 waarbij aan beklaagde wordt ten laste gelegd:

dat hij te Semarang,althans in Nederlands-Indie,in of omstreeks de maanden Maart,April en Mei 1944,derhalve in oorlogstijd,in zijn functie van commandant van de Militaire cadettenschool te Semarang,als ondergeschikte van de vijandelijke mogendheid Japan,oorlogsmisdrijven heeft gepleegd,door,in strijd met de wetten en gebruiken van de oorlog,te dulden,dat militairen,ingedeeld bij voormelde school en burgers in dienst van deze school,derhalve zijn ondergeschikten,oorlogsmisdrijven hebben gepleegd,hebbend hij immers nagelaten voldoende controle uit te oefenen op gemelde militairen en burgers en/of zich op de hoogte te stellen van hun gedragingen en zodoende in gebreke zijnde,verzuimd de nodige maatregelen te nemen dan wel bevelen te geven,zodat de hierna te noemen,door zijn ondergeschikten gepleegde,oorlogsmisdrijven werden voorkomen dan wel herhaling of voortduring hiervan onmogelijk werd gemaakt,tengevolge van welke nalatigheid voormelde militairen en burgers in de maanden Maart en April 1944 een groep vrouwen ten getale van ongeveer 35,die tevoren reeds door de Japanse bezettingsautoriteiten waren geinterneerd in de kampen Semarang Oost,Gedangan en Halmaheira te Semarang en de kampen 4 en 6 te Ambarawa onderbrachten in de bordelen de SHoko-club,de Semarang-club,Hinomaru en Futabaso en deze vrouwen aldaar, tot de prostitutie dwongen, verkrachtten en slecht te behandeln en voorts evenzeer in de maanden Maart en April 1944 een groep vrouwen ,die tevoren reeds door de Japanse bezettingsautoriteiten geinterneerd waren in het kamp Moentilan,onderbrachten in een bordeel te Magelang en ook deze vrouwen tot de prostitutie dwongen en verkracht-

C27091

© 梶村太一郎, Berlin

스마랑 '위안소' 사건 판결문

1944년 1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에서 일본군은 새로운 '위안소' 개설을 계획하였다. 위안소 설치를 요청받은 일본군 간부후보생 부대는 담당 장교, 경찰, '위안소' 경영자를 몇 군데 억류소에 보냈다. 유럽계 민간인이 수용되어 있는 억류소들이었다. 4곳의 억류소에서 약 35명의 여성이 끌려왔다.

약 2개월 뒤, 자바섬에 시찰을 왔던 일본군 대좌가 이 사실을 알고 '위안소'를 폐쇄하도록 하였다. 관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스마랑 위안소 사건은 종전 후 바타비아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장교 7명과 위안소 경영자 4명이 유죄로 판결났다. '위안소' 개설 책임자였던 장교는 사형을 언도받았다.

De uitspraak in de zaak van het Semarang "trooststation"

In januari 1944 plande het Japanse leger de inrichting van een nieuw "trooststation" in Semarang, Java, Indonesië. Een cadetteneenheid van het Japanse leger verzocht dat de inrichting van het "comfortstation" zijn officiers, politieagenten en managers van "troostmeisjes" naar een aantal strafkampen zou sturen waar Europese burgers gevangen gehouden werden. Uit vier strafkampen werden ongeveer 35 vrouwen met geweld meegenomen. Twee maanden later kwam een Japanse kolonel hierachter tijdens een inspectie van Java en beval dat dit "trooststation" gesloten zou worden. Degenen die verantwoordelijk waren, werden niet gestraft.

De zaak van het Semarang "trooststation" werd nadat de oorlog was afgelopen behandeld in rechtbank in Batavia. Zeven officiers en vier managers pleitten schuldig. De officier die verantwoordelijk was voor de inrichting van het "trooststation" kreeg de doodstraf.

얀 오헤른의 증언

"온몸이 공포로 다 타버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도저히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감각이다. 결코 잊을 수 없고, 결코 지울 수 없는 감각이다.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압도하고 있는 공포가 머리끝에서부터 팔다리를 훑고 지나가면서 몸을 태워 버릴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이런 느낌은 너무도 기묘한 순간에 엄습하고는 한다. 악몽에 시달리다 눈을 뜨지만 깨어나서도 그 악몽이 사라지지 않아 침대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남편이 나를 요구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했던 짓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섹스를 즐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미네기시 겐타로, 2001,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당대, 20~21쪽 재인용

Getuigenissen van Jan O'Herne

"Het voelde alsof mijn hele lichaam in brand stond. Het is een gevoel dat op geen enkele manier beschreven kan worden. Het is een gevoel dat ik nooit zal en kan vergeten. Bijna 50 jaren zijn verstreken en ik word nog steeds overmand door het gevoel dat mijn lichaam van top tot teen zal verbranden. Een dergelijk gevoel komt op de meest onverwachte momenten. Zelfs als ik wakker word door verschrikkelijke nachtmerries gaat het niet weg en lijd ik erg veel pijn in mijn hele lichaam. Wat nog meer pijn doet is dat het gevoel terugkomt wanneer mijn man me wil. Vanwege wat de Japanners hebben gedaan heb ik seks nooit als prettig ervaren."

Minegishi Kentaro, Wartime Military and Sexual Slaves, 2001, geciteerd van pp. 20 21.



출처 : 여성부 e-역사관

스마랑 근처 농장에서 자라 수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얀 오헤른은 일본군이 점령한 뒤 암바라와(Ambarawa) 억류소에 보내졌다. 당시 19세였다.

1944년 2월 어느날 일본 장교가 와서 "17세 이상의 독신여성은 정렬하라"고 명령했다. 불길한 예감에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나갔지만, 트럭에 타라는 명령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스마랑 '위안소'에서 보낸 2개월 여의 '악몽'이 평생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말았다.

얀 오헤른

Jan O'Herne groeide op een boerderij in de buurt van Semarang op en studeerde om non te worden. Na de Japanse bezetting werd ze op 19 jarige leeftijd naar het Ambarawa strafkamp gestuurd.

Op een dag in februari 1944 kwam een Japanse officier naar het kamp en beval dat alle "alleenstaande vrouwen van 17 jaar en ouder in een rij moesten gaan staan." Met een hevig voorgevoel trok ze simpele kleren aan zodat ze niet op zou vallen maar ze kon het bevel om in de vrachtwagen te stappen niet voorkomen. Haar twee maanden in het Semarang "troostkamp" staan voor de rest van haar leven als een "nachtmerrie" in haar geheugen en haar lichaam gegrift.

Jan O'Herne.

얀 오헤른은 〈위안부 결의안〉의 미 하원 상정을 앞둔 2007년 5월, 미 하원 의장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Met de indiening van de "Troostmeisjes" Resolutie in het vooruitzicht stuurt Jan in mei 2007 een brief naar de voorzitter van het Amerikaanse huis van fgevaardigden.

Jan Ruff O'Herne AO

Jan Ruff-O'Herne . AO.

Adelaide, Australia

Defend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and in Support of H.Res.121

22 May, 2007

TO: THE HONORABLE NANCY PELOSI,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Dear Madam Speaker:

On February 15, 2007, I had great honor of testifying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Global Environment at a Hearing entitle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My purpose in testifying alongside Ms. Yong Soo Lee and Ms. Koon Ja Kim was to publicly share my very private experience of degradation, humiliation and unbearable suffering as a young woman, forced against my will, to serve as a "Comfort Woman" to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during World War II. My other intent was to lend my unconditional and wholehearted support for H.Res.121, introduced by Representative Michael Honda, which demand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ly and unambiguously" apologize and to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tragedy.

When I was 19 years old in 1942, Japanese troops invaded Java. Together with thousands of women and children, I was interned in a Japanese prison camp for three and a half years. The horrific memories of "opening night" of the brothel have tortured my mind all my life for I was raped in the most brutal way. But never did any Japanese rape me without a fight. I fought each one of them. Therefore, I was repeatedly beaten. In the so called "Comfort Station" I was systematically beaten and raped day and night. I have forgiven the Japanese for what they did to me, but I can never forget. During the time in the "Comfort Station," the Japanese had abused me and humiliated me. I was left with a body that was torn and fragmented everywhere. The Japanese soldiers had ruined my young life and had taken away my youth, my self esteem, my dignity, my freedom, my possessions, and my family. But there was one thing that they could never take away from me. It was my faith and love for God. This was mine and nobody could take that away from me. It was my deep faith that helped me survive all that the Japanese did to me.

Vijftig jaar lang hielden de "troostmeisjes" zich stil, ze leefden met een enorme schaamte, ze voelden zich vies. Het duurde 50 jaar voordat de gerüineerde levens van deze vrouwen daadwerkelijk een internationale mensenrechten kwestie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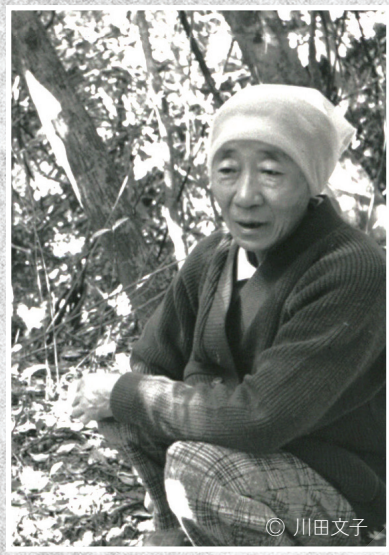
Madam Speaker, with all my being, I wish to express my eternal gratitude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consideration of H.Res.121. This resolution will restore a measure of dignity and honor to the few remaining "Comfort Women" survivors still alive today.

Respectfully yours,

Jan Ruff O'Herne AO

실태 4: 본토결전 ; 일본군의 급증과 오키나와 '위안소'

Zaak 4 : De grote bestorming: een toename van het Japanse leger en het Okinawa 'trooststation'


© 川田文子

"남쪽의 섬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져 입으로 들어간다."
가와다 후미코 지음, 한우정 옮김, 1992, 『빨간 기와집』.

가난에 못 이겨 가족과 흩어지고 남편과도 헤어진 뒤, 여기 저기 일을 구하던 29세의 조선 여성 배봉기가 소개업자에게 솔깃한 얘기를 들은 것은 1943년 겨울이었다. 그 말을 믿고 '남쪽의 섬' 으로 출발한 지 1년 여 뒤인 1944년 11월, 배봉기는 일본군의 수송선을 타고 일본 남단의 섬,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바나나 천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빨간 기와집' 으로 보내졌으며, 이름도 '아키코' 로 바뀌었다. 얼마 안 있어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었고, 배봉기는 지옥을 경험하였다.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피해 숨어 있던 오키나와의 산 속에서 촬영(1979년). 종전 후 고향에 갈 용기가 없어 오키나와에 남은 배봉기는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살았다. 77세인 1991년 10월 18일, 오키나와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나흘 전인 10월 14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 사인은 심부전증. 그녀는 심장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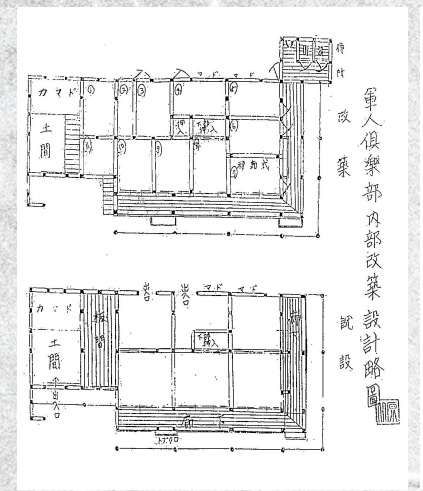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말, 일본군의 많은 병력이 본토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몰려왔다. 이 때 배치된 주력부대의 일부는 중국을 점령했을 때 저지른 약탈과 강간 등으로 악명이 높던 터였다. 중국에서 '위안소' 를 경험하고 오키나와로 이동해 온 일본군은 갑자기 늘어난 군대를 상대할만한 '위안소' 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종전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에는 100개가 넘는 '위안소' 가 개설됐다.

"Op het zuidelijke eiland kun je geld verdienen zonder te werken. Houd je mond open en de bananen vallen erin."
Kawada Humiko, vertaald door Yoo Jung Han, Red Tile Roofed House, 1992.

Een Chosun vrouw, Bong Gi Bae, werd vanwege ernstige armoede gescheiden van haar familie en haar man. In de winter van 1943 hoorde ze een aantrekkelijk verhaal van een handelaar toen ze op 29 jarige leeftijd op zoek was naar werk. In november 1944, een jaar nadat ze naar het "zuidelijke eiland" was gegaan, kwam ze met het transportschip van het Japanse leger aan in Japan op het zuidelijke eiland Okinawa. Daar zag ze echter geen bananenparadijs. In plaats daarvan werd ze naar een "huis met rode dakpannen" gestuurd en werd haar naam gewijzigd in "Akiko". Niet lang daarna begon de Verenigde Staten met haar bombardementen en ging ze door een hel.
Een foto genomen in het bos van Okinawa waar ze zich tijdens de oorlog (1979) van Amerikaanse bombardementen verscholen hield. Bae bleef na de oorlog in Okinawa omdat ze de moed niet had om terug te gaan naar haar woonplaats. Voor de rest van haar leven kon ze zich niet settelen en zwierf ze van de ene plaats naar de andere. Op 18 oktober 1991 werd ze dood gevonden in een klein appartement in Okinawa, ze was 77. Ze is waarschijnlijk op 14 oktober gestorven, vier dagen voordat ze gevonden werd. De oorzaak van haar d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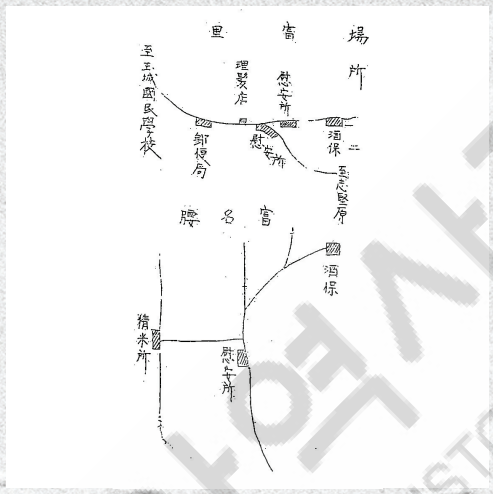
was hartfalen. Haar hart had pijn geleden.

Toen de oorlog bijna afgelopen was aan het einde van 1944 haastte het Japanse leger zich naar Okinawa om zich voor te bereiden op haar grote bestorming. Een aantal van de hoofdmachtunits in Okinawa waren berucht voor hun verkrachtingen en plunderingen tijdens hun bezetting van China. Op basis van haar ervaring met "trooststation" in China besloot het Japanse leger dat het meer "trooststations" nodig had om zo te kunnen voldoen aan de behoeften van het gestegen aantal soldaten in Okinawa. Tot aan het einde van de oorlog werden meer dan 100 "trooststations" ingericht in Okin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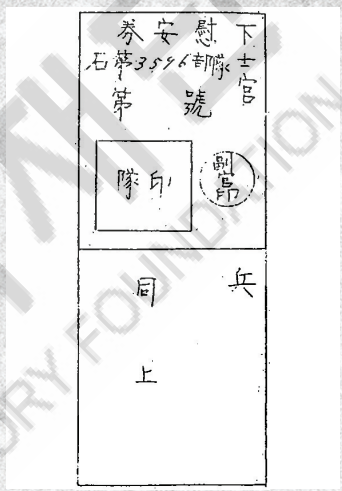
군인구락부('위안소') 내부개축 설계약도
작업대장의 명에 따라 10여명의 병사가 군인구락부('위안소')의 내부를 개축하여 '위안소'를 확대하고 정비했다.
要塞建築勤務 第六中隊 北飛行場 五六飛 大派遣, 重信班, 1944. 12,『陣中日誌』.

Een schets van de interne renovatie van een soldatenclub ("trooststation") Op bevel van een operationele commandant, renoveerden ongeveer 10 soldaten het interieur van soldatenclubs (trooststations) om ze groter te maken en te repareren.



일본군은 오키나와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그 때마다 새로 '위안소'를 개설하고는 하였다. 오키나와의 기타타니(北谷) 마을에 '위안소'를 개설했던 독립보병 제15연대는 1945년 1월 다마쿠스쿠(玉城) 마을로 이동하면서 다시 '위안소'를 설치했다.
獨立步兵第, 15聯隊本部, 1945. 1. 13,『沖繩陣中日誌』.

Terwijl het zich verplaatste in Okinawa opende het Japanse leger elke keer dat het op een andere plek kwam een nieuw "trooststation". Het 15e regiment van onafhankelijke infanterie dat een "trooststation" had geopend in het dorp Kitatani in Okinawa richtte er nog één in toen het zich verplaatste naar het dorp Tamagusuku in januari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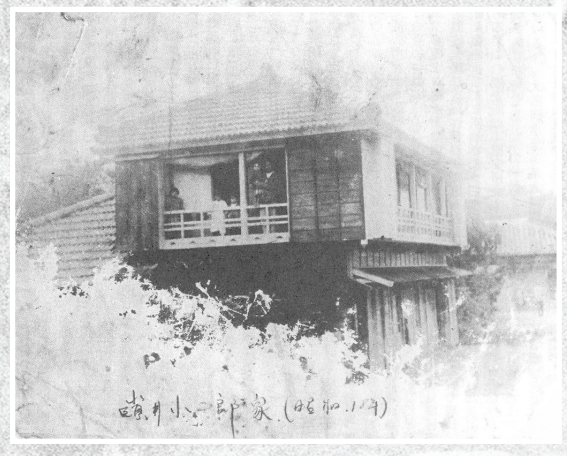
독립보병 제15연대가 사용했던 〈위안권〉. 병사는 2.5엔, 하사관은 3엔, 장교는 5엔이었다. 〈위안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위안소'를 이용할 수 없었다.
獨立步兵第, 15聯隊本部, 1945. 1. 8,『沖繩陣中日誌』.

Een "troostticket" gebruikt door het 15e regiment van onafhankelijke infanterie. Het ticket kostte 2,5 Yen voor soldaten, 3 Yen voor onderofficiers en 5 Yen voor officiers. Degenen die geen "troostticket" hadden, konden geen gebruik maken van het "trooststation".

1945년 4월부터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일본군의 전면전이 벌어졌다. 약 3개월에 걸친 처참한 전투 끝에 미군의 승리 뒤로 남은 것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오키나와였다. 이제 일본의 패배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으로 지루한 태평양전쟁은 끝이 났다.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국가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애국'이라고 강요받았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남은 '위안부'들은 어느날 일본군이 더 이상 오지 않자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롭다고 느낀 이들은 그다지 없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막연한 예감에 이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In Okinawa vond er in april 1945 een intensieve oorlog plaats tussen het Amerikaanse en het Japanse leger. Na een genadeloze oorlog van drie maanden die leidde tot de overwinning van de V.S. was Okinawa compleet

verwoest. Het leek ook slechts een kwestie van tijd voordat Japan verslagen zou worden. Op 15 augustus 1945 kwam de verlengde Pacifische Oorlog eindelijk ten einde met de overgave van de Keizer. De doden spraken niet en diegenen die gedwongen waren om te geloven dat "sterven voor een land ware vaderlandsliefde is" slaakten een zucht van verlichting. De overlevende "troostmeisjes" wisten dat de oorlog voorbij was omdat op een dag de Japanse soldaten niet meer naar ze toekwamen. Ze hadden vrijheid gekregen maar bijna niemand voelde zich vrij. Ze hadden een voorgevoel dat hun gevecht voor overleving nog niet voorbij was, en hun hart klopte daardoor angstig.



다마쿠스쿠(玉城) 마을의 민가. 1943년의 모습이다. 이 민가는 1944년에 일본군이 무단으로 '위안소'로 사용하였다.
古賀徳子, 2008,「沖縄戦を考える:沖縄戦のおける日本軍「慰安婦」制度の展開(3)」,『季刊　戦争責任研究』第62號.

Een privé huis in het dorp Tamagusuku uit 1943. Dit huis werd in 1944 door het Japanse leger gebruikt als "troosthuis".



1945년 오키나와 미군수용소의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
'위안부' 여성들 중에는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남은 여성도 많았다. 고국에 돌아간 뒤에도 집으로 가지 않은 여성 또한 많았다. 어디로 가든 '위안부' 경험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여성은 없었다.

Chosun "troostmeisjes" in een Amerikaans legerkamp in Okinawa (1945)
Er waren veel "troostmeisjes" die niet terugkeerden naar hun woonplaats maar bleven waar ze waren, zelfs nadat de oorlog voorbij was. Zelfs als ze terugkeerden naar hun woonplaats, gingen velen van hen niet terug naar huis. Ongeacht waar ze waren, niemand sprak over hun ervaringen als "troostmeisjes".

© NARA



귀환 직전의 조선인 '위안부' 들.
미군은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에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들(Korean comfort girl)은 [1945년] 11월에 캠프 코자에 모여 조선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Chosun "troostmeisjes" net voordat ze teruggingen naar hun eigen land.
The U.S. Het Amerikaanse leger legde uit dat Koreaanse troostmeisjes die met geweld naar Okinawa werden gebracht door het Japanse leger in november [1945] bijeen kwamen in het kamp Koza en terugkeerden naar Chosun.

© 林博史

'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Troostmeisjes" en de Japanse overheid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는가!
Erkende de Japanse overheid haar verantwoordelijkenheiden en heeft zij zich verontschuldigd!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수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한 문제' 로서 일본정부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 로서 숱한 고통을 겪으며 심신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 해왔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의 이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한 것' 을 인정하고 '사죄' 를 표명했다. 또한 총리가 아시아 여성기금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 '사죄' 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은 부정하고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방장관, 총리 개인의 사죄가 있었을 뿐 정부나 국회가 결의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는 없었다.
유엔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법률가 협회,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유럽의회 등 각국 의회도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하며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 수용할 것' 을 촉구했다.
미국정부와 국회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사죄했는지를 보면 일본정부의 사죄가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해진다.

Het officiële standpunt van de Japanse overheid betreffende de kwestie "troostmeisjes" is dat het een "probleem is dat de reputatie en waardigheid van talloze vrouwen heeft aangetast" en dat de overheid "oprechte excuses heeft aangeboden en spijt heeft betuigd tegen diegenen die als "troostmeisjes" van het Japanse leger ernstig geleden hebben, zowel fysiek en psychologisch, en die daar moeilijk overheen kunnen komen."
Via de Kono verklaring van de toenmalige Hoofd Secretaris Ministerraad in 1993, erkende de Japanse overheid voor het eerst "haar directe of indirecte betrokkenheid bij de inrichting en werking van "trooststation" en het transport van "troostmeisjes", en bood haar "excuses" aan. De Minister President bood ook zijn "excuses" aan door een brief te schrijven naar de slachtoffers die gesteund worden door het Asian Women's Fund.
De Japanse overheid erkent echter alleen haar morele verantwoordelijkheden maar niet haar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Daarnaast was er geen officieel nationaal excuus in de vorm van een resolutie van de overheid of het parlement, maar alleen individuele excuses van de Hoofd Secretaris Ministerraad en de Minister President.
Internationale organisaties, zoals de Subcommissie Promotie en Bescherming van Mensenrechten van de VN, het Comité voor de Eliminatie van Discriminatie tegen Vrouwen, Internationale Bar Associatie en Expert Comité voor Internationale Arbeidsorganisatie, hebben de Japanse overheid aanbevolen formeel haar excuses aan te bieden aan voormalige "troostmeisjes" en haar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uit te voeren. Het

Europees Parlement en andere parlementen vereisen ook een officiële erkenning, excuus en acceptatie van de historische en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van de Japanse overheid betreffende de kwestie "troostmeisjes en wel op een volledige, duidelijke en formele manier.
Het probleem van de excuses die de Japanse overheid heeft aangeboden wordt duidelijk wanneer men kijkt naar hoe de Amerikaanse overheid en congres haar excuses aanbood betreffende de internering van Japanse Amerikan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규정한 법률(공법 100-183호, 1988년)
Excuus en compensatie voor internering Japanse Amerikan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Bestuurswet Nr. 100 183, 1988)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합중국 시민 및 영주외국인의 퇴거, 전출, 수용의 근원적인 잘못을 인식하고,
(2) 그러한 시민 및 영주 외국인의 퇴거, 전출, 수용에 대해 합중국 국민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3) 공공교육기금을 준비하여 그러한 사람들의 수용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려, 똑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4) 수용되었던 일본계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5)~(6) 생략
(7)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합중국에 의한 우려표명을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Artikel 1 (Doel)
Het doel van deze wet is
(1) het erkennen van de fundamentele onrechtvaardigheid van de evacuatie, verplaatsing en internering van Amerikaanse burgers en permanente ingezetene buitenlanders uit Japa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2) het aanbieden van excuses namens de personen van de Verenigde Staten voor de evacuatie, verplaatsing en internering van dergelijke burgers en permanente ingezetene buitenlanders;
(3) het opstellen van een openbaar onderwijsfonds om pogingen om het publiek te informeren over de internering van individuen te financieren om ervoor te zorgen dat dit nooit meer gebeurd;
(4) een compensatie te geven aan die individuen uit Japan die geinterneerd waren;
(5)~(6) Weggelaten
(7) declaraties van de Verenigde Staten over overtredingen van mensenrechten door andere naties geloofwaardiger en oprechter te maken. erst een "trooststation". Dit werd gedaan om te voorkomen dat het anti Japan sentiment van Chinezen tegen het verkrachten van Ch

보상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Is er compensatie gegeven!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문제는 강화조약과 국가간 협약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지만,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1995년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의료, 복지지원사업과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 최대한 협력했다고 주장한다.

De Japanse overheid claimt dat hoewel juridische oplossingen voor compensatie, eigendom en claims betreffende de Tweede Wereldoorlog bereikt zijn door een vredesverdrag en andere overeenkomsten, het volledig heeft meegewerkt aan het leveren van een compensatie in de vorm van medische en

welvaartsprogramma's en monetaire compensatie via het Asian Women's Fund, opgericht in 1995, om praktische help te bieden aan voormalige "troostmeisjes" op leeftijd.

◈ 2007년 3월 해산 시까지 민간모금 5억 6500만 엔은 '보상금'으로 지출, 의료복지 지원은 정부 투자금 7억 500만 엔을 지출

◈ Tot aan maart 2007 is 5,65 miljoen Yen dat ingezameld werd door particuliere werving uitgegeven aan "compensatie" en 7,05 miljoen Yen dat ingezameld werd door overheidsinvesteringen is uitgegeven aan medische en welvaartssteun.



수요집회에 참가한 어린 아이가 피해 생존자 앞에서 "일본정부는 국제기구 권고대로 법적배상을 실시하라"는 패널을 들고 있다. 이는 피해 생존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요구이기도 하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roostmeisjes" waarop staat: "De Japanse overheid moet juridische compensatie betalen zoals aanbevolen wordt door internationale organisaties". Dit staat voor de lange termijn hoop en eisen van de slachtoffers.
Bron: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그러나 1996년 1월 4일 제출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이 일본정부의 도의적 관심에 의해 조성된 것이지만 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위안부' 피해자 얀 오헤른은 2007년 2월 15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래와 같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보상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의 보상은 모욕이라고 생각해 거부했다".

Een verslag van Ladika Kumara Swami, Speciale Rapporteur voor de VN Commissie inzake Mensenrechten, dat op 4 januari 1996 werd ingediend, bekritiseerde dat de oprichting van het Asian Women's Fund in het morele belang van de Japanse overheid was maar dat het ook een duidelijke uitdrukking is van haar intentie om alle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te verwerpen. Het verslag beveelt ook aan dat de Japanse overheid haar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erkent en een vergoeding geeft voor een oplossing van het betreffende probleem.

Op 15 februari 2007 drukt voormalig "troostmeisje" O'Herne de volgende mening uit tijdens een hoorzitting van het Comité Buitenlandse Zaken van het Amerikaanse Huis van Afgevaardigden:

"We willen dat de "menselijke waardigheid hersteld wordt" en geen "liefdadigheid". "In 1995 hebben ze het Asian Women's Fund opgericht om de slachtoffers te compenseren. Dit fonds was een belediging van de "troostmeisjes" en zij, waaronder ikzelf, weigerden het te accepteren. Het fonds was een particulier fonds en niet van de overhe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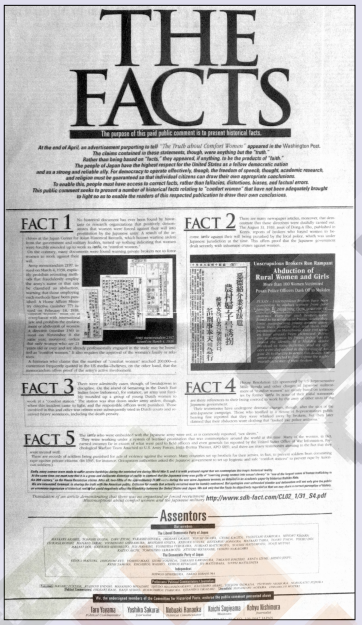
일본 우익의 공격

Aanval van de rechtervleugel van Japan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이후 일본 보수파들은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2007년 3월 아베 총리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발언과 6월 14일 여당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워싱턴포스트지에 게재한 '사실'이라는 광고는 이러한 주장의 극치를 보여준다.

Sinds de Kono-verklaring in 1993 zijn er continue contrasterende meningen geuit door de Japanse rechtervleugel die de Kono-verklaring ontkent. Een advertentie genaamd "De feiten" die op 14 juni in The Washington Times gepubliceerd werd, demonstreert het toppunt van dergelijke meningen geuit door leden van de heersende partij en minster president Abe die in maart 2007 een verklaring afgaf waarin gedwongen inlijving van "troostmeisjes" ontkent werd.

워싱턴포스트지 2007. 6. 14 De Washington Post, 14 juni 2007


THE FACTS

The purpose of this paid public comment is to present historical facts.

FACT 1

FACT 2

FACT 3

FACT 4

FACT 5

Assentors

일본 여야 국회의원과 우파 저널리스트 45명이 유료로 게재한 광고로,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화 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en betaalde advertentie geprint door Japanse politici van zowel de heersende parij ald de oppositieparijgen en rechtste journalisten, het kernargument is dat er geen historisch document is dat bewijst dat voormalige "troostmeisjes" behandeld werden als seksslaven door het Japanse leger. Het suggereert daarom dat aangezien er geen bewijs is om een historisch feit te bewijzen, het feit zelf niet erkend kan worden.

사실 1. 일본군에 의해 여성들이 자의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처해졌을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사실 2. 일본정부는 여성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 범죄를 엄하게 단속했다.
사실 3.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징집하여 '위안소'에 일하게 한 적이 있으나 군의 명령으로 폐쇄했고 관련 장교들을 처벌되었다.
사실 4.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은 반일운동이 시작된 이후 갑작스럽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사실 5.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 관행인 성매매 허가제 하에서 일했던 여성이고, 현장 지휘관이나 장군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다.

Feit 1. Er zijn geen historische documenten gevonden waarin aangetoond wordt dat vrouwen tegen hun wil gedwongen werden tot prostitutie door het Japanse leger.
Feit 2. De Japanse overheid trad serieus op tegen onmenselijke daden die gepleegd werden tegen vrouwen.
Feit 3. Er waren situaties bekend waarin een groep Nederlandse vrouwen met geweld ingelijfd werd om op "trooststations" te werken maar het station werd gesloten op bevel van het leger en verantwoordelijke officiers werden gestraft.
Feit 4. De getuigenissen van "troostmeisjes" zijn aan het begin van de anti-Japan campagne aanzienlijk gewijzigd dus deze zijn onbetrouwbaar.
Feit 5. De "troostmeisjes" waren geen "seksslaven" maar werkten onder een systeem van toegestane prostitutie wat in die tijd in de hele wereld normaal was. Een aantal van hen verdiende een inkomen dat vele malen hoger lag dan dat van veldofficiers of generaals.

그러나 이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본군과 정부의 공문서는 패전 직후 일본군과 정부에 의한 조직적으로 소각 · 말소되었다. '위안부' 관련 중요 문서도 이때 함께 소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De officiele documenten van het Japanse leger en de overheid waarvan zijn claimen dat die niet bestonden, werden echter systematisch vernietigd en verbrand. Het is zeer waarschijnlijk dat belangrijke documenten betreffende "troostmeisjes" in die tijd samen met die documenten verbrand werden.

"이 각의 결정(포츠담선언 수락)이 이루어졌을 때, 육군 중앙시설이 들어서있던 이치가야 지역에서는 기밀서류의 소각이 시작되었다. 종전의 성단(聖斷) 직후, 참모본부 총무과장 및 육군성 고급 부관(副官)으로부터 모든 육군부대에 대해 기밀서류 소각 명령통첩이 내려졌고, 이치가야 지역에서는 서류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8월 14일 오후부터 16일까지 계속되었다."
服部卓四郎, 1965,『大東亞戰爭全史(復刻版)』, 原書房, 958쪽.

"Nadat de beslissing werd genomen door dit kabinet (acceptatie van de Potsdam-verklaring) werden vertrouwelijke documenten verbrand in de regio Ichigaya waar de centrale militaire faciliteiten gevestigd waren. Na de beslissing van de keizer om de oorlog te beeindigen kregen de chef-staf van het hoofdkantoor en hoge adjudanten van de legereenheid het bevel alle vertrouwelijke documenten van de legerunits te verbranden. Zwarte rook afkomstig van het verbranden van documenten was te zien in Ichigaya van 14 augustus tot de middag van 16 augustus.

"내무성의 문서를 전부 소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전부 태우라는 명령으로 내무성 뒤뜰에서 삼일 낮밤으로 활활 밤하늘을 그을리며 태워버렸다."
패전 당시 관방문서과 사무관 大山正 회상,
大霞會編, 1987,『樓內務省外史』, 地方財務協會, 307~308쪽.

"Bevelen werden gegeven om alle documenten van het ministerie te verbranden. We kregen het bevel alles te verbranden aangezien het niet bekend was wat in de toekomst problemen op kon leveren en voor wie. In de tuin van de xxxx vulden we drie hele dagen en nachten de nachtelijke lucht met rook."

Herinneringen van Oyama tadashi, administratieve functionaris van de Afdeling Officiele Documenten op het moment van de nederlaag van Japan in de Tweede Wereldoorlog

일본 보수파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문서가 없음을 내세워 진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위안부' 문제로 인해 일본 청년들이 일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면 일본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법정은 일본군의 관여 하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강간을 당했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했다(10건의 '위안부' 관련 소송에서 7곳의 지방법원과 8곳의 고등법원이 일본군의 관여, 강제성, 피해사실을 인정).
또한 일본 내부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Het is minder waarschijnlijk dat de Japanse conservatieven niet op de hoogte waren van deze feiten. Als dat zo was waarom ontkenden ze dan de waarheid met een excuus dat er geen officiele documenten waren? Hun argument is dat Japan als land in zou storten als zijn jonge generaties hun trots van Japanner te zijn zouden verliezen vanwege de "troostmeisjes" kwestie.

De Japanse rechtbank erkende echter duidelijk dat voormalige "troostmeisjes" systematisch verkracht werden door het Japanse leger en dat hun wonden nog niet genezen zijn. (Zeven rechtbanken en acht hoge raden hebben in tien rechtszaken betreffende "troostmeisjes" erkend dat het Japanse leger erbij betrokken was, dat de uitgevoerde handelingen gedwongen waren en dat er schade was aangericht.)
Er zijn ook aanhoudende claims binnen Japan die de oprechte oplossing van "troostmeisjes" kwesties vereisen.

'전시 성적(性的)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Een wetsvoorstel betreffende de oplossing voor gedwongen slachtoffers van seksuele slavernij tijdens oorlogen.

제1조(목적)

이번 대전, 그리고 해당 전쟁에 이르는 일련의 사변 등과 관련된 시기에 구 육군 · 해군의 관여 하에 여성에 대해 조직적이면서도 계속적인 성적 행위 강제가 벌어졌다. 이에 의해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해당 사실에 입각하여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피해 여성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나라의 책임으로서 강구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여러 관계국 국민들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신뢰 관계 양성,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로운 지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

정부는 전시에 있었던 성적 강제로 말미암아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이들의 명예 회복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전항(前項)의 조치로는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Artikel 1 (Doel)

Systematische en ononderbroken daden van gedwongen seksueel gedrag werden opgelegd aan vrouwen onder de betrokkenheid van het leger en de marine in de periode van de Tweede Wereldoorlog en een reeks incidenten voorafgaand aan de genoemde oorlog. De reputatie en waardigheid van de deze vrouwen zijn derhalve enorm aangetast. Op basis van deze feiten is het een belangrijke taak geworden om een formeel excuus te eisen voor die feiten en maatregelen om zo bij te dragen aan het herstel van de reputatie en waardigheid van de deze vrouwen als verantwoordelijkheden van onze eigen staat. Het doel van dit wetsvoorstel is het promoten van een snelle oplossing van de betreffende kwestie, het cultiveren van een op vertrouwen gebaseerde relatie tussen de mensen van de betreffende landen en ons land en het bijdragen aan de handhaving van onze eerbare positie in de internationale gemeenschap door basiskwesties die vereist zijn voor de voltooiing van de hiervoor genoemde doelen.

Artikel 3 (Maatregelingen voor het herstel van waardigheid)

Het wordt ten sterkste geeist dat de overheid zo snel mogelijk een duidelijk excuus uit betreffende de feiten van het aantasten van de waardigheid en reputatie van de gedwongen slachtoffers van gedwongen seksuele slavernij tijdens de oorlogen en benodigde maatregelen moet ontwerpen om bij te dragen aan het herstel van hun waardigheid en reputatie. Voor wat betreft de maatregelingen van het voorgaande artikel moet een monetaire compensatie te voldoen aan de slachtoffers van gedwongen seksuele slavernij tijdens de oorlogen inbegrepen worden.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명예회복 조치(금전지급 포함)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동 법률안은 2001년부터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Het wetsvoorstel dat het excuus van de Japanse overheid aan voormalige "troostmeisjes" en het herstel van hun aangetaste reputatie (inclusief het monetaire compensatie) eist, is in 2001 ingediend aan het Japanse Parlement door de Democratische Partij, de Sociaaldemocratische Partij en de Communistische Partij. Het wetsvoorstel is echter nog steeds niet aangenomen door het Parlement.



ⓒ 일본 민주당 홍보위원회

2004년 12월 3일 일본 국회에서 개최된 "피해자와 함께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 조기성립을 요구하는 집회" 사진

Bron: officiele website van de Democratische Partij van Japan

Een vergadering gehouden door het Japanse Parlement die werd bijgewoond door voormalige "troostmeisjes" eiste een vroegtijdige samenstelling van het "wetsvoorstel betreffende de oplossing voor slachtoffers van gedwongen seksuele slavernij tijdens de oologen." 3 december 2004

일본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논란

Debat over "troostmeisjes" zoals beschreven in Japanse geschiedenisboeken

일본정부에 일본 학교의 모든 교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역할, 특히 '위안부'의 운명에 대해 실체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2007. 11. 8 네덜란드 의회 위안부 결의안 중에서)
De Japanse overheid wordt verzocht om te promoten en aan te moedigen dat alle tekstboeken die op Japanse scholen gebruikt worden de feiten van de rol van Japa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vooral in de uitvoering van het "troostmeisjes" systeem, bevatten. (11 augustus 2007, Resolutie van het Nederlandse Parlement)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는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94년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 중 1개 출판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10사 20종 중 9사 19종)와 1997년부터 사용되는 모든 중학교 교과서(7사 7종)에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기술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일본의 보수 정치가와 우익단체가 '위안부' 기술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또한 몇몇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교과서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削除」意見書を可決
教科書の「従軍慰安婦」記述
県議会 都道府県議会で初
茨城新聞
中高一貫教育
8都道県が導入
再版維持の意見書可決
安田火災

이바라기신문(茨城新聞), 1997. 6. 20.
이바라기현 의회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Bron: Ibaraki Shimbun, 20juni 1997
Het Ibaraki parlement accepteerde de statement betreffende de verwijdering van "troostmeisjes" die in tekstboeken genoemd werd.

De Kono verklaring die in 1993 aangekondigd werd, benadrukte het belang van onderwijs; "wij zullen deze kwesties nog een lange tijd herinneren door middel van historisch onderzoek en onderwijs en we benadrukken nogmaals onze sterke beslissing om dezelfde fout niet nogmaals te maken." Als resultaat zijn inhouden betreffende "troostmeisjes" opgenomen in alle middelbare school tekstboeken over Japanse geschiedenis, met uitzondering van een boek van een bepaalde uitgever, die sinds 1994 uitgegeven worden (19 tekstboeken van de 20 tekstboeken van 10 uitgevers) en alle lager school boeken vanaf 1997 (zeven tekstboeken van zeven uitgevers).
Sinds 1997 zijn zowel de betrokkenheid van de Japanse overheid en politici als de systematische kritieken van rechtse organisaties over de opname van "troostmeisjes" kwesties toegenomen. Daarnaast zijn een aantal resoluties die de verwijdering van "troostmeisjes" kwesties uit tekstboeken verzoeken, aangenomen tijdens bepaalde vergaderingen van provinciale overheden.

그리고 일본정부는 검정제도를 통해 '위안부' 기술에 직접 관여하여 일본군의 책임소재를 애매하게 기술하도록 지시했고, 정부 각료와 정치가는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을 공격하는 발언을 통해 동 문제가 교과서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되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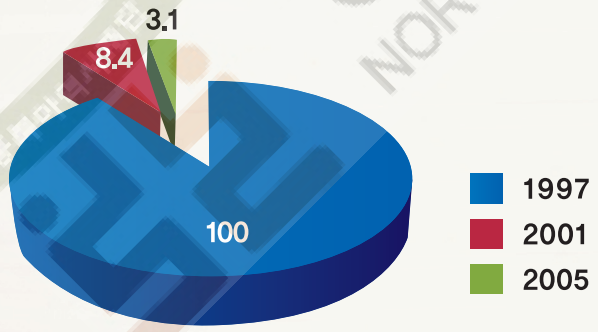
Daarnaast beval de Japanse overheid dat de verantwoordelijkheid van het Japanse leger ondubbelzinnig uitgedrukt zou worden door direct opgenomen te worden in de beschrijving van "troostmeisjes" via een officieel autorisatiesysteem. Leden van het kabinet en politici leidden ook de herroeping of verwijdering in van inhoud betreffende "troostmeisjes" uit tekstboeken door openbare statements te uitten waarin de opname van "troostmeisjes" kwesties in tekstboeken aangevallen werd.

* 아래 발언은 교과서에 대한 공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는) 아주 자학적인데, 이제 겨우 최근에야 이른바 종군 '위안부' 라든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줄어든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2004. 11. 27, 나카야마 나리아키 당시 문부과학성 장관의 발언)
* De volgende statement wordt gezien als de beste beschrijving van de aanvallen op de opname van de "troostmeisjes" kwestie in Japanse tekstboeken.
  "(Japanse geschiedenistekstboeken) zijn zeer wreed met betrekking tot Japan zelf maar het is zeer wenselijk dat het gebruik van uitdrukkingen zoals "troostmeisjes" of "gedwongen inlijving" in Japanse tekstboeken eindelijk verminderd is."
  (Opmerkingen van Nakayama Nariyaki, toenmalige minister of Onderwijs, Wetenschap en Technologie, 27 november 2004)

그 결과 2001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부터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삭제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했다.

Als gevolg hiervan werd inhoud over "troostmeisjes" verwijderd of herroeping uit tekstboeken, als eerste in 2001 met officiële autorisaties uit middelbare tekstboeken.

위안부 문제를 전쟁동원과 관련하여 언급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률
De ratio van aangenomen tekstboeken waarin "troostmeisjes" kwesties met betrekking tot inlijving tijdens de oorlog genoemd worden



1997년에는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7개의 모든 역사교과서가 태평양전쟁을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도 언급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3개 교과서만이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 중 1개 교과서는 전후보상 문제로서만 언급했다. 2005년에는 2개 교과서로 축소되었는데 태평양전쟁을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교과서는 1개에 지나지 않는다.

In 1997 werd in alle zeven tekstboeken de kwestie van "troostmeisjes" genoemd in het hoofdstuk van de Pacifische Oorlog. In 2001 werd de kwestie "troostmeisjes" echter slechts in drie boeken genoemd en in één van de boeken in de contact van naoorlogse compensaties. In 2005 was het aantal verder gedaald naar twee, waarvan slechts één boek de kwestie "troostmeisjes" noemde in de context van de Pacifische Oorlog.

또한 '위안부' 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니혼쇼세키(현, 日本書籍新社)의 교과서 채택률이 1997년 13.7%, 2002년 5.9%, 2006년 3.1%로 급감했다.

결국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전쟁터로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무교육을 통해 충실하게 배우는 미래세대는 3.1%에 지나지 않는다.



アジアの人々を奮い立たせた日本の行動

「日本軍は，長いあいだ，アジア各国を植民地として支配していた西欧の勢力を追い払い，とても白人には勝てないとあきらめていたアジアの民族に，驚異の感動と自信とをあたえてくれました。長いあいだ眠っていた『自分たちの祖国を自分たちの国にしよう』という心をめざめさせてくれたのです。

私たちは，マレー半島を進撃してゆく日本軍に，歓呼の声をあげました。敗れて逃げてゆくイギリス軍を見たときに，今まで感じたことのない興奮を覚えました」

（マレーシアの独立運動家・元上院議員のラジャー・ダト・ノンチック氏の著書より）

❶日本の占領統治　日本語学習のようす。（1942年12月フィリピン）

日本を解放軍としてむかえたインドネシアの人々

数百年にわたってオランダの植民地とされたインドネシアでは，昔から一つの伝説が口づたえに語りつがれていた。「今に北方から黄色い人々があらわれて，圧制者を追放し，トウモロコシの実がなるころには立ち去る。そうして，われわれは解放される。」

インドネシア人は，日露戦争で日本海軍がバルチック艦隊を破って大勝利を収めたことを知って，「北方から来る黄色い人々とは，日本人のことにちがいない」と信じるようになり，ひそかに日本の南進を待ちこがれた。

1942年，日本軍がオランダ軍を破り，進駐すると，人々は道ばたに集まり，歓呼の声をあげてむかえた。日本はオランダを追放してくれた解放軍だった。日本は，3年半の占領期間に，PETAと称する軍事組織の訓練，中等学校の設立，共通語の設定など，

のちの独立の基礎となる多くの改革を行った。

しかし，戦争末期になると，食糧は欠乏し，過酷な労働に動員され，憲兵が横暴なふるまいにおよぶなどの状況が生まれた。インドネシア語になった日本語の中に，「セイシン（精神）」などの単語だけではなく，「ロウムシャ（労務者）」，「ケンペイ（憲兵）」などがあることにも，複雑な事情が反映されている。

め，日本の軍政に協力した。

しかし，日本の占領地域では，日本語教育や神社参拝などをしいたことに対する反発もあった。連合軍と結んだ抗日ゲリラ活動もおこり，日本軍はこれにきびしく対処し，一般市民も含め多数の犠牲者が出た。また，戦争末期になり，日本にとって戦局が不利になると，食糧が欠乏したり，現地の人々が過酷な労働に従事させられる場合もしばしばおきた。

のちに日本が敗戦し撤退したあと，これらの植民地は，ほぼ十数年のあいだに次々と自力で独立を達成した。日本軍の兵士の中には，現地に残って独立戦争に参加する者もいた。日本の南方進出は，もともと資源の獲得を目的としたものだったが，アジア諸国で始まっていた独立の動きを早める一つのきっかけともなった。

❷このため，敗戦後になって，日本は，これらの国々に賠償を行った。そして，大東亜共栄圏の考え方も，日本の戦争やアジアの占領を正当化するためにかかげられたと批判された。

大東亜会議に参加した国の中から一つを選び，独立運動と日本の軍事行動とのかかわりを調べてみよう。

207

출처 : 『新しい歴史教科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행한 일본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는 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 후소샤)

Tekstboek uitgeven door de Club for New History Textbooks dat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beschrijft als oorlogen ter bevrijding van Azië.

(New History Textbook, Hososha)

"일본을 해방군으로 맞이한 인도네시아인"

"Indonesiërs groeten het Japanse leger als bevrijdingsleger"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미화

Japan liet zijn agressieve oorlog voorkomen als een oorlog ten bevrijding van Azië

출처 : 『新しい歴史教科書』



Het tekstboek uitgegeven door Nihonsyoseki (vandaag, Nihonsyosekishinsha) beschrijft de kwestie "troostmeisjes" het krachtigste. Het percentage van gebruik van dit tekstboek op scholen daalde aanzienlijk van 13,7% in 1997 naar 5,9% in 2002 en naar 3,1% in 2006. Al met al krijgt slechts 3,1% van Japans toekomstige generatie wezenlijk en verplicht onderwijs in de historische feiten van inlijving van "troostmeisjes" in tijden van oorlog voor het Japanse leger.

허구의 대동아공영권
Een valse grotere Oost-Aziatische Co-Prosperity Sphere

(27줄~31줄)

군의 요청에 따라 일본군 병사를 위해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을 모아 전쟁터로 보냈다. 「대동아공영권」은 단지 선전을 위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았다"

(Regels 27~31)

"In navolging van het verzoek van het leger rekruteerde we jonge Aziatische vrouwen uit delen van Azië zoals Chosun en stuurden hen voor Japanse soldaten naar de slagvelden. "De grotere Oost Aziatische Co Prosperity Sphere" was niets meer dan een slogan voor propaganda."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이 침략전쟁의 본질을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하고 군의 요청에 의해 '위안부'를 동원했다고 기술

Dit tekstboek beschrijft de grotere Oost Aziatische Co Prosperity Sphere als een manier om de ware aard van Japan's agressieve oorlog te verhullen. Het vermeld ook dat "troostmeisjes" gemobiliseerd werden op verzoek van het Japanse leger.


さらに深める学習
まぼろしの大東亜共栄圏
p201の「太平洋戦争の開戦」について、ここでさらに深める学習をしましょう。
▲シンガポールに建つ「血債の塔」 1942年のシンガポール占領直後に、日本軍は多数の中国系住民を虐殺しました。犠牲者の追悼のため、シンガポール国民の寄付金によって、1967年にこの塔が建てられました。高さ68m。
日本政府は、1940年代に入ると、大東亜共栄圏の建設というスローガンをかかげるようになりました。欧米の帝国主義勢力を排除して日本を中心にした新しい国際秩序をつくりあげるという意味です。太平洋戦争がはじまると、政府の代表は次のようなラジオ放送をおこなっています。
日本は絶対不敗の国であります。[中略]
敵の侵略は南に、東に、北に、西に徹底し突破して、アジアの歴史をつくるのであります。アジアを白人の手からアジア人みずからの手にうばいかえすのであります。アジア人のアジアをつくりあげるのであります。
さらに、戦局が悪化していくようになると、日本政府は、アジアの諸民族の協力を取りつけるため、日本が後おしする「満州国」などの政権の代表をまねいて、大東亜会議を開きました。この会議では、英米の植民地支配からアジアを解放することが宣言されま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スローガンには説得力がありませんでした。アジア人のアジアをかかげながら、アジアの大国、中国と長い間、戦争状態にありました。それに、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をいいながら、日本自身が朝鮮・台湾を手ばなそうとはしなかったからです。
また、日本軍による悪政も、「共栄」のスローガンを台なしにしました。シンガポールでは、抗日的とみなされた中国系住民の大量処刑がおこなわれました。ビルマ(現在のミャンマー)とタイを結ぶ泰緬鉄道の建設では、多くの捕虜や各地の労働者がひどい労働条件のもとで働かされ、数万人が死にました。フィリピンでは降伏したアメリカ軍とフィリピン軍の捕虜を炎天下の過酷な行進で多数死なせています(バターン死の行進)。中国では捕虜にした中国兵を、その場で殺害してしまう場合もありました。
日本国内の労働力不足をおぎなうため、朝鮮や中国の占領地からは、多くの人々が内地に強制的につれていかれました。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数は約70万人、中国人の数は4万人とされています。また、軍の要請によって、日本軍兵士のために朝鮮などアジアの各地から若い女性が集められ、戦場に送られました。「大東亜共栄圏」はたんなる宣伝のためのスローガンにすぎなかったのです。
◇考えてみましょう，調べてみましょう
アジア各国の教科書では、戦時中のことは、ど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のでしょう。
202

출처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歷史的分野』


文部科学省検定済教科書 中学校社会科 222 日新 歴史716
わたしたちの
歴史的分野
中学社会
日本書籍新社

출처 :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歷史的分野』

일본의 침략전쟁과 '위안부' 문제를 가장 충실하게 기술한 교과서
(『우리들의 중학사회 – 역사분야』, 니혼쇼세키신샤)

Tekstboek dat de kwesties van de agressieve oorlogen van Japan en de "troostmeisjes" het meest uitgebreid behandeld.
(Our Middle School Society: History, Nihonshoseki Shutpan Shinsha)

18년 동안 계속된 수요시위

Woensdagdemonstraties die 18 jaar lang plaatsvonden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석한 '위안부' 생존자들과 시위 참가자들. 수요시위에는 학생, 각종 사회단체 회원, 정치인, 학자, 외국인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출처: 정대협 홈페이지)

[Voormalige "troostmeisjes" en demonstranten die deelnemen aan demonstraties die elke woensdag gehouden worden. Onder de deelnemers zitten studenten, leden van verschillende sociale organisaties, politici, studenten en buitenlanders.]
(Bron: Officiële website voor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 서울
Seoul, Korea



필리핀 마닐라
Manilla, Filippijnen



일본 도쿄
Tokio, Japan



독일 베를린
Berlijn, Duitsland



캐나다 밴쿠버
Vancouver, Canada



미국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V.S.



미국 뉴욕
New York, V.S.



스위스 베른
Bern, Switzerland

2005년 8월 15일, 전세계 10개국 30여 개 도시에서는 종전60주년기념집회를 동시에 열고, 일본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촉구하였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Op 15 augustus 2005 werden wereldwijd in 30 steden, in tien landen, herdenkingsplechtigheden gehouden voor de 60 jaar sinds het einde van de Tweede Wereldoorlog. Tijdens de plechtigheden werd de Japanse overheid dringend verzocht de waarheid te onthullen over de kwestie "troostmeisjes" en deze eer aan te doen.]

'위안부' 운동단체의 결성–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80년대 후반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여성운동이 고양되던 1988년, 윤정옥 교수는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성매매 관광을 하는 실태를 지적하는 세미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매춘관광의 역사적 뿌리이며,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현재의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이후 윤정옥 교수와 여성운동단체들은 이것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한 · 일 정부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한 여성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1990년 11월 37개의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의 구심체로서, 매주 수요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수요시위의 특징

수요시위는 몇 가지 점에서 세계여성운동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요시위는 일회적인 집회에 그치지 않고, 1992년 1월 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2009년 2월 말 현재 852차 시위 개최). 둘째, 수요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온갖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요시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셋째,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만 의제를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평화를 위한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2001년 8월 15일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규탄 시위, 2003년 이라크전 파병반대 시위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넷째, 수요시위에 참여한 구성원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비롯, 각종 사회 · 여성운동단체 회원, 정치인, 학자, 일본 시민단체 회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시위에 참여해 왔다.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e formatie van een "Troostmeisjes" Organisatie

De ontwikkeling van Korea's vrouwenbeweging eind jaren '80 vormde de grondslag voor het ter sprake brengen van het onderwerp "troostmeisjes" als sociale kwestie. De beweging kwam in opspraak in 1988 toen professor Jung Ok Yoon de kwestie "troostmeisjes" openlijk naar voren bracht tijdens een seminar over Japanse mannen op reis in Korea voor sekstoerisme. Hier benadrukte zij dat "troostmeisjes" de historische oorsprong zijn van sekstoerisme en dat het geen probleem is van het verleden maar van het heden, en dat er onmiddellijk een oplossing voor moet komen. Hierna verzochten professor Yoon en belangenorganisaties voor vrouwen, de Koreaanse overheid dringend een actieve poging te ondernemen om deze problemen op te lossen en aan de Japanse overheid om een openbaar excuus aan te bieden en onderzoeken in te stellen.
Toen ze van geen van de twee overheden een bevredigend antwoord kregen, erkenden de belangenorganisaties voor vrouwen de beperkingen van het oplossen van problemen op overheidsniveau. Hierna, in november 1990, richtte 37 belangenorganisaties voor vrouwen samen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gerekruteerd door Japa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op. De Raad houdt als centraal lichaam van de sociale beweging voor het oplossen van de "troostmeisjes" kwestie, elke woensdag "Woensdagdemonstraties" voor de Japanse Ambassade in Korea.

Kenmerken van de Woensdagdemonstraties

De Woensdagdemonstraties zullen misschien vastgelegd worden als de meest significante in de geschiedenis van vrouwenbewegingen wereldwijd. Ten eerste, sinds de eerste demonstratie op 8 januari 1992, worden er al 18 jaar lang elke week demonstraties gehouden. (De 852e demonstratie werd in februari 2009 gehouden.) Ten tweede, voormalige "troostmeisjes" hebben, ongeacht hun leeftijd, altijd deelgenomen aan de Woensdagdemonstraties. Zij hebben de beweging kracht gegeven door actief deel te nemen aan de demonstraties, zelfs in zeer slechte weersomstandigheden. Ten derde, de Woensdagdemonstraties hebben altijd een boodschap van wereldvrede en een anti oorlogsboodschap geleverd, de agenda is niet alleen gericht op "troostmeisjes" kwesties. Demonstraties tegen het bezoek van de voormalige Japanse Minister President

Koizumi aan de Yasukuni Shrine op 15 augustus 2001 en tegen het zenden van troepen naar de oorlog in Irak in 2003 zijn daar voorbeelden van. Ten vierde, deelnemers aan de Woensdagdemonstraties komen uit alle lagen van de bevolking, onder andere, basisschool en middelbare schoolleerlingen, leden van verschillende sociale organisaties en belangenorganisaties voor vrouwen, politici, studenten, leden van Japanse burgerrechtengroepen en toeristen die Korea bezoeken.

일본정부에 대한 수요시위의 요구사항

1.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 결의 사죄
4. 법적 배상
5. 역사교과서 기록
6.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7. 책임자 처벌

Eisen gesteld door de Woensdagdemonstraties aan de Japanse overheid

1. Formele erkenning van de misdaad tegen "troostmeisjes"
2. Onderzoeken
3. Formele spijtbetuiging via de resolutie van het Parlement
4. Juridische compensatie
5. Toevoeging in de geschiedenisboeken
6. Oprichting van een herdenkingstoren en historische archieven
7. Vervolging van diegenen die de leiding hadde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제연대운동과 국제사회의 노력

Internationale solidariteitsbeweging en inzet van de internationale gemeenschap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세계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상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1996년(1998/2001/2003)에는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인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가, 1998년에는 '전시하 성노예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지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 역시,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입장에 동조하며 고무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는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를 개최하여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무력갈등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살인이나 체계적 강간, 성노예, 그리고 강요된 임신 등은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률의 근본적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효력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De beweging naar de oplossing van de kwestie "troostmeisjes" werd geleid door de steun van en banden tussen internationale vrouwenorganisaties en mensenrechtenorganisaties. De internationale gemeenschap verhoogde in de jaren '90 haar interesse in oorlogsmisdaden en mensenrechten wat de kritische achtergrond bepaalde voor de internationale solidariteitsbeweging in "troostmeisjes" kwesties.

Onderzoeken naar Mensenrechten door de VN Commissie

In 1995 lanceerde de VN Commissie voor Mensenrechten een onderzoek naar de "troostmeisjes" kwesties. In 1996 (1998/2001/2003), werd het verslag van Kumara Swami, Speciale Rapporteur inzake geweld tegen vrouwen, ingediend.
In 1998 werd het verslag van Gay McDougall, Speciale rapporteur inzake systematische verkrachtingen, seksuele slavernij en slavernijachtige praktijken tijdens oorlogen, ingediend.
Beide verslagen werden aangenomen om het Japanse leger aan te bevelen juridische verantwoordelijkheden te nemen.

De steun van internationale NGO's

Internationale NGO's hebben ook een bemoedigende resolutie aangenomen in overeenstemming met de positie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In juni 1993 werd de Verklaring en het Actieprogramma van Wenen

aangenomen tijdens de Wereldconferentie over Mensenrechten dat gehouden werd in Wenen, Oostenrijk. In September 1995 werd het Beijing Verklaring en Platform voor actie ook aangenomen tijdens de 4e Wereldconferentie over Vrouwen. Deze resoluties lichtten toe dat "moord, systematische verkrachting, seksuele slavernij en gedwongen zwangerschap tijdens een oorlog ingaan tegen de fundamentele regels van internationale mensenrechten en humanitaire wetgevingen die vooral een effectieve reactie vereisen."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3 Wereldconferentie over Mensenrechten in Wenen]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1995 Wereldconferentie over Vrouwen Beijing]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국제법정)' 이 개최되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0년 국제법정' 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글로벌한 시민사회에 의해 기획된 국제민간법정이었다. 이 법정은 한국 등 아시아 피해국 8개국과 일본 등 총 9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70여 명의 '위안부' 생존자들과 2천 여 명의 세계인권단체 ·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내려진 최종판결에서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전범자 9명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일본정부가 종전 이후에 '위안부' 생존자에게 배상을 거부함으로써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하였다.

ⓐ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
ⓑ 기념관, 박물관, 도서관의 설치
ⓒ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기록하고 교육할 것
ⓓ 유해를 발굴하고 생존자를 귀환시킬 것
ⓔ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2000년 도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Internationale oorlogsmisdaden ove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oor Japan, georganiseerd door vrouwen, 2000]

Internationale oorlogsmisdaden tribunaal ove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oor Japan, georganiseerd door vrouwen in 2000

In 2000 werd het "internationale oorlogsmisdaden tribunaal ove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oor Japan,

georganiseerd door vrouwen" (hierna "Internationaal Tribunaal 2000") gehouden om Japan aan te klagen voor verantwoordelijkheden van haa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Het werd gehouden in Tokio, Japan en was een tribunaal voor de mensen samengeroepen door de wereldwijde civiele samenleving om de herhaling van oorlogsmisdaden tegen vrouwen te voorkomen. Dit tribunaal werd samengeroepen door negen landen waaronder Japan en acht andere Aziatische landen, inclusief Korea. Er waren ook ongeveer 70 voormalige "troostmeisjes" en ongeveer 2000 internationale mensenrechten en vrouwenrechtenorganisaties aanwezig. In het definitieve oordeel, uitgesproken in Nederland in 2001, pleitten de onlangs overleden Keizer Showa en negen oorlogsmisdadigers schuldig. Aangevend dat schade nog steeds aangericht werd doordat de Japanse overheid weigert de voormalige "troostmeisjes" te compenseren, werden de volgende punten aanbevolen aan de Japanse overheid:

Ⓐ Het opstellen van een mechanisme voor en bronnen toewijzen aan het grondig onderzoek naar het systeem van militaire slavernij.
Ⓑ Monumenten en een museum en bibliotheek creëren die toegewijd zullen zijn aan de herinnering van "troostmeisjes".
Ⓒ Educatieve initiatieven sponsoren waaronder betekenisvolle opname in tekstboeken van alle niveaus en ervoor zorgen dat onderwijs van de bevolking, vooral van de jongeren, over de overtredingen die gepleegd werden en het toegebrachte letsel.
Ⓓ De stoffelijke overschoten van slachtoffers opgraven en overlevenden repatriëren.
Ⓔ Alle benodigde en gepaste maatregelingen treffen om de slachtoffers en overlevenden te compenseren.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영상 화면을 통해 북한의 박영심이 증언을 하였다.

[Tijdens het International oorlogsmisdaden tribunaal over de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oor Japan, georganiseerd door vrouwen, geeft Young Shim Park via een scherm haar getuigenis.]



2000년 국제법정에서 히로히토 일본 천황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남한과 북한의 피해자들이 손을 잡고 환호하였다.

[Tijdens het International oorlogsmisdaden tribunaal over de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door Japan, georganiseerd door vrouwen, geeft Young Shim Park via een scherm haar getuigenis.]

각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2007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세계 각국 의회의 일본에 대한 권고 결의안 통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미국 하원 본회의는 마이클 혼다 의원의 발의로 2007년 7월 30일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네덜란드,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타이완, 한국 등의 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Troostmeisjes" resoluties aangenomen door verschillende parlementen

Toen resoluties over "troostmeisjes" aangenomen werden door verschillende parlementen in de wereld werd dit een aanzienlijk keerpunt voor de beweging om tot een oplossing te komen in de kwestie "troostmeisjes." Tijdens de vergadering van het Amerikaanse Huis van Afgevaardigden werd de "troostmeisjes" resolutie waarin een formeel excuus van de Japanse overheid geëist werd, aangenomen via het voorstel van congreslid Michael Honda op 30 juli 2007.
Datzelfde jaar werden "troostmeisjes" resoluties aangenomen door het parlement van Nederland, dat van de Europese Unie, Canada, Australië, Taiwan en Korea, deze verzochten allemaal om een excuus van de Japanse overheid. Deze resoluties lieten zien dat de internationale consensus bereikt was over de kwestie "troostmeisjes" en riepen problemen op bij de Japanse overheid betreffende de ontwijking van haar verantwoordelijkheden.



2007년 2월 15일, 한국의 김군자, 이용수, 네덜란드 출신의 얀 오헤른 등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증언을 하였다.

[15 februari 2007. Gun Ja Kim en Yong Soo Lee uit Korea en Jan O'Herne uit Nederland werden uitgenodigd om getuigenissen af te leggen in het Amerikaanse Huis van Afgevaardigden in Washington .]

© 연합뉴스

2007년 각국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1]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 (2007. 7. 30)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 RES. 121
OFFERED BY MR. LANTOS OF CALIFORNIA AND
MS. ROS-LEHTINEN OF FLORIDA
Strike the preamble and insert the following: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officially commissioned the acquisition of young women for the sole purpose of sexual servitude to its Imperial Armed Forces, who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ianfu' or 'comfort women';
Whereas the 'comfort women' system of forced military prostitut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considered unprecedented in its cruelty and magnitude, included gang rape, forced abortions, humiliation, and sexual violence resulting in mutilation, death, or eventual suicide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Whereas some new textbooks used in Japanese schools seek to downplay the 'comfort women' tragedy and other Japanese war crimes during World War II;
Whereas Japanese public and private officials have recently expressed a desire to dilute or rescind the 1993 statement by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on the 'comfort women', which expressed the Government's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for their ordeal;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id sign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and supported the 2000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hich recognized the uniqu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women;
Wherea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ends Japan's efforts to promote human security, human rights, democratic values, and rule of law, as well as for being a supporter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Whereas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United States security interests in Asia and the Pacific and is fundamental to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Whereas, despite the changes in the post-cold war strategic landscape,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continues to be based on shared vital interests and val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he securing of prosperity for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a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ends those Japanese officials and private citizens whose hard work and compassion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in 1995 of Japan's private Asian Women's Fund;
Whereas the Asian Women's Fund has raised $5,700,000 to extend 'atonement' from the Japanese people to the comfort women; and Whereas the mandate of the Asian Women's Fund, a government initiated and largely government-funded private foundation whose purpose was the carrying out of programs and projects with the aim of atonement for the maltreatment and suffering of the 'comfort women', comes to an end on March 31, 2007, and the Fund is to be disbanded as of that date: Now, therefore, be it

Strike all after the resolved clause and insert the following:
That it is the sens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1) should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 lands from the 1930s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2) would help to resolve recurring questions about the sincerity and status of prior statements if the Prime Minister of Japan were to make such an apology as a public statement in his official capacity;
(3) should clearly and publicly refute any claims that the sexual enslavement and trafficking of the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never occurred; and
(4) should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this horrible crime whil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spect to the 'comfort women.'

"Resoluties troostmeisjes" van respectieve landen, 2007

[1] "Troostmeisje" resolutie van het Lagerhuis van de Verenigde Staten (2007.7.30)

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 TO H. RES. 121
OFFERED BY MR. LANTOS OF CALIFORNIA AND
MS. ROS-LEHTINEN OF FLORIDA
Strike the preamble and insert the following:

Verwijder alles na de clausule en voeg het volgende in:
Dat het huis van afgevaardigden van mening is dat de overheid van Japan

(1) haar historische verantwoordelijkheid voor de inlijving van jonge vrouwen voor seksuele slavernij door haar imperiale strijdkrachten, internationaal bekend als "troostmeisjes", tijdens haar koloniale bezetting en bezetting tijdens oorlogen van Azië en de Pacifische eilanden, vanaf 1930 tot aan 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formeel moet erkennen en accepteren op een duidelijke en ondubbelzinnige manier, en zich hiervoor formeel moet verontschuldigen.;

(2) moet bijdragen aan het oplossen van terugkomende vragen over de oprechtheid en status van voorgaande statements als de minister president van Japan in zijn officiële positie een dergelijke verontschuldiging zou maken in een openbare statement;

(3) duidelijk en in het openbaar de claims dat de seksuele slavernij en handel van "troostmeisjes" voor de Japanse imperiale strijdkrachten nooit heeft plaatsgevonden moet weerleggen; en

(4) huidige en toekomstige generaties moet onderwijzen over deze verschrikkelijke misdaad en de aanbevelingen van de internationale gemeenschap met betrekking tot "troostmeisjes moet opvolgen.

[2] 네덜란드 하원 '위안부' 결의안 (2007. 11. 8)

The House,
heard the deliberation, considering that Japan 15 a strategic partner in Asia, with which the netherlands has relations for already 400 years, of which 150 years diplomatic relations, and with which our country wants to give shape to a common future;
of opinion that Japan without any reserve, should, in Public, take her full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 of forced prostitution, as it was operated in the years Prior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for the suffering that was caused to the so-called comfort women and about which no doubt can and should be raised;
recogniz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by means of the so-called Kono – statement from 1993, has indeed acknowledged the fate of the comfort women, has expressed her regret towards the Victims and with this statement has accepted that responsibility, but Just as much recognizing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members of parliament at various occasions have distanced themselves from this, as is revealed by later revoked statements by then Prime Minister Shinzo Abe, last March and the advertisement of members of the Japanese Lower House in the Washington Post earlier this year regarding the Same subject;
examining the letter that was written by the Japanese chairman of Lower House on 7 November recently, in response to the writing of the chairman of the House of 26 June concerning the advertisement in the Washington Post, and in which he distances himself from the mentioned advertisement;
considering that certain teaching materials on Japanese school inadequately do justice to the recognition of the Japanese war crimes, amongst which the treatment of the comfort women;
requests the government to strongly demand the government of Japan to refrain from any statement which will take away from the expression of regret from 1993 and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army with the system of forced prostitution;
requests the government to strongly demand the government of Japan to make an additional gesture by presenting a form of direct moral, respectively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 caused sufferings to the at present still living comfort women;
requests the government to strongly demand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mote that all the teaching materials on Japanese schools will provide a truthful image of the Japanese role in the Second World War, amongst which the fate of the comfort women, and will proceed to the order of the day.
The Chairman:
This motion has been suggested by the members Van Baalen, van Gennip, Van Dam, Van Bommel, Wilders, Peters, Voordewind, Pechthold, Van der Staaij, Thieme and Verdonk. Shel receives number 32(31200- V) .
Mr. Van Baalen (VVD) :
Chairman. I request to mention with the motion that the petition which was presented on Friday 2 November recently,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Indian Platform and the Foundation Japanese Debts of Honour, lays with the registry for inspection. I present you this petition.
The chairman:
Based on this, we will make the petition available for perusal for everybody.

[2] "Troostmeisje" resolutie van het Lagerhuis van Nederland (2007.11.8)

verzoekt dat de overheid eist dat de overheid van Japan afziet van statements die afbreuk zullen doen aan spijtbetuiging uit 1993 en dat het volledige verantwoordelijkheid neemt voor het Japanse leger en het systeem van gedwongen prostitutie; verzoekt de Japanse overheid ten zeerste om een extra gebaar te uiten door een vorm van direct moreel te presenteren, respectievelijk financiële compensatie voor het lijden door de op het moment nog steeds in leven zijnde troostmeisjes; verzoekt dat de overheid de Japanse overheid eist te promoten dat alle lesmaterialen op Japanse scholen een eerlijk beeld van de rol van Japan in de Tweede Wereldoorlog zal geven, waaronder het lot van troostmeisjes, en verder zal gaan met de orde van de dag.

[3] 유럽의회 '위안부' 결의안 (2007. 12. 12)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3 December 2007 on Justicefor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in Asia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The European Parliament ,
-having regard to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in 2007,
-having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1921), to which Japan is a signatory,
-having regard to ILO Convention No. 29 on Forced Labour (1930), ratified by Japan,
-having regard t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having regard to the report by Gay McDougall, UN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22 June 1998),
-having regard to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38th session of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9-10 May 2007),
-having regard to the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Hague (2004),
-having regard to the resolutions on the comfort women adopted by the US Congress on 30 July 2007, and by the Canadian Parliament on 29 November 2007,
-having regard to Rule 115(5) of its Rules of Procedure,
A.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fficially ordered the acquisition of young women, who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Æianfu°Ø or "comfort women", for the sole purpose of sexual servitude to its Imperial Armed Forces,
B. whereas the "comfort women" system included gang rape, forced abortions, humiliation, and sexual violence resulting in mutilation, death or eventual suicide,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C. whereas the dozens of "comfort women" cases brought before Japanesem courts have all ended in the dismissal of plaintiffs" claims for compensation, despite court judgments acknowledging the Imperial Armed Forces"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D. whereas most of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have passed away, and the remaining survivors are 80 or more years of age;
E. whereas over the past years numerous high-ranking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made apologetic statements on the "comfort women" system, while some Japanese officials have recently expressed a regrettable desire to dilute or rescind those statements,
F. whereas the full extent of the sexual slavery system has never been fully disclos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me new required readings used in Japanese schools try to minimize the tragedy of the "comfort women" and other Japanese war crimes during World War II,
G. whereas the mandate of the Asian Women's Fund, a government-initiated private foundation whose aim was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to compensate for the abuse and suffering of the "comfort women", came to an end on 31 March 2007,
1. Welcomes the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based on the mutually shared values of a multi-party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2. Expresses its solidarity with the men who wer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for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3. Welcomes the statements by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n 1993 and by the then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in 1995 on the "comfort women", as well as the resolutions of the Japanese parliament (the Diet) of 1995 and 2005 expressing apologies for wartime victims, including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4. Welcomes the Japanese Government's initiative to establish, in 1995, the now-dissolved Asian Women's Fund, a largely government-funded private foundation, which distributed some "atonement money" to several hundred "comfort women", but considers that this humanitarian initiative cannot satisfy the victims" claims of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on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s stat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Gay McDougall in her above-mentioned report of 1998;
5. Calls on the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to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and leg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6. Calls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effective administrative mechanisms to provide reparations to all surviving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families of its deceased victims;
7. Calls on the Japanese parliament (the Diet) to take legal measures to remove existing obstacles to obtaining reparations before Japanese courts; in particular, the right of individuals to claim reparation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expressly recognised in national law, and cases for reparations for the survivors of sexual slavery,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be prioritized, taking into account the age of the survivors;
8. Calls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refute publicly any claims that the subjugation and enslavement of "comfort women" never occurred;
9. Encourages the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to take further steps to recognize the full history of their nation, as is the moral duty of all countries, and to foster awareness in Japan of its actions in the 1930s and 1940s, including in relation to "comfort women"; calls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those events;
10. Instructs its President to forward this resolu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to the governments and parliaments of the Member Stat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governments of the ASEAN States, to the governm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imor-Leste.

[3] "Troostmeisjes" resolution van het Europees Parlement (2007.12.12)

5. Vraagt de Japanse overheid zich formeel te verontschuldigen voor haar historische en legale verantwoordelijkheid en deze formeel te erkennen en accepteren op een duidelijke en ondubbelzinnige manier, voor inlijving door haar imperiale strijdkrachten van jonge vrouwen voor seksuele slavernij, internationaal bekend als "troostmeisjes", tijdens haar koloniale bezetting en bezetting tijdens de oorlogen van Azië en Pacifische eilanden vanaf 1930 tot aan 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6. Roept de Japanse overheid op effectieve administratieve mechanismen te implementeren ter schadeloosstelling van alle overlevende slachtoffers van het "troostmeisjes" systeem en aan de families van overleden slachtoffers;

7. Roept het Japanse Parlement op om juridische stappen te ondernemen om bestaande obstakels van schadeloosstelling voor de Japanse rechtbank te verwijderen, vooral het recht van individuen om schadeloosstelling te claimen van de overheid moeten uitdrukkelijk erkend worden in de nationale wetgeving en zaken betreffende schadeloosstellingen van de overlevenden van seksuele slavernij, moeten als misdaad onder internationale wetgeving prioriteit krijgen waarbij rekening gehouden moet worden met de leeftijd van de overlevenden.

8. Roept de overheid van Japan op om openlijk claims dat de onderwerping en slavernij van "troostvrouwen" nooit heeft plaatsgevonden te weerleggen.

*네덜란드 의회 '위안부' 결의안(네덜란드어)

* De heer Van Baalen (VVD):

Voorzitter. In eerste termijn hebben wij uitgebreid gesproken ove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Ook de minister is daar in zijn eerste termijn op ingegaan. Ik dien daarom een motie in namens alle woordvoerders in deze Kamer.
De Kamer, gehoord de beraadslaging, overwegende dat Japan een strategische Partner in Azië is, waarmee Nederland al 400 jaar betrekkingen onderhoudt, waarvan 150 jaar diplomatieke in 2008, en waarmee onsland een gemeenschappelijke toekomst gestalte wil geven;
van mening dat Japan zonder enige terughoudendheid in het openbaar haar volle verantwoordelijkheid moet nemen voor het systeem van gedwongen prostitutie, zoals dat in de jaren voor 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werd gehanteerd, en voor het leed dat daarbij aan de zogenoemde troostmeisjes is aangedaan en waarover geen twijfel kan en mag worden opgeworpen;
constaterende dat de Japanse regering door middel van de zogenaamde Kono-verklaring uit 1993 weliswaa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heeft erkend, haar spijt tegenover de slachtoffers heeft betuigd en met deze verklaring die verantwoordelijkheid heeft aanvaard, maar evenzeer constaterende dat de Japanse regering en Japanse Parlementariërs bij verschillende gelegenheden daarvan afstand hebben genomen, zoals blijkt uit de later herroepen uitspraken van de toenmalige premier Shinzo Abe in maart jongstleden en de advertentie van leden van het Japanse Lagerhuis in de Washington Post eerder dit jaar over hetzelfde onderwerp;
kennisnemende van de brief die de voorzitter van het Japanse Lagerhuis op 7 november jongstleden in antwoord op het schrijven van de voorzitter van de Kamer van 26 juni jongstleden over de advertentie in de Washington Post heeft geschreven en waarin hij afstand neemt van de genoemde advertentie;
overwegende dat bepaald lesmateriaal op Japanse scholen onvoldoende recht doet aan de erkenning van de Japanse oorlogsmisdaden, waaronder de behandeling van de troostmeisjes;
overwegende dat Japan via het Asian Women's Fund aan de voormalige troostmeisjes vormen van de compensatie heeft geboden, deels gefinancierd vanuit publieke middelen, maar dat deze compensatie door een particuliere organisatie werd verleend;
verzoekt de regering aan de reger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af te zien van enige verklaring die afbreuk doet aan de spijtbetuiging van 1993 en de volle verantwoordelijkheid te nemen voor de betrokkenheid van het Japanse leger bij het systeem van gedwongen prostitutie;
verzoekt de regering aan de reger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een aanvullend gebaar te maken door de thans nog levende troostmeisjes een vorm van directe morele respectievelijk financiële compensatie voor het aangedane leed aan te bieden;
verzoekt de regening aan de regen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te bevorderen dat al het lesmateriaal op de Japanse scholen een waarheidsgetrouw beeld geeft van de Japanse rol in de Tweede Wereldoorlog, waaronde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en gaat over tot de orde van de dag.
De voorzitter:
Deze motie is voorgesteld door de leden Van Baalen, Van Gennip, Van Dam, Van Bommel, Wilders, Peters, Voordewind, Pechtold, Van der Staaij, Thieme en Verdonk. Zij krijgt nr. 32 (31200-V).
De heer Van Baalen (VVD):

Voorzitter. Ik verzoek op de motie melding te maken dat de petitie die op vrijdag 2 november jongstleden door Amnesty International, het Indisch Platform en de Stichting Japanse Eerschulden aan de Kamer werd aangeboden, bij de griffie ter inzage ligt. Ik overhandig u deze petitie.
De voorzitter:
Wij zullen deze petitie op basis daarvan voor eenieder ter inzage leggen.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생존자에서 운동가로

Van slachtoffers tot overlevenden, van overlevenden tot activisten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위안부'로서의 과거 경험은 어떻게 그녀들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Wat voor een leven hadden de "troostmeisjes" nadat de oorlog was afgelopen?
Hoe vormen hun ervaringen hun huidige levens?

'위안부' 여성들의 전후(戰後)

전쟁이 끝난 후, 과거 '위안부'였던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마을공동체로부터의 비난이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고가 없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족에게조차 그 사실을 숨기고 산 여성들이 많이 있다. 이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미 자신들은 '순결하지 못한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포기한 채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였다. 물론 결혼을 한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 경험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다. 또한 그녀들의 '비밀'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학대와 모욕을 당했다.

Naoorlogse jaren van de "troostmeisjes"

Aan het einde van de oorlog waren er vele voormalige "troostmeisjes" die niet teruggingen naar hun huizen of gemeenschappen omdat ze bang waren dat ze de schuld zouden krijgen. Daarom begonnen ze een nieuw leven op een plek waar ze geen familie hadden. Zelfs al gingen ze terug naar huis, besloten vele van hen niets te zeggen tegen hun familieleden. Onder deze vrouwen zat een aanzienlijk aantal dat niet trouwde aangezien ze hun lichaam beschouwde als "onzuiver" en zij werkten vaak in bordelen. Er was natuurlijk ook een aanzienlijk aantal vrouwen dat wel trouwde. Maar degenen die hun ervaringen echter verhulden, beschouwden zichzelf als "zondaren" en leefden hun hele leven in bezorgdheid en angst. Wanneer hun "geheimen" onthuld werden, werden ze ernstig misbruikt en beledigd door hun echtgenoten.

'위안부' 생존자들, 평화를 전하다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전쟁 이후의 삶은 전쟁 기간 동안 그녀들이 겪은 피해 경험과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들의 현재는 피해의 시간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생존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들은 정기적인 수요시위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평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난 이야기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할 겁니다. 난 활동적인 운동가예요. 만약 젊었다면 무슨 일이든 했을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작 DVD)

Voormalige "troostmeisjes" zenden vrede naar de wereld

De levens van voormalige "troostmeisjes" vanaf het einde van de oorlog waren niet gescheiden van hun levens en ervaringen tijdens de oorlog. Ze zaten echter niet vast in het verleden. Veel van de overlevende slachtoffers hebben de rol van vredebetogers op zich genomen en eisen excuses en compensatie van de Japanse overheid, en uiten zich tegen oorlog en geweld tegen vrouwen door regelmatig deel te nemen aan de Woensdagdemonstraties en internationale conferenties.

"Ik ben verplicht mijn verhalen te vertellen. Anders zal niemand ooit weten wat er gebeurd is. Ik ben een actieve activist. Als ik jong was geweest zou ik al het mogelijke gedaan hebben."

(Yong Soo Lee, Dignity and Human Rights to the Grandmothers, DVD geproduceerd door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출처 : 나눔의 집

10여 명의 '위안부' 생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나눔의 집'의 모습.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 불교단체가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를 각기 서울과 경기도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House of Sharing waarin ongeveer 10 voormalige "troostmeisjes" samenwonen. Het wordt verzorgd en beheerd door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gerekruteerd door Japa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en een Boeddhistische organisatie in Seoel en in de Gyeonggi provincie als een plek van rust voor voormalige "troostmeisjes".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4년, 이라크전쟁과 한국군파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위안부' 생존자들. 특히,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에 의한 인질 성학대 사건을 접한 그녀들은 "전쟁을 하면 여자들을, 사람들을 벗겨놓고 못살게 구는 일이 발생한다"며, "그런 전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oormalige "troostmeisjes" tijdens een demonstratie in 2004 tegen de inzet van troepen in Irak. Nadat ze in het nieuws hadden gezien dat Amerikaanse gijzelaars seksueel misbruikten tijdens de oorlog in Irak, beweren voormalige "troostmeisjes" dat "oorlogen" vrouwen en andere mensen slopen en ze misbruiken en dat er daarom een einde moet komen aan dergelijke oorlogen."

(Bron: Officiële website voor De Koreaanse Raad voor de Vrouwen die door Japan gerekruteerd werden voor Militaire Seksuele Slavernij)



'위안부'로 국가에 신고하고 받은 등록증을 자신의 방 벽에 걸어놓은 김순악. 이 여성은 '위안부'로 커밍아웃하고 난 뒤 오랫동안 앓았던 병이 낫고 삶에 대한 의욕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말함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oon Ak Kim. Aan de muur in de achtergrond hang het certificaat dat ze heeft ontvangen van de Koreaanse overheid nadat ze zichzelf opgaf als voormalig "troostmeisje". Ze bekende dat ze hersteld was van een langdurige ziekte waaraan ze leed en hervond de wil om te leven nadat ze zich "onthulde" als een voormalig "troostmeisje". Dit toont aan dat ze zichzelf aan het genezen is door haar pijnlijke verleden bekend te maken.]

© 신동필



한반도의 맨 끝인 해남 땅끝마을에서 살고 있는 공점엽. 그녀는 평소에 말솜씨가 좋아 주변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과거 '위안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꼭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한다.

Gyom Yep Gong die in het drop Ddangkkeut woont in Haenam op het meest zuidelijke punt van het Koreaanse schiereiland.
Ze vermaakt de mensen om zich heen met haar scherpzinnigheid maar zegt dat ze niet kan slapen zonder alcohol wanneer ze herinnert wordt aan haar ervaringen in het "trooststation."

© 허현주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 강일출. 강일출은 2000년 중국에서 귀국하여 현재 '위안부' 생존자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해 중국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귀국했다고 한다.

Il Chul Gang die rode pepers aan het drogen is in de tuin. Ze keerde terug in 2000 uit China terug naar Korea en woont momenteel in House of Sharing met andere voormalige "troostmeisjes". Ze heeft naar verluidt haar familie in China achter moeten laten en terug moeten keren naar Korea zodat ze de "troostmeisjes" beweging kon steunen."

© 허현주



유머감각이 풍부해 항상 주변사람들을 잘 웃겼던 김순덕. 그녀는 영화배우로, 화가로, 운동가로 정력적으로 활동하다가 2004년 6월 30일 생을 마감하였다.

Soon Duk Kim wilde altijd al mensen over de hele wereld vermaken met haar gevoel voor humor. Ze stierf op 30 juni 2004, ze leed een actief leven als actrice, schilderes en activist.

© 허현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거 반성과 '위안부' 문제의 해결

Introspectie van het verleden en de oplossing van de "troostmeisjes" kwestie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생산하고 체계화한 시스템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전쟁승리와 국익옹호를 명분으로 국가가 직접 성노예 제도를 고안하고 관리했다는 점에 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던 '위안소' 제도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최대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수면으로 떠오르고 국제적 공감을 얻어간 과정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가해자에게 너그러움으로써, 전쟁과 그로 인한 약자의 피해에 무관심함으로써, 그 가해에 동참해 왔다는 반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직면하고 그 해결에 노력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가 있다. 평화로운 미래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Het "trooststation" systeem van het Japanse leger was een systeem dat geweld tegen vrouwen produceerde en systematiseerde. De essentie van de "troostmeisjes" kwestie is dat de staat zelf direct betrokken was in het ontwerpen en beheren van een systeem van seksuele slavernij in de naam van het winnen van de oorlog en ter ondersteuning van nationale belangen. Het "trooststation" systeem dat de rechten van vrouwen heeft geschonden voor Japan's overwinning in de oorlog kan gezien worden als de meest ernstige vorm van geweld tegen vrouwen door de staat.

Het proces waarin de "Troostmeisjes" kwestie naar het oppervlakte van geschiedenis werd gebracht en langzaamaan een internationale consensus opbouwde begin jaren 90 was ook een proces van realisatie dat de pijn die geleden werd door voormalige "troostmeisjes" voortgezet werd in de geschiedenis in verschillende regio's en verschillende perioden.
Het was ook een proces van introspectie dat we tactisch deel hebben genomen in het aanrichten van dergelijke pijn door onverschillig op te treden naar de schade die aangericht is aan slachtoffers en door genereus te zijn tegen de daders.
Dit maakt het belangrijk om de "troostmeisjes" kwestie direct aan te pakkenen en om ernaar te streven het op te lossen. Een vredige toekomst kan alleen gecreëerd worden door oprechte introspectie en zelfonderzoek.

‘위안부’ -끝나지 않은 역사

‘Comfort Women’ - An Unfinished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의 전쟁
Oorlog in Nederlands-Indië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 직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전쟁에 휩쓸려 들었다. 1942년 1월 11일에 일본군 제1차 부대가 보르네오섬의 북동쪽에 있는 타라칸과 셀레베스섬의 최북단의 도시 메나도에 상륙했다. 적군의 전투 병력은 급진적인 속도로 전진을 계속한 나머지 1942년 3월 초 어느 밤 일본군 제16차 부대가 자바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

일본은 아시아의 영도 국가로서 아시아 민족을 식민주의자들로부터 '해방' 시켜 대동아시아에 번영을 꾀한다는 기치아래 먼저 지배 세력인 네덜란드의 영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모든 네덜란드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그들의 모든 가산과 재산이 압류되었다. 그밖에도 네덜란드어 교육과 사용 금지, 일본군에게 대한 복종의 목례, 일본 국기 게양, 달력 개편 등등 일제의 강압은 일상생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나아가서 타국 출신의 다른 유럽인들에게는 일본인들과 동조할 것을 강요하였다.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지 몇 달이 지나자마자 연합국 출신의 국민들이 포로로 체포되었는데, 그 첫째 대상자들은 행정계와 상업계에서 활동하던 주요 인사들이었고, 연이어 17세와 60세 사이의 유럽 출신의 모든 평민 남자들, 아낙네들의 순서로 수용소의 억류 생활이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대한 소식이 열흘 후에야 수용소에 알려졌고, 이는 곧 혼란기로 이어졌다. 이 같은 권력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의 몇몇 집단들이 네덜란드 신세력에 항거하는 사건들이 속출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이윽고 1947년에야 마지막 억류자가 수용소를 떠나게 되었다.

출처: Y. Verheyen, 2005, 『전쟁 목격자들』, 헤이그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8~9쪽

Direct na de aanval op Pearl Harbor, op 7 december 1941, raakte Nederlands-lndië in oorlog met Japan. Op 11 januari I942 landden de eerste Japanse troepen bij Tarakan, in het noordoosten van Borneo en bij Menado, de meest noordelijke stad op het eiland Celebes. De vijandelijke strijdkrachten rukten in snel tempo op en in de nacht van maart 1942 landde het 16de Japanse leger op Java.

De strijd duurde kort; op 7 maart 1942 was de capitulatie van iet Koninklijk Nederlands Indisch Leger (het K.N.I.L) een feit en viel heel Nederlands-lndië onder het gezag van de lapanse bezetter. De verslagen KNIL-eenheden werden krijgsgevangen gemaakt.
Japan beschouwde zichzelf als de superieure leider van le Aziatische volkeren. Het zou de 'Groot Oost-Aziatische
Welvaartssfeer' verwezenlijken en de landen in Zuid- Oost-Azië "bevrijden" van hun koloniale

overheersers. Om dit streven ook in Nederlands-Indië te realiseren, moesten de Nederlandse invloeden aldaar worden uitgebannen en werden alle Nederlanders geïnterneerd. De Japanners probeerden de Indo-europeanen tot samenwerking te dwingen om zo een nieuwe welvaartssfeer te creëren. De bezetter vaardigde een aantal strenge maatregelen uit en voerde een waar schrikbewind dat in de loop van de bezetting allengs verergerde. Huis en haard werden zonder enige compensatie geconfisqueerd; salarissen en pensioenen werden niet meer uitbetaald. Onderwijs in en gebruik van de Nederlandse taal werden verboden. Voor iedere Japanner moest te allen tijde worden gebogen. De Japanse vlag moest verplicht in top. Ook de christelijke jaartelling werd afgeschaft en de Japanse jaartelling en tijd ingevoerd - zo werd het jaar 1942 ineens het jaar 2602.

Binnen enkele maanden na de Japanse invasie van Nederlands-Indië begon de bezetter met het interneren van gealieerde onderdanen. Na de krijgsgevangenen werden allereerst de prominenten uit de bestuurs- en zakenwereld geïnterneerd, vervolgens alle overige mannen van 17 tot 60 Europese komaf en tenslotte de vrouwen, kinderen mannen. De Indo-europeanen bleven aanvankelijk buiten de kampen om werkzaamheden uit te voeren die vooralsnog niet door Japanners of andere Aziaten worden overgenomen.

Nadat op 6 en 9 augustus respectievelijk Hiroshima en Nagasaki met atoombommen waren vernietigd, volgde op 15 augustus 1945 de capitulatie van Japan. Het duurde nog zeker tien dagen voordat de bezetter dit in de kampen bekend maakte. Voor vele geïnterneerden kwam het abrupte einde van de oorlog geen dag te laat. In het gezagsvacuüm dat op de oorlog volgde, namen grote groepen Indonesiërs de gelegenheid te baat tegen een nieuw Nederlands gezag te rebelleren. De opstand was zeer gewelddadig en maakte een verlenging van het verblijf in de kampen noodzakelijk; de geallieerden hadden Japan opgedragen de kampen te bewaken en de bewoners tegen de opstandelingen te beschermen. In deze zogenoemde Bersiapperiode werden, buiten de kampen, vele Nederlanders en Indo-europeanen alsnog gedood of voor het leven getekend. Ook kwam het voor dat mensen door het pas opgerichte Indonesische leger
alsnog werden geïnterneerd. Pas in de loop van 1947 konden de laatste geïnterneerden het kamp verlaten.

Bron: Yolande Verheyen (red.), Ooggetuigen van Oorlog,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Den Haag 2005, pp. 8-9.

포로병과 강제노동
Krijgsgevangenschap en dwangarbeid

태평양전쟁 중 11만4천5백 명 정도의 연합군이 일본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붙잡혔다. 그 중에서 네덜란드 국적을 지닌 포로병은 약 4만2천2백 명에 이른다.

억류 생활을 하면서 대략 포로 5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 주요 원인은 수용소 내에서의 잔인한 규율과 폭력 행사 때문이었다. 포로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된 포로 대우에 관련된 제네바협약에 일본은 일찍이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942년 일본은 연합군에게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을 통고해 왔지만, 그 몇 달 후 일본의 토요 총리는 제네바협약을 무시한 채 포로를 학대하도록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굴욕적인 강제노동을 요구하였다. 탈출을 기도한 자들에게는 흉측한 방법으로 교수형을 집행하여 상당한 수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망했다.
1943년에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자들은 일본 혹 파칸바루, 버마(미얀마), 태국 등지의 일본의 점령 하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수송되었다. '지옥선' 이라 불릴 정도로 가축우리처럼 비좁고 불결했던 수송선에 실려 가는 중 식량과 식수 부족, 전염병 등으로 초주검에 이르러 결국 목숨을 잃은 포로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으며, 연합군의 공중폭격으로 배가 파선 내지 침몰되기도 하여 총 4천 여 명에 달하는 네덜란드 포로들이 수송 도중 사망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포로병들은 각지에서 끌려온 다른 포로들과 함께 군수공장, 항만, 광산 등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다. 주로 철도, 공항, 도로 건설에 고용되었으며 공사 도중 중노동에 지쳐 쓰러진 자가 많았고, 그밖에 기아와 전염병, 수용소의 위생 시설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포로병들뿐만 아니라 억류된 민간인들과 아이들도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수용소의 일본 그리고 수용소 간수들의 무단 학정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초도 심했으나, 만리타국에 떨어져 있는 외로움, 연합군 폭격에 대한 공포 등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 역시 적지 않았다. 특히 군수공장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이 전략상 중요한 지역에서 작업해야 했던 억류자들은 연합군의 폭탄에 죽던지 아님 연합군의 기습을 대비한 일본인의 손에 죽게 될 거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야 했다.

출처 : Y. Verheyen, 2005, 『전쟁 목격자들』, 헤이그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10~11쪽

In de Tweede Wereldoorlog zijn naar schatting zo'n 141.500 geallieerde militairen krijgsgevangen genomen door het Japanse leger. Daarvan hadden er ongeveer 42.200 de Nederlandse nationaliteit.

Circa 1 op de 5 krijgsgevangenen stierf tijdens gevangenschap. Hoofdoorzaak hiervan is het wrede

en gewelddadige regime in de krijgsgevangenkampen. Verondersteld wordt dat de Japanse normen ten aanzien van eer een van de redenen hiervoor is. Een strijder mag zich nooit overgeven, maar hij moet strijdend ten onder gaan of anders zelfmoord plegen. Vanuit dit perspectief gaven de Japanners met de slechte behandeling uiting aan hun minachting voor de geallieerde militairen die zich immers hadden overgegeven. Een mogelijke verklaring, die het brute regime en de vele massamoorden, zowel door leger als marine, echter geenszins rechtvaardigt. In de Conventie van Genève staat met betrekking tot de behandeling van krijgsgevangenen dat zij niet als dwangarbeiders te werk gesteld mogen worden. Japan heeft dit verdrag weliswaar ondertekend, maar nooit geratificeerd. Eind januari 1942 zegde Japan de geallieerden toe dat het zich aan de gestelde regels zou houden. Het bleek een loze belofte, want slechts enkele maanden later bepaalde minister-president Tojo dat de krijgsgevangenen niet conform de regels van de Geneefse Conventie mochten worden behandeld. Ze werden zelfs gedwongen vernederende arbeid te verrichten. Op ontvluchting of een poging daartoe werd de doodstraf gezet; een lot dat vele Nederlandse krijgsgevangenen was beschoren. De slachtoffers werden op beestachtige wijze geëxecuteerd - hetzij door onthoofding, hetzij door terechtstelling met bajonet.



출처 : Y. Verheyen. 2005. 『전쟁 목격자들』. 헤이그: 일본명예채무측구재단

In de loop van 1943 werden de krijgsgevangenen op transport gezet naar werkkampen in Nederlands-Indië en andere, door Japan bezette gebieden. Berucht waren de zeetransporten naar bijvoorbeeld Pakanbaroe, Japan, Birma, of Thailand. Opeengepakt in ongeventileerde, donkere ruimen waarin soms niet eens stahoogte was, moest men zien te overleven. Er was een groot tekort aan voedsel en vooral aan water. Infectieziekten

hadden al snel vrij spel. Niet voor niets werden de schepen 'heil ships' genoemd. Veel krijgsgevangenen zijn verdronken of als vermist opgegeven nadat hun schip tot zinken was gebracht door de geallieerden, die niet wisten dat zich krijgsgevangenen aan boord bevonden. Bij diverse scheepsrampen zijn circa vierduizend Nederlandse slachtoffers gevallen.
Eenmaal op de plaats van bestemming werden de krijgsgevangenen samen met enkele honderdduizenden romusha's (Aziatische dwangarbeiders), onder wie veel Indonesiërs, onder onmenselijke omstandigheden tewerkgesteld. Het betrof zeer zware arbeid in fabrieken, havens en mijnen. Vele krijgsgevangenen werden ingezet - en stierven - bij de aanleg van spoorwegen, vliegvelden en wegen. Werktijden van twaalf uur waren geen uitzondering en de vereiste arbeidsquota waren verre van realistisch. Voorts werd de krijgsgevangenen vaak eten onthouden. Men at daarom alles wat maar enigszins eetbaar was zoals honden, katten, ratten, slangen, kikkers, hagedissen en slakken. Een groot percentage krijgsgevangenen bezweek door honger. De kampen waren totaal vervuild. Vlooien, luizen en ander ongedierte waren er in overvloed en ziektes als malaria, beriberi, dysenterie, cholera (Birma-spoorlijn) en longontsteking (Japanse mijnen) kwamen veelvuldig voor. Medicijnen werden mondjesmaat of in het geheel niet verstrekt.

Behalve krijgsgevangenen werden ook burger mannen en soms kinderen ingezet voor het verrichten van dwangarbeid. Dit betekende niet alleen fysieke onderwerping aan het harde regime van de Japanse en legerkamp bewakers - het betekende ook in psychisch opzicht een ware aanslag. Allereerst was er de diepe eenzaamheid, vooral als men naar verre oorden was afgevoerd. Dan was er de angst voor bombardementen van de geallieerden; de dwangarbeid in de oorlogsindustrie en aan de infrastructuren hield immers in dat gewerkt moest worden aan strategische doelen. Tenslotte leefde men in de afschuwelijke wetenschap dat allen bij een eventuele invasie van de geallieerden door de Japanners zouden worden geëxecuteerd.

Bron: Yolande Verheyen (red.), Ooggetuigen van Oorlog,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Den Haag 2005, p. 10

인도네시아에서 강제 매매춘과 성폭행

Gedwongen prostitutie en seksueel geweld in Nederlands-Indië

인도네시아 전역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한 일본군은 그곳에 주둔한 일본 군인들과 일본 민간인들을 위해 강제 매매춘을 조직화하였다. – 주로 한국을 위시하여 중국,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의 – 약 2십만 명의 (미혼) 여성을 허위 구실을 내세워 모집하였다. 그 가운데는 네덜란드 여성들과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피가 섞인 혼혈 여성들도 있었다.

널리 알려진 사례는 스마랑의 일본군 공창가이다. 일본군 제16부대 총사령부는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원자들만 일하도록 한다는 조건 아래 유곽의 설립을 공인했다. 그러나 그건 명색일 뿐 일본인들은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944년 2월 일본 장교들이 스마랑에 있는 일본의 거주민 사무소의 직원 몇 사람을 거느리고 스마랑과 암바라와에 있던 수용소 4군데를 방문했다. 공창가를 세우는데 필요한 35명의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물색하여 징용해 가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는 어떤 사무실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속이거나, 아니면 설명 같은 건 아예 한마디 붙이지 않은 채 (또 수용소의 나머지 억류자들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무릅 쓰고) 그들은 유곽으로 강제 수송되었다. 거기에 도착한 그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스마랑 클럽, 소코 클럽, 히노마루와 푸타바소 같은 공인매음업소 중의 하나로 보내졌다.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의 결사적인 반항에 일본인들은 그들의 고집을 피울 경우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수용소에 남은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스마랑 강제 매매춘 사건' 으로 알려진 소송 사건에서 이 일에 관여된 피고인들의 한 사람이었던 오카다 육군대령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1948년 11월 17일 처형되었다. 다른 피고인들은 2년에서 20년간의 징역형을 받았다.

일본인들의 성폭행은 공창가를 벗어나서도 만행되었는데, 강제수용소에 있는 부녀자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겁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출처 : Y. Verheyen, 2005, 『전쟁 목격자들』, 헤이그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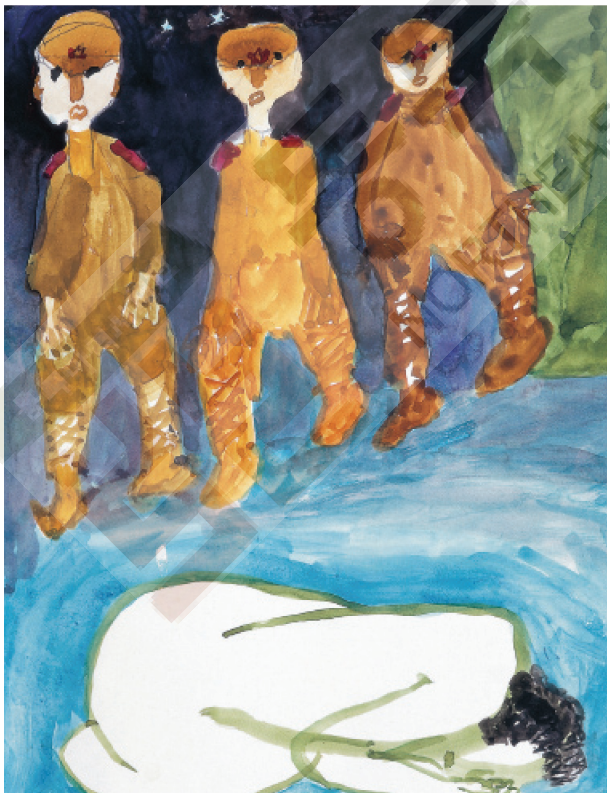
Tijdens de Japanse bezetting organiseerde de Japanse krijgsmacht in Nederlands-Indië gedwongen prostitutie ten behoeve van de Japanse militairen en burgers aldaar. In totaal werden ongeveer 200.000 vrouwen en meisjes - voornamelijk afkomstig uit Korea, China, de Filippijnen en Nederlands-Indië - voor legerbordelen geronseld. Onder hen waren ook vrouwen en meisjes van Nederlandse en Nederlands-Indische komaf.

Bekend is de zaak rond de oprichting van legerbordelen in Semarang. Het hoofdkwartier van het 16e Leger had hiervoor toestemming verleend op voorwaarde dat er alleen vrijwilligsters zouden werken, die vooraf schriftelijke toestemming hadden gegeven. De Japanners hebben hieraan echter geen gehoor gegeven. In

februari 1944 bezochten Japanse officieren vergezeld van een of meer ambtenaren van het Japanse Residentiekantoorte Semarang de kampen Gedangan en Halmaheira in Semarang en de kampen 4 en 6 in Ambarawa om vijfendertig jonge vrouwen en meisjes uit te zoeken voor de op te richten bordelen. Onder het voorwendsel dat zij kantoorwerk zouden moeten doen of simpelweg zonder enige uitleg werden zij daarna - ondanks de vele protesten van de overige kampbewoonsters - afgevoerd naar Semarang. In deze stad werden zij in vier groepen opgesplitst en afzonderlijk naar één van de vier bordelen gebracht: Semarang-Club, Shoko-Club. Hinomaru en Futabaso.

De eerste dagen, toen de vrouwen en meisjes zich wanhopig verzetten, speelden zich dramatische taferelen af. Nadat de Japanners met represaillemaatregelen dreigden tegen familieleden in de kampen, als zij bleven weigeren hun Japanse bezoekers te ontvangen, gaven zij hun verzet op. Eén van de beklaagden, Kolonel Okada, is voor zijn aandeel in wat wordt genoemd de "Semarangse dwangprostitutie affaire" ter dood veroordeeld en op 27 november 1948 geëxecuteerd. Andere betrokkenen kregen straffen variërend van twee tot twintig jaar.

Vanaf begin jaren negentig wordt middels internationale campagnes geprobeerd de Japanse overheid te dwingen tot het betalen van compensatie en het aanbieden van excuses. In 1998 deed een Japanse rechtbank een uitspraak in het voordeel van drie Zuid-Koreaanse vrouwen, die een klacht hadden ingediend tegen Japan. Het Hooggerechtshof in Hiroshima verwierp de beslissing echter. Het argument luidde dat de Japanse regering de vrouwen geen compensatie hoefde te betalen, omdat alle schadeloosstellingen waren geregeld bij de vredesverdragen - het vond de oorlog daarmee officieel beëindigd. Geen van de andere rechtszaken was succesvol.



출처 :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장품

Het lot van deze vrouwen, eufemistisch "troostmeisjes" genoemd, is tekenend voor de seksuele misdaden die de Japanners hebben begaan. Maar ook buiten deze legerbordelen vergrepen de Japanners zich, zowel in als buiten de interneringskampen, aan vrouwen en kinderen. Na de oorlog zwegen de slachtoffers uit schaamte. Daardoor kwamen deze misdaden pas na tientallen jaren aan het licht.

Bron: Yolande Verheyen (red.), Ooggetuigen van Oorlog,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Den Haag 2005, p. 76.

엘리 코리 환 데르 푸르흐
Ellen Corry van der Ploeg

1923년 1월 14일 헤이그에서 출생. 전쟁 이력 : 할마헤이라 섬와 챤디 수용소에 억류
Geboren op 14 januari 1923 te s-Gravenhage Oorlogsverleden: Geïnterneerd in Halmaheira en Tjandi

1942년 우리 가족은 짐차에 실려 수라바자로 수송되었다. 거기 역전에 도착해 작렬하는 햇빛 아래에서 우리는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만 했다. 연이어 짐짝처럼 찻간에 선적되어 스마랑으로 향하는 고역스런 열차여행을 치렀다. 그곳 스마랑 수용소에서 나는 일본인들의 정신 상태와 사고방식을 알게 되었다.

할마헤이라 수용소에 억류된 우리 가족은 매일 온갖 노역 일에 동원되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5명의 일본군 고관이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여자들을 집합시킨 다음 3일 동안의 선발 과정을 거쳐 마침내 14명의 여자를 뽑았다. 병원과 사무실에 일하게 될 거라는 언질과 함께 챤디로 수송되었다. 거기서 다시 타지에서 뽑혀 온 10명의 다른 여자들과 합류하여 스마랑의 상류층 거주 지역에 있는 '일자리' 로 옮겨졌다.
그곳은 일본 장교들을 위한 공창가였다. 흠잡을 데 없는 군복 차림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회석에서 차와 술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강압하였다. 게다가 우리는 그들의 성욕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다. "그들에게는 쾌락의 집이었고, 우리에게는 공포, 수치 그리고 슬픔의 지옥이었다." 나는 3개월 후의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옥에서 풀려나 수용소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차후 공창가의 생활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한 일인 양 위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해방 후 나머지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는 그간 세상을 떠나셨음이 밝혀졌다. 1992년의 얀 러프-오헤른의 첫 증언에 감동되어 다 같이 우리가 겪은 진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탄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자기 친자식들에게도 여태껏 숨겨온 비밀을 이제 와서 만천하에 노출시킬 수 없다면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 후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의 협조 아래 나의 체험담을 책으로 엮었으며 제네바 등지에서의 법정에 증인으로 등장했다.
자기반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일본인 자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2001년 일본 정부가 성폭행을 당한 네덜란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거절했다.

출처 : Y. Verheyen, 2005, 『전쟁 목격자들』, 헤이그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80쪽

In de lente van 1942 werd ons gezin in open vrachtwagens afgevoerd naar Soerabaja. We moesten uren wachten op een perron in de brandende zon. Daarna volgde een slopende reis in een afgeladen trein naar Semarang. Er was geen water, geen dokter. Je had schrik en angst, omdat je niet wist wat je boven het hoofd hing. Daar heb ik de geest en mentaliteit van de Japanner leren kennen.

Alleen maar luisteren, dat zat er gauw in, want ze mepten er vrolijk op los. Ze hadden van die grote, lange laarzen. Dat boezemde angst in. Als je leven je lief was, hield je je mond. We kwamen in het kamp Halmaheira terecht waar we met drieduizend vrouwen en kinderen opeen zaten gepakt. Ik sliep met mijn moeder en mijn zusje in een kamer met vier anderen op een grote paardendeken, de koffer met kleren aan het voeteneind. Alle vrouwen moesten klusjes doen. Ik zag zoveel rottigheid, pijn en verdriet dat mijn gevoelsleven afstompte. Op een dag, toen we twee jaar in het kamp zaten, moesten alle meisjes en vrouwen van vijftien tot dertig jaar zich verzamelen. We moesten paraderen voor vijf hoge, Japanse militairen die - op een verhoging gezeten - ons keurden. Drie dagen lang. Elke dag vielen er een paar af; de allerjongste en de minst mooie meisjes. Op de derde dag was de groep van veertien meisjes en vrouwen compleet. Er werd ons verteld dat we nodig waren voor werk in een ziekenhuis en op kantoor en ik twijfelde er niet aan dat ze de waarheid spraken. We werden naar Tjandi gebracht waar ook tientallen meisjes uit andere kampen naartoe waren gebracht. Van daaruit werden we naar onze "werkplekken" gestuurd. Ik kwam terecht in een chique dokterswijk in Semarang.

Mijn werkplek was echter niet in een ziekenhuis of kantoor, maar in een bordeel voor Japanse officieren. Voor hen was het een huis van plezier, voor ons een hel van angst, schaamte en verdriet. Wat wist ik nu van seks? Onder dwang moesten we wat theedrinken of borrelen met de Japanners in hun smetteloze uniformen. En we moesten ze seksueel bevredigen. Sommigen vrouwen verzetten zich. Ik kon dat niet opbrengen. Mijn eerste en geregeld terugkerende klant was een Japanse majoor, die thuis een gezin had en mij daar zelfs foto's van liet zien. In het bordeel hingen posters met de instructie dat klanten altijd een condoom moesten gebruiken. Ik heb nooit gekeken of ze dat ook werkelijk deden. Ik ging op bed liggen en het enige wat ik deed, was bidden dat het geen pijn zou doen en gauw afgelopen was. Daarna snel naar de badkamer om mezelf schoon te maken. Er kwam ook regelmatig een dokter om te kijken of je clean was. In het bordeel droeg ik een witte jurk met varens. Ik waste hem elke dag. Ook zelf wilde ik steeds baden, zo vies voelde ik me. Ik hield het vol door buiten mezelf te treden en mijn gevoel uit te schakelen. Na drie maanden zijn we van de ene op de andere dag vrijgelaten en naar het kamp teruggebracht. In de bus heb ik het varenjurkje uit het raam gegooid, als was het besmet. Later bleek dat ik een geslachtsziekte had opgelopen. Terug in het kamp kon ik er moeilijk over vertellen. Dat hoefde ook niet, want iedereen wist het al. Een paar maanden later werden mijn moeder, zus en ik overgebracht naar Kota Paris. Daar woonden ook vrouwen die zich vrijwillig als prostituee hadden aangeboden. Zo wilden de Japanners laten zien dat wij het ook vrijwillig hadden gedaan.

'VOOR HEN WAS HET EEN HUIS VAN PLEZIER, VOOR ONS EEN HEL VAN ANGST EN VERDRIET'

Na de bevrijding werden we tot onze grote vreugde met mijn broer herenigd, maar hoorden wij ook dat vader was omgekomen toen zijn konvooi met krijgsgevangenen op zee was getorpedeerd door de Britten. Zijn laatste levensteken, een oude briefkaart, heb ik bewaard. Na de Bersiapperiode zijn we in het najaar van 1946 op de boot naar Rotterdam gestapt. In Nederland heb ik heel lang gezwegen over mijn verleden.

Wel dacht ik er vaak aan en huilde ik veel. Pas later, toen ik alles aan mijn huisarts had verteld, legde hij mij uit dat dit de oorzaak van mijn kwalen en klachten was. Het heeft bijna vijftig jaar geduurd voor het zwijgen publiek werd doorbroken. De Nederlandse Jannie Ruff-O'Herne was in december 1992 de eerste Westerse vrouw die haar mond open deed tijdens een proces van Koreaanse troostmeisjes, die de Japanse regering aanklaagden. Ik vond het dapper en vond dat we allemaal naar buiten moesten treden, maar mijn vriendinnen wilden niet. Sommigen hebben het zelfs hun kinderen niet verteld. Mijn verhaal werd opgetekend in het boek 'Gevoelloos op bevel'. Ik hield lezingen in Genève en Berlijn en stond twee keer voor het Gerechtshof in Japan, als getuige in een proces van de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om een schuldbekentenis en schadeloosstelling van de regering te krijgen. Elke keer als ik een oudere Japanner tegenkwam, dacht ik: dit is iemand die mijn vader vermoord kan hebben. Ik ergerde me aan het Japanse volk om zijn gebrek aan zelfkritiek en verantwoordelijkheidsgevoel. Daarom heb ik het geld afgeslagen dat de Japanse regering in 2001 aan de Nederlandse slachtoffers van gedwongen prostitutie uitkeerde. Ik ben naar voren gekomen om te laten zien watje kan overkomen én met de hoop dingen te veranderen, want het lijkt wel of men er de ogen voor wil sluiten: dat er in elke oorlog weer vrouwen -en kinderen - worden verkracht. [geschreven door Tonnie van der Meel]

Bron: Yolande Verheyen (red.), Ooggetuigen van Oorlog,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Den Haag 2005, p. 80.



출처 : 나눔의 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소장품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7년 네덜란드 '위안부' 결의안
Nederlandse resolutie over troostmeisjes in 2007

Voorzitter. In eerste termijn hebben wij uitgebreid gesproken ove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Ook de minister is daar in zijn eerste termijn op ingegaan. Ik dien daarom een motie in namens alle woordvoerders in deze Kamer.

De Kamer, gehoord de beraadslaging, overwegende dat Japan een strategische Partner in Azië is, waarmee Nederland al 400 jaar betrekkingen onderhoudt, waarvan 150 jaar diplomatieke in 2008, en waarmee ons land een gemeenschappelijke toekomst gestalte wil geven; Is van mening dat Japan zonder enige terughoudendheid in het openbaar haar volle verantwoordelijkheid moet nemen voor het systeem van gedwongen prostitutie, zoals dat in de jaren voor en tijdens de Tweede Wereldoorlog werd gehanteerd, en voor het leed dat daarbij aan de zogenoemde troostmeisjes is aangedaan en waarover geen twijfel kan en mag worden opgeworpen; constaterende dat de Japanse regering door middel van de zogenaamde Kono-verklaring uit 1993 weliswaa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heeft erkend, haar spijt tegenover de slachtoffers heeft betuigd en met deze verklaring die verantwoordelijkheid heeft aanvaard, maar evenzeer constaterende dat de Japanse regering en Japanse Parlementariërs bij verschillende gelegenheden daarvan afstand hebben genomen, zoals blijkt uit de later herroepen uitspraken van de toenmalige premier Shinzo Abe in maart jongstleden en de advertentie van leden van het Japanse Lagerhuis in de Washington Post eerder dit jaar over hetzelfde onderwerp; kennisnemende van de brief die de voorzitter van het Japanse Lagerhuis op 7 november jongstleden in antwoord op het schrijven van de voorzitter van de Kamer van 26 juni jongstleden over de advertentie in de Washington Post heeft geschreven en waarin hij afstand neemt van de genoemde advertentie; overwegende dat bepaald lesmateriaal op Japanse scholen onvoldoende recht doet aan de erkenning van de Japanse oorlogsmisdaden, waaronder de behandeling van de troostmeisjes; overwegende dat Japan via het Asian Women's Fund aan de voormalige troostmeisjes vormen van de compensatie heeft geboden, deels gefinancierd vanuit publieke middelen, maar dat deze compensatie door een particuliere organisatie werd verleend; verzoekt de regering aan de reger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af te zien van enige verklaring die afbreuk doet aan de spijtbetuiging van 1993 en de volle verantwoordelijkheid te nemen voor de betrokkenheid van het Japanse leger bij het systeem van gedwongen prostitutie; verzoekt de regering aan de reger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een aanvullend gebaar te maken door de thans nog levende troostmeisjes een vorm van directe morele respectievelijk financiële compensatie voor het aangedane leed aan te bieden; verzoekt de regening aan de regening van Japan met klem te vragen te bevorderen dat al het lesmateriaal op de Japanse scholen een waarheidsgetrouw beeld geeft van de Japanse rol in de Tweede Wereldoorlog, waaronder het lot van de troostmeisjes, en gaat over tot de orde van de dag.

De voorzitter: Deze motie is voorgesteld door de leden Van Baalen, Van Gennip, Van Dam, Van Bommel, Wilders, Peters, Voordewind, Pechtold, Van der Staaij, Thieme en Verdonk.
Zij krijgt nr. 32 (31200-V).

De heer Van Baalen (VVD):
Voorzitter. Ik verzoek op de motie melding te maken dat de petitie die op vrijdag 2 november jongstleden door Amnesty International, het Indisch Platform en de Stichting Japanse Eerschulden aan de Kamer werd aangeboden, bij de griffie ter inzage ligt. Ik overhandig u deze petitie.

De voorzitter: Wij zullen deze petitie op basis daarvan voor eenieder ter inzage leggen.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De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SJE)'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동인도'를 강점한 일제 범행의 네덜란드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일본 정부에 명시하려는 취지에서 1990년에 발족되었다.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의 활동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의적 부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인정
2. 네덜란드 피해자를 향한 일본 정부의 사죄
3. 일제의 강점으로 초래된 네덜란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

이 재단이 발족된 직접 동기는 일본 계통의 미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억류당한 것에 대해 대가로 받은 보상이었다. 재단은 1996년 이래 유엔에 의해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인정받은 국제민간단체이다.

매달 두 번째 화요일마다 헤이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새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시위는 도의적 부채 인정 문제가 얼마나 시사성을 띤 중요 과제인가를 시사해 준다.



©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

De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is in 1990 opgericht om de Japanse overheid te wijzen op haar morele verantwoordelijkheid jegens de Nederlandse slachtoffers van de bezetting van voormalig Nederlands-Indië.

De SJE heeft tot doel:

1. Schulderkenning door de Japanse regering,
2. Spijtbetuiging van de Japanse regering aan de Nederlandse slachtoffers
3. Compensatie aan de Nederlandse slachtoffers voor het ondergane leed ten gevolge van de Japanse bezetting

De aanleiding tot de oprichting was de compensatie die de Japanse Amerikanen ontvingen van hun regering voor hun internering gedurende de Tweede Wereldoorlog. Sinds 1996 is de Stichting JES officieel erkend door de Verenigde Naties als een "Non-Governmental Organisatie" (NGO).

Elke tweede dinsdag van de maand wordt een demonstratie gehouden voor de Japanse ambassade in Den Haag, waarbij telkens een nieuwe petitie wordt overhandigd. Deze demonstraties geven aan hoe actueel het probleem van suhulderkenning is.



2009년 2~5월에 일본명예채무촉구재단이 주네덜란드 일본대사관에 제출한 탄원서

Petities van de Stichting Japanese Ereschulden aan de Amdassade van Japan, februari-mei 2009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NGO, Status Roster, ANBI status

His Excellency Taro ASO
Prime Minister of Japan

The Hague, 10 February 2009
Petition: 171
Subject: Japan show your war responsibility.

Excellency,

Japan is still, despite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difficulties, the second largest economic power in the world. Japanese initiatives or creative ideas should help the world and in particular Asia to overcome the present difficult times. In spite of your speech in Davos it appears that Japan is absent in the global debate and lacks leadership, paralyzed by bureaucratic indeciveness, avoiding responsibility and dumbstruck by political and internal disagreements. As a close follower of Japan we are amazed that Japan does not take a more innovative approach in solving the global problems, having learned from its earlier experiences in its own financial markets.

The explanation may be that Japan had it too easy, follow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in becoming the second world economic power under the protection of the United States. Nations do not forget in hard times how and why others are better off and subsequently expect from the better off that they initiate plans for others as well as for themselves. Now the time has come for Japan to show its position as an economic power by stimulating foreign economies through investing in goodwill and hardware.

The regime change in the United States is a good example of that. President Obama made it clear that history counts in considering the future. Recognize the past and accept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wrongdoings in that past. His father was denied eating in a restaurant; his son is no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apan could do likewise in recognizing the wrongdoings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o the Dutch in former Dutch East Indies during World War Two; offer a genuine apology compensating the victims for their uncalled for sufferings during the celebration the 400 year Japan-Dutch trade relations later this year.

Prime Minister,
Come forward with a plan in which you show your acceptance of your responsibility for the past and invest in the future of the Dutch export market by compensating the Dutch war victims.

Please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J.F. van Wagtendonk
President
cc United Nations: President Human Rights Council,
Dutch Government: Minister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Chairman,
American House of Representatives: Chairwoman
Dutch Govern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utch Parliament: Chairwoman,
Canadian House of Commons: Chairman.

Opgericht 4 april 1990, K.v.K. 41 156 189, NGO, status Roster
Secretariaat St. JES, Zoutmanstraat 23 x, 2518 GL Den Haag, Bereikbaar di, wo en do, van 10.00 tot 12.30 uur,
tel: 070 306 37 42, fax 070 306 23 88, stichtingjes@jesinfo.org Website www.jesinfo.org,
Postbank rek. 62 59 139, ABN-AMRO rek. 55 66 42 007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NGO, Status Roster, ANBI status

His Excellency Taro ASO
Prime Minister of Japan

The Hague, 10 March 2009
Petition: 172
Subject: acknowledge the moral obligations of Japan

Excellency,

In petition 171: "Japan show your war responsibility" the suggestion is that you come forward with a plan in which you show your acceptance of your responsibility for the past, and invest in the future of the Dutch export market by compensating the Dutch war victims. All this of course on behalf of Japan and its people.

Since that petition you have visit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ring this visit you requested the new American President Barack Obama to be aware of the need to resolve major issu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the abductions. In mentioning the abductions you sadly "forgot" to mention Japan's moral obligations regarding the Japanese Imperial Army's misconduct during World War Two. It is too simple to cry wolf about abductions and in the same breath forgetting what the Japanese soldiers did in name of the Japanese Emperor to the people of South Asia. We are sure that the American President is not forgetting Japans' violations against human rights, medical experiments (unit 731), the (sexual and labour) enslavement of millions, the deliberate systems of starvation, denying medicine and terrorizing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s in concentration camps;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Dutch in Dutch East Indies with the intent to eliminate them. It shows the inherent weakness of your arguments in seeking the American President's attention, and additionally demonstrates the total lack of sensitivity on your part in denying Japan's responsibility for its World War Two history.

Prime Minister,
The industrial position of Japan is deteriorating fast and needs to be improved quickly avoiding mass unemployment. Japan still has the resources to stimulate its exports to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oon. You will have to introduce a supplementary budget in order to secure employment and save the Japanese economy. It would show considerable statesmanship on your part to include a passage in the supplementary budget acknowledging Japans moral obligations stemming from World War Two and to come to terms with the Dutch from Dutch East Indies. Such a gesture would be an appropriate contribution in the celebration of 400 years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Netherlands and Japan.

Please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J.F. van Wagtendonk
President
cc United Nations: President Human Rights Council,
Dutch Government: Minister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Chairman,
American House of Representatives: Chair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ates of America,
Dutch Govern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utch Parliament: Chairwoman,
Canadian House of Commons: Chairman.

Opgericht 4 april 1990, K.v.K. 41 156 189, NGO, status Roster
Secretariaat St. JES, Zoutmanstraat 23 x, 2518 GL Den Haag, Bereikbaar di, wo en do, van 10.00 tot 12.30 uur,
tel: 070 306 37 42, fax 070 306 23 88, stichtingjes@jesinfo.org Website www.jesinfo.org,
Postbank rek. 62 59 139, ABN-AMRO rek. 55 66 42 007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NGO, Status Roster, ANBI ia **status**

His Excellency Taro ASO
Prime Minister of Japan

The Hague, 14 April2009
Petition: 173
Subject: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honourable obligations of Japan

Excellency,

The recent London G 20 conference was an experience never to forget. The 19 countries and the EU attending tried to find a solution for the world recession. No one was to blame, all attending were focused on a solution. Lots of politics took place in the corridors. To the world politicians were demonstrating their will and their need for change under the pretext it would never happen again. Sadly hardly any discussion took place on that other world recession: the need to accept moral responsibility and honourable resolve to rectify wrong doings of the past. Politicians cannot be bothered with these issues at this time of crises. This common explanation for ignoring these issues of moral responsibility and honorable settlement is not acceptable even if the world is in crises.

Many publications, films and exhibitions show time and again Japan's total lack of consideration of its moral obligations stemming from the cruel and unnecessary behaviour of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the Pacific War in Asia. In the name of the Emperor South East Asia was terrorized and kept as a colony for the glory of Japan. Now nearly 65 years later Japan still refuses to accept its moral responsibilities to the victims of the past terror. Apologies by Prime Ministers present and past, without parliamentarian approval and reparations, are meaningless and an insult to victims.

The G 20 gave you the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need to reconsider the historic reasons how Japan became the second economic power in the world and why every one now applauds the rise of China to the detriment of Japan. It would have been a very smart move to put Japan in a more acceptable position if it had acknowledged its moral obligation and had made the suggestion that it would make available funds for the individual victims of the past.

Please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J.F. van Wagtendonk
President
cc United Nations: President Human Rights Council,
Dutch Government: Minister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Chairman,
American House of Representatives: Chair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ates of America,
Dutch Govern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utch Parliament: Chairwoman,
Canadian House of Commons: Chairman.

Opgericht 4 april 1990, K.v.K. 41 156 189, NGO, status Roster
Secretariaat St. JES, Zoutmanstraat 23 x, 2518 GL Den Haag, Bereikbaar di, wo en do, van 10.00 tot 12.30 uur,
tel: 070 306 37 42, fax 070 306 23 88, stichtingjes@jesinfo.org Website www.jesinfo.org,
Postbank rek. 62 59 139, ABN-AMRO rek. 55 66 42 007

Stichting Japanse Ereschulden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NGO, Status Roster, ANBI ia **status**

His Excellency Taro ASO
Prime Minister of Japan

The Hague, 12 May 2009
Petition: 174
Subject: accept the historic facts and pay the individual victims of Japan's brutality by its military.

Excellency,

During your recent visit to China you urged China to follow a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In particular you stressed that both China and Japan should not become military powers that threaten each other.
The mere fact that you express concern means that you have a guilty conscience. Neither the Chinese nor the Dutch from the Dutch East Indies have forgotten what the Japanese military did to them in the name of the Japanese Emperor, both during the occupation and the invasion leading up to the occupation.

President Hu Jintao made it abundantly clear that the past is not forgotten, but that economic developments must continue in view of the world wide economic recession.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will therefore continue.

However Japan has still an honorary debt to pay to the victims of its military brutality both in China and the former Dutch East Ind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put Japan under pressure as long as Japan is unwilling to accept responsibility. Under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advisable for Japan to clear its historic errors by naming them: make a sincere apology supported by the Diet and make substantial funds available to the individual victi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sumes that Japan will ultimately settle her errors of the past as the alternative will threaten peaceful development and an unnecessary arms race between Japan and China.

Please acknowledge the receipt of this petition.

On behalf of 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J.F. van Wagtendonk
President
cc United Nations: President Human Rights Council,
Dutch Government: Minister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Chairman,
American House of Representatives: Chairwoman
President of the United Sates of America,
Dutch Government: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utch Parliament: Chairwoman,
Canadian House of Commons: Chairman.

Opgericht 4 april 1990, K.v.K. 41 156 189, NGO, status Roster
Secretariaat St. JES, Zoutmanstraat 23 x, 2518 GL Den Haag, Bereikbaar di, wo en do, van 10.00 tot 12.30 uur,
tel: 070 306 37 42, fax 070 306 23 88, stichtingjes@jesinfo.org Website www.jesinfo.org,
Postbank rek. 62 59 139, ABN-AMRO rek. 55 66 42 007

나치 독일 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Forced Sex Labour in Nazi German Concentration Camps



나치 강제수용소의 강제 성노동
Gedwongen Seksarbeid in Nazi concentratiekampen

강제수용소의 수감자 유곽은 나치 친위대가 시행한 유곽제도의 하나였다. 이 유곽은 할증표(일종의 프리미엄 쿠폰)를 지닌 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남자 포로들의 전쟁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나아가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치 친위대는 이 유곽을 통해 동성애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유곽은 주로 수용소 행정직이나 전문인력 등 특권을 가졌던 포로들이 이용하였다.

1939년부터 나치 군대를 위한 유곽이 생겼고, 1940년부터는 외국인 강제노동자, 1942년부터는 나치 친위대를 위한 유곽이 생겼다. 이 유곽들은 남자들의 성적 욕구의 출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제하며 성병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나치 이데올로기의 인종주의적 노선을 따르도록 하였다.

1942년부터 나치 친위대는 강제수용소의 여자 포로들로 하여금 포로유곽에서 매춘할 것을 강요했다. 해당자는 통상 유대계가 아닌 독일 여성들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노동계약을 어기거나 외국인 강제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되었던 여자들이었고, 다른 일부는 금지된 거리 매춘으로 붙잡힌 여자들이었다. 여기서 나치 성정책의 이중적 도덕성이 드러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매춘을 금지했지만 나치 친위대들은 대규모 유곽을 운영했던 것이다.

수용소에는 제도화된 강제 성노동 외에도 비공식적인 성적 착취도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관계의 형태를 띄었다. 이러한 성관계는 대부분 강요되거나 아니면 교환관계의 일부로서 행해졌다.

The brothels for prisoners at the concentration camps were part of a system of brothels organised by the SS. Male prisoners could visit these brothels if they had the required bonus voucher. With this system, the SS intended to offer the male prisoners an incentive for increased performance on work detail. Also, the SS apparently feared that homosexuality might spread at the camps and hoped the brothels could serve as a means of counteracting this. The prisoners who visited the brothels held privileged positions within the prisoners hierarchy and were used in the camp s administration or as skilled workers, for example.

From 1939, brothels were established for Wehrmacht soldiers, from 1940 for foreign slave labourers, and from 1942 for members of the SS. They were intended to channel male sexuality and keep it under surveillance as well as to prevent the spread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while adhering to the racist principles of National-Socialist ideology.

From 1942, the SS forced female prisoners into sex labour at the camp brothels. The sex slave labourers were usually German gentile women. Some of these women had been imprisoned for various reasons such as breach of a work contract or fraternisation with foreign slave labourers, others have been arrested for illegal prostitution prior to their imprisonment in a concentration camp. This system clearly shows the double standards of National-Socialist policies regarding sexuality. While the official goal of the German government was to eradicate prostitution, the SS was running a large-scale system of brothels.

Apart from this institutionalised form of sex slave labour at the camps, sexual exploitation also occurred on a daily basis without the direct interference of the SS. Sexual violence at the camps often took the form of sexual attacks, forced sexual relations or sexual favours as part of the barter system in place at the camps.

라벤스브뤽 기념관의 작업실 전시, 비엔나 대학의 〈전시자〉, 베를린 예술대학의 〈컨텍스트 속 예술〉 연구소와의 공동작업

수감자 유곽은 지금까지 강제수용소 역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강제적으로 성노동에 종사해야 했던 여성 포로들 또한 1945년 이후 자신들의 경험이나 유곽 이용자들(주로 독일인 남자 포로들)에 대해 침묵하였다. 나치 친위대는 남성 포로들에게 포상제도의 하나로 유곽 출입을 허용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총 10개의 강제수용소에서 여자 포로들이 강제 성노동에 종사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들 다수는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에서 징발되었다.

2005년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 성노동이 처음으로 전시회의 주제가 되었다. 이 전시는 비엔나 대학의 학생그룹 〈전시자〉가 기획한 것이었다. 이 전시를 넘겨받은 라벤스브뤽 기념관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컨텍스트 속 예술〉 연구소 그룹과 공동으로 다수의 기록 문서와 자료 모음집, 그리고 오디오 부분을 추가 보완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시회는 한결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가 저예산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실 전시라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많이 보충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성폭력은 2002년 7월 1일 국제 형법사상 최초로 명백한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자 전쟁범죄로 명명되었다.

An exhibition in progress by the Ravensbruck Memorial Museum in collabouration with Die Aussteller, Vienna and the Institute for Art in Context,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the concentration camps, the brothels for prisoners are a phenomenon that has so far received little attention. After 1945, neither the female prisoners who were forced to perform sex labour, nor the prisoners who used the brothels - male prisoners, predominantly from Germany, whom the SS allowed the visits to the brothels in the framework of a bonus system - talked about their experiences at these establishments. Between 1942 and 1945, women were forced to perform sex labour in ten concentration camps. The majority of these women were recruited at the Ravensbruck women s concentration camp.

In 2005, forced sex labour at the concentration camps became the subject of an exhibition for the first time. This exhibition was put together by Die Aussteller , a group of students from Vienna. The Ravensbruck Memorial Museum took over the exhibition and extended it in collabo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Art in Context at the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to include a number of additional documents, resource folders and audio points. Thus, visitors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e subject. The workin-progress character of the exhibition, which was produced on a shoestring budget, mirrors the current fragmentary state of research on the subject.

Since 1 July 2002,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sexual violence has been explicitly named as a crime against humanity and a war crime.

독일 라벤스브뤽 전시에 대해

2007년 1월 14일에 라벤스브뤽 기념관과 브란덴부르크 기념관 재단은 강제수용소 수감자 유곽의 강제매춘에 대한 전시를 〈나치 강제수용소의 강제 성노동〉이란 제명 하에 개최하였다. 2년 전 비엔나 대학 학생그룹 〈전시자〉는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룬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비엔나 그룹 전시는 강제수용소 마우트하우젠에 있었던 수감자 유곽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시에 대한 도록 및 자료집이 함께 출간되었다.

라벤스브뤽 기념관은 〈전시자〉의 전시 내용을 차용한 후 마우트하우젠 뿐만 아니라 그 외 9군데에 설치되었던 수감자 유곽을 함께 다루어 주제의 범위를 확충시켰다.

이 새로운 전시 콘셉트는 예술가 그룹 메모아트(memoArt)의 도미닉 후르트, 이리나 노바레스, 사베 분쉬, 잘라 운케마이어, 그리고 베를린 예술대학 〈컨텍스트 속의 예술〉 연구소의 카트야 에더만과 역사학자인 크리스틀 빅커트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이 전시는 모순에 찬 기억과 서사,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보여주려한 것이 주 목적이었다. 강제 성노동의 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금기시되어 왔으며, 피해자들에 대해 거의 전해진 것도 없으며 오늘날까지도 역사학적 연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나치 강제수용소의 수감자 유곽 위치는 아주 어렵게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현재의 구 수감자의 흔적을 담은 사진을 통해 증명하려 하였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유곽용 막사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아무런 표시도 되지 않은 잔디밭까지 이 문제를 서로 판이하게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디자이너들에게는 이 빈자리를 표시하는 것과 연구의 부족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유럽 지도에서는 나치정권의 오늘날 증명된 수용소 유곽, 나치 국방군 유곽 및 강제노동자 유곽의 배치 장소를 보여 주고있다. 그 외에 이 주제의 현재 국제적인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중국 등 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최근 유럽의 구 유고슬라비아와 코소보간 전쟁에서 벌어졌던 성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성폭력은 흔히 사진과 언론을 통한 대중화로 어느 정도 반복되고 있다. 기자나 관객은 이미 현존하는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해 본 전시 주제에 접하고 있다. 본 전시는 이 문제를 입증 · 강조하려 했다. 그러므로 기자들은 기념관에 흔히 이 전시에서 〈학대받은 여성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독일 전시에서는 실존한 강제 성노동 여성의 사진은 한 장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와 굴복으로 각인된 수용소 제도에 대해 상상적 현혹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수많은 유럽의 여자 감옥소 필름과 소위 〈성착취 영화(Sexexploitation-Films)〉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인해 본 전시에서는 가능한 한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지 않았다. 부헨발트 수용소 친위대 사진 앨범의 수감자 유곽 촬영 사진이 소수 현존하고 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실내 장식은 독일 특유의 '안락함(Gemuetlichkeit)'을 연상시킨다. 이 외에 본 전시의 특징은 비회화성이다.

Over de Ravensbrück Expositie in Duitsland

For the fragmentary material regarding the subject of forced sex labour in brothels organized by the NS state, we chose an exhibition form which allows us to integrate new research results and materials by extending the Mauthausen exhibition to a workshop exhibition.

The decision to present the exhibits on working desks on the one hand enables the visitors to approach the subject in the spirit of a researcher and on the other hand reflects the bureaucratic act with which the SS and other state institutions installed and operated the brothels.

Only few women who were forced to sex labour during the NS-period have depicted their experiences after the war. Those who agreed to giving an interview did it anonymously. We don't know of any existing contemporary images of the women and until now they did not provide us with pictures from themselves.

Forced sex labour was a taboo in the society for a long time, also in the field of work of Memorials.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popped up in numerous popular European womens' prison movies and the so called Sexploitation movies as a pornopraphic setting.

The limitation of visual representation and to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present views on the former locations of the prisoners' brothels match the state of research and avoid fulfilling voyeuristic expectations. The exhibition "Forced Sex Labour in National Socialist Concentration Camp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 성노동

독일에서 나치의 권력 장악

1933년 1월 30일 제국대통령 힌덴부르크는 나치당(NSDAP) 의장인 아돌프 히틀러를 신임 제국수상으로 임명했다. 이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을 의미했다. 히틀러의 의도는 의회의 모든 통제를 벗어난 권위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나치는 이 목표를 단시간 내에 실현시켰다. 합헌적 적법성이라는 외양을 얻은 나치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권력수단을 장악해 나갔다.

나치의 여성상과 성 및 출산정책

나치 이데올로기의 기본 요소는 '민족공동체'라는 '인종주의적' 토대와 '순수혈통'이었다. '아리안족'이 다른 '열등한 종족'들과 '혼합'되어서는 안되었다. '종족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 나치에게는 '독일 여성'의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었다.

나치 여성관의 중심은 어머니 숭배였다. '독일의 어머니'는 '같은 종족'의 '건강한 유전자를 지닌' 남자들과 후세를 생산하는데 힘써야 했다. 성행위는 이러한 목적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다. '어머니 훈장'을 수여하여 출산율을 높이려 하였다. 그 밖의 다른 정책들로 젊은 '독일인'이면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가족들을 위해 결혼 자금을 대출해주고, 피임수단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고의적으로 낙태시킨 자는 사형시키고, '독일인'이면서 '건강한 유전자'을 가진 남녀들에게 가정을 꾸려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지속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있었다.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은 계획된 침략 정치를 이루기 위한 토대였다.

'독일 민족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후세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전병'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 '독일인'과 '유대인' 그리고 '집시'에 대해 강제 불임과 낙태가 행해졌으며 '유전병'으로 간주된 정신 질환자들 역시 살해되었다.

여기서 나치의 도덕성이 얼마나 이중적인가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즉, 그들은 '독일의 어머니'라는 이상에서 빗나가거나 '아리안 민족공동체'의 존속에 위태로울 수 있는 여자들을 박해하고 낙인를 찍었던 것이다. 나치 친위대는 이들 중 대다수를 나치 국방군 유곽, 친위대 유곽, 수용소 유곽에서 성(性)-강제노동으로 유린하였다.

Gedwongen Seksarbeid in Nazi concentratiekampen

National socialists came into power

On January 30, 1933, Reich President Hindenburg appointe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NSDAP), Adolf Hitler, as new Reich Chancellor. This day marked the end of the Weimar Republic. Hitler had the intention of establishing an authoritarian government, free from any control by the Reichstag. The Nazis realized this aim within a short period. While they made it look that everything was constitutionally legitimate they selectively eliminated political opponents and took over the instruments of state power.

The NS conception of women, sexuality and reproduction

One basic element of the Nazi ideology was the "racial" rationale for the "Volksgemeinschaft", the "racial community", and the idea of a "pure race". He wanted to prevent the mixing of the "aryanrace" with other, "inferior races". Maintaining the "purity of the race" was considered as most important task for the "German woman".

The mothercult was the central aspect of the NS conception of women. The "German mother" had to take care that she would only reproduce with men of "healthy inheritance" and of "her race". Sex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strictly within this framework. One non material incentive was the mother's cross. Other measures were a marriage credit for young "German" and "hereditarily healthy" families, restrictions on contraceptives, death penalty for active abortion und permanent advertising adressed to "German", "hereditarily healthy" men and women, to found families and give birth to a lot of children. The quantitative reproduction was to be the basis for the intended occup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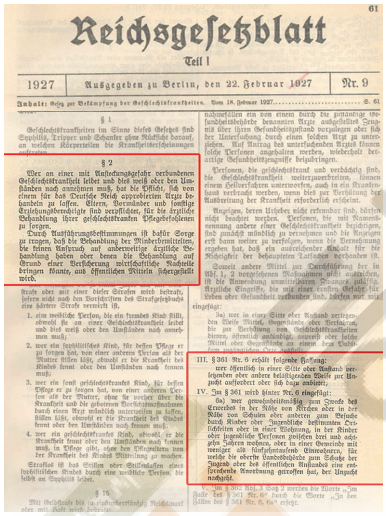
All those persons whose hereditary material could harm the German racial community, should not reproduce. Based on that rationale forced sterilizations and abortions were conducted on "Germans" who were seen as "hereditarily sick", on "Jewish" and "gypsies". Also people who were considered hereditarily mentally ill were murdered.

At this point the double morale of the Nazi regime becomes obvious: Women who did not fulfill the ideal of a "German mother" and therefore would harm the survival of the "aryan racial community" were pursued and stigmatized. Die SS misused many of these women for forced sex labour in Wehrmacht, SS and prisoners' brothels.

형법과 매춘
Strafrecht en prostitutie

나치가 만든 아래 나열한 새로운 법들은 수천 명의 여성들을 박해하고 강제수용소로 유배시킬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938년부터 이 법은 오스트리아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이에 단순한 추측 또는 밀고만으로도 구금할 수 있었다.
강제수용소에서 매춘부는 '표식(역삼각형)'을 붙여야 했고 '반사회적'인 수감자 범주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용소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하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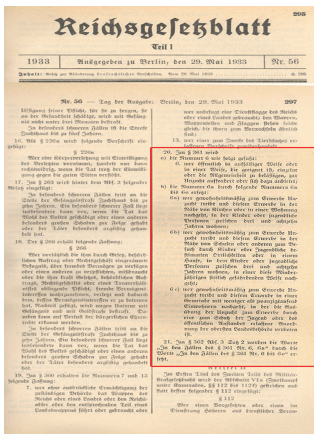
Degenen die geclassificeerd waren als "beroepscriminelen en recidivisten" konden in hechtenis genomen worden zonder de wet te hebben overtreden ("preventieve hechtenis"). De wet breidde deze maatregel verder uit zodat deze toegepast kon worden op dergelijke "antisociale" groepen zoals prostituees, alcoholisten, zwervers en "zigeuners".


Reichsgesetzblatt
Teil I
1927 | Ausgegeben zu Berlin, den 22. Februar 1927 | Nr. 9

〈매춘의 적법화〉 1927년
Legalisatie prostitutie, 1927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제정된 성병투쟁을 위한 제국법은 보건 정책상의 조치였다. 매춘은 특정한 부대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형이 면제되었다(예를 들면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사). 규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적 기록카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1933년부터 나치에 의해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박해하는데 악용되었다.

De Rijkswet ter bestrijding van geslachtsziekten die van kracht was in de WeimarRepubliek was een maatregel van het gezondheidsbeleid. Prostitutie was vrijgesteld van straf zolang voldaan werd aan bepaalde vereisten (e.g. regelmatige gynaecologische controles). Persoonlijke documenten werden ingevuld om te controleren of er voldaan werd aan de voorschriften. Vanaf 1933 werden deze documenten echter misbruikt door de Nazi's om deze vrouwen te vervol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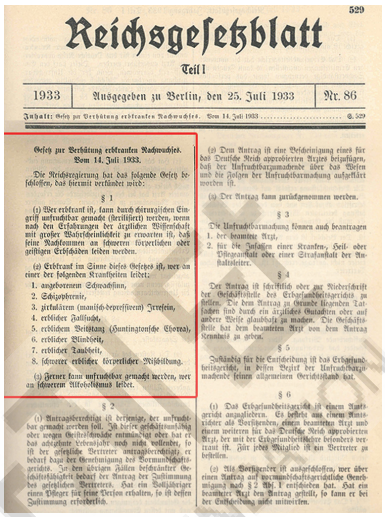

Reichsgesetzblatt
Teil I
1933 | Ausgegeben zu Berlin, den 29. Mai 1933 | Nr. 56

〈성희롱〉 1933년
Seksuele intimidatie, 1933

나치는 매춘의 개념을 확대해 입법하였다. '관습과 범절의 위반'은 더 이상 입증되지 않아도 되었으며, 단지 여성이 성희롱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많은 상대와 성교한 의심이 가는 여성들은 매춘부로 등록이 되었다.

De Nazi's breidden de definitie van prostitutie in de wetgeving uit: overtreding van gewoonten en manieren hoefde niet bewezen te worden, deelname door vrouwen aan seksuele intimidatie was voldoende. Vrouwen die verdacht werden van frequent geslachtsgemeenschap werden ook geregistreerd als prostituees.

〈도덕상의 정신박약〉 1933년
Morele verstandelijke handicap, 1933


529

Reichsgesetzblatt

Teil I

1933 | Ausgegeben zu Berlin, den 25. Juli 1933 | Nr. 86

Inhalt: 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Vom 14. Juli 1933 ..... S. 529

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Vom 14. Juli 1933.

Die Reichsregierung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das hiermit verkündet wird:

§ 1

(1) Wer erbkrank ist, kann durch chirurgischen Eingriff unfruchtbar gemacht (sterilisiert) werden, wenn nach den Erfahrungen der ärztlichen Wissenschaft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 zu erwarten ist, daß seine Nachkommen an schweren körperlichen oder geistigen Erbschäden leiden werden.

(2) Erbkrank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wer an einer der folgenden Krankheiten leidet:

1. angeborenem Schwachsinn,
2. Schizophrenie,
3. zirkulärem (manisch-depressivem) Irresein,
4. erblicher Fallsucht,
5. erblichem Veitstanz (Huntingtonsche Chorea),
6. erblicher Blindheit,
7. erblicher Taubheit,
8. schwerer erblicher körperlicher Mißbildung.

(3) Ferner kann unfruchtbar gemacht werden, wer an schwerem Alkoholismus leidet.

§ 2

(1) Antragsberechtigt ist derjenige, der unfruchtbar gemacht werden soll. Ist dieser geschäftsunfähig oder wegen Geistesschwäche entmündigt oder hat er das achtzehnte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so ist der gesetzliche Vertreter antragsberechtigt, er bedarf dazu der Genehmigung des Vormundschaftsgerichts. In den übrigen Fällen beschränkter Geschäftsfähigkeit bedarf der Antrag der Zustimmung des gesetzlichen Vertreters. Hat ein Volljähriger einen Pfleger für seine Person erhalten, so ist dessen Zustimmung erforderlich.

(2) Dem Antrag ist eine Bescheinigung eines für das Deutsche Reich approbierten Arztes beizufügen, daß der Unfruchtbarmachende über das Wesen und die Folgen der Unfruchtbarmachung aufgeklärt worden ist.

(3) Der Antrag kann zurückgenommen werden.

§ 3

Die Unfruchtbarmachung können auch beantragen

1. der beamtete Arzt,
2. für die Insassen einer Kranken-, Heil- oder Pflegeanstalt oder einer Strafanstalt der Anstaltsleiter.

§ 4

Der Antrag ist schriftlich oder zur Niederschrift der Geschäftsstelle des Erbgesundheitsgerichts zu stellen. Die dem Antrag zu Grunde liegenden Tatsachen sind durch ein ärztliches Gutachten oder auf andere Weise glaubhaft zu machen. Die Geschäftsstelle hat dem beamteten Arzt von dem Antrag Kenntnis zu geben.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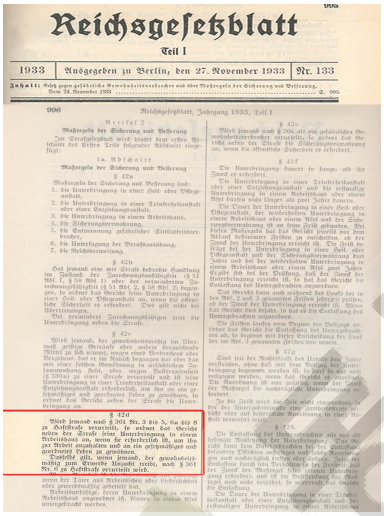
Zuständig für die Entscheidung ist das Erbgesundheitsgericht, in dessen Bezirk der Unfruchtbarmachende seinen allgemeinen Gerichtsstand hat.

§ 6

(1) Das Erbgesundheitsgericht ist einem Amtsgericht anzugliedern. Es besteht aus einem Amtsrichter als Vorsitzenden, einem beamteten Arzt und einem weiteren für das Deutsche Reich approbierten Arzt, der mit der Erbgesundheitslehre besonders vertraut ist. Für jedes Mitglied ist ein Vertreter zu bestellen.

(2) Als Vorsitzender ist ausgeschlossen, wer über einen Antrag auf vormundschaftsgerichtliche Genehmigung nach § 2 Abs. 1 entschieden hat. Hat ein beamteter Arzt den Antrag gestellt, so kann er bei der Entscheidung nicht mitwirken.

〈직업적인 범죄자와 상습범〉 1933년
Beroepscriminelen en recidivisten, 1933


Reichsgesetzblatt

Teil I

1933 | Ausgegeben zu Berlin, den 27. November 1933 | Nr. 133

Inhalt: Gesetz gegen gefährliche Gewohnheitsverbrecher und über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Vom 24. November 1933 ..... S. 995

996 Reichsgesetzblatt, Jahrgang 1933, Teil I

Artikel 2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Im Strafgesetzbuch wird hinter dem ersten Abschnitt des Ersten Teils folgender Abschnitt eingefügt:

1a. Abschnitt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 42a

Maßregeln der Sicherung und Besserung sind:

1. die Unterbringung in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
2. die Unterbringung in einer Trinkerheilanstalt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3. die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4. die Sicherungsverwahrung,
5. die Entmannung gefährlicher Sittlichkeitsverbrecher,
6. die Unterbringung der Berufsausübung,
7. die Reichsverweisung.

§ 42b

Hat jemand eine mit Strafe bedrohte Handlung im Zustand der Zurechnungsunfähigkeit (§ 51 Abs. 1, § 58 Abs. 1) oder der verminderten Zurechnungsfähigkeit (§ 51 Abs. 2, § 58 Abs. 2) begangen, so ordnet das Gericht seine Unterbringung in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 an, wen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es erfordert. Dies gilt nicht bei Übertretungen.

Bei vermindert Zurechnungsfähigen tritt die Unterbringung neben die Strafe.

§ 42c

Wird jemand, der gewohnheitsmäßig im Übermaß geistige Getränke oder andere berauschende Mittel zu sich nimmt, wegen eines Verbrechens oder Vergehens, das er im Rausch begangen hat oder das mit einer solchen Gewöhnung in ursächlichem Zusammenhang steht, oder wegen Bettlerunfugs (§ 330a) zu einer Strafe verurteilt und ist seine Unterbringung in einer Trinkerheilanstalt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erforderlich, um ihn an ein gesetzmäßiges und geordnetes Leben zu gewöhnen, so ordnet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die Unterbringung an.

§ 42d

Wird jemand nach § 361 Nr. 3 bis 5, 6a bis 8 zu Haftstrafe verurteilt, so ordnet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seine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an, wenn sie erforderlich ist, um ihn zur Arbeit anzuhalten und an ein gesetzmäßiges und geordnetes Leben zu gewöhnen.

Dasselbe gilt, wenn jemand, der gewohnheitsmäßig zum Erwerbe Unzucht treibt, nach § 361 Nr. 6 zu Haftstrafe verurteilt wird.

wenn der Täter aus Arbeitsscheu oder Liederlichkeit oder gewerbsmäßig gebettelt hat.

Arbeitsunfähige, deren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angeordnet ist, können in einem Asyl untergebracht werden.

§ 42e

Wird jemand nach § 200 als ein gefährlicher Gewohnheitsverbrecher verurteilt, so ordnet das Gericht neben der Strafe die Sicherungsverwahrung an, wen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es erfordert.

§ 42f

Die Unterbringung dauert so lange, als ihr Zweck es erfordert.

Die Unterbringung in einer Trinkerheilanstalt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und die erstmalige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oder einem Asyl dürfen nicht länger als zwei Jahre dauern.

Die Dauer der Unterbringung in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 der wiederholten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oder einem Asyl und der Sicherungsverwahrung ist an keine Frist gebunden. Bei diesen Maßregeln hat das Gericht jeweils vor dem Ablauf bestimmter Fristen zu entscheiden, ob der Zweck der Unterbringung erreicht ist. Die Frist beträgt bei der Unterbringung in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 und der Sicherungsverwahrung drei Jahre und bei der wiederholten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oder einem Asyl zwei Jahre. Ergibt sich bei der Prüfung, daß der Zweck der Unterbringung erreicht ist, so hat das Gericht die Entlassung des Untergebrachten anzuordnen.

Das Gericht kann auch während des Laufs der in den Abs. 2 und 3 genannten Fristen jederzeit prüfen, ob der Zweck der Unterbringung erreicht ist. Wenn das Gericht dies bejaht, so hat es die Entlassung des Untergebrachten anzuordnen.

Die Fristen laufen vom Beginn des Vollzugs an. Ordnet das Gericht die Entlassung des Untergebrachten an, so beginnt mit dieser Entscheidung der Lauf der im Abs. 3 genannten Fristen von neuem.

§ 42g

Sind seit der Rechtskraft des Urteils drei Jahre verstrichen, ohne daß mit dem Vollzug der Unterbringung begonnen worden ist, so darf sie nicht vollzogen werden, wenn das Gericht es anordnet. Die Anordnung ist nur zulässig, wenn der Zweck der Maßregel die nachträgliche Unterbringung erford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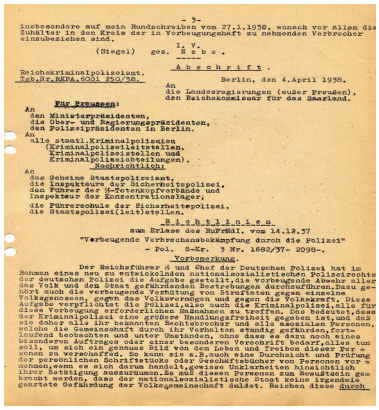
In die Frist wird die Zeit nicht eingerechnet, in der der Untergebrachte eine Freiheitsstrafe verbüßt oder auf behördliche Anordnung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 42h

Die Entlassung des Untergebrachten mit nur als bedingte Maßregel der Unterbringung. Das Gericht kann dem Untergebrachten bei der Entlassung besondere Pflichten auferlegen und seine Anordnungen auch nachträglich treffen oder ändern. Seit der Entlassung darf sein Verhalten in der Freiheit, daß der Zweck der Maßregel seine erneute Unterbringung erfordert, und ist die Bestimmung der Maßregel noch nicht verjährt, so widerruft das Gericht die Entlassung.

Die Dauer der Unterbringung in einer Trinkerheilanstalt oder einer Entziehungsanstalt und der erstmaligen Unterbringung in einem Arbeitshaus

〈예방구금〉 1937년
Preventieve hechtenis, 1937


- 3 -

insbesondere auf mein Rundschreiben vom 27.1.1938, wonach vor allem die Zuhälter in den Kreis der in Vorbeugungshaft zu nehmenden Verbrecher einzubeziehen sind.

I. V.
(Siegel) gez. N e b e .

A b s c h r i f t .

Reichskriminalpolizeiamt.
Tgb.Nr.RKPA.6001 250/38.

Berlin, den 4.April 1938.

An
die Landesregierungen (außer Preußen),
den Reichskommissar für das Saarland.

Für Preußen:

An
den Ministerpräsidenten,
die Ober- und Regierungspräsidenten,
den Polizeipräsidenten in Berlin.

An
alle staatl.Kriminalpolizeien
(Kriminalpolizeileitstellen,
Kriminalpolizeistellen und
Kriminalpolizeiabteilungen).

Nachrichtlich:

An
das Geheime Staatspolizeiamt,
die Inspekteure der Sicherheitspolizei,
den Führer der SS-Totenkopfverbände und
Inspekteur der Konzentrationslager,
die Führerschule der Sicherheitspolizei,
die Staatspolizei(leit)stellen.

R i c h t l i n i e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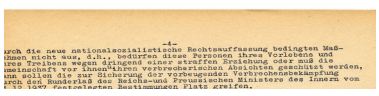
zum Erlass des RuPrädl. vom 14.12.37

"Vorbeugende Verbrechensbekämpfung durch die Polizei"

- Pol. S-Kr. 3 Nr. 1682/37- 2098-.

Vorbemerkung.

Der Reichsführer SS und Chef der Deutschen Polizei hat im Rahmen eines neu zu entwickelnden nationalsozialistischen Polizeirechts der deutschen Polizei die Aufgabe gestellt, die vorbeugende Abwehr aller das Volk und den Staat gefährdenden Bestrebungen durchzuführen. Dazu gehört auch die vorbeugende Verhütung von Straftaten gegen einzelne Volksgenossen, gegen das Volksvermögen und gegen die Volkskraft. Diese Aufgabe verpflichtet die Polizei, also auch die Kriminalpolizei, alle für diese Vorbeugung erforderlichen Maßnahmen zu treffen. Das bedeutet, dass der Kriminalpolizei eine größere Handlungsfreiheit gegeben ist, und daß sie schon alle ihr bekannten Rechtsbrecher und alle asozialen Personen, solche die Gemeinschaft durch ihr Verhalten ständig gefährden, fortlaufend beobachten und unter Umständen, ohne dass es dazu noch eines besonderen Auftrages oder einer besonderen Vorschrift bedarf, alles tun soll, um sich ein genaues Bild von dem Leben und Treiben dieser Personen zu verschaffen. So kann sie z.B. auch eine Durchsicht und Prüfung der persönlichen Schriftstücke oder Geschäftsbücher von Personen vornehmen, wenn es sich darum handelt, gewisse Unklarheiten hinsichtlich ihrer Betätigung auszuräumen. Es muß diesen Personen zum Bewußtsein gebracht werden, dass der nationalsozialistische Staat keine irgendwie geartete Gefährdung der Volksgemeinschaft duldet. Reichen diese durch


- 4 -

rch die neue nationalsozialistische Rechtsauffassung bedingten Maßnahmen nicht aus, d.h., bedürfen diese Personen ihres Vorlebens und ihres Treibens wegen dringend einer straffen Erziehung oder muß die Gemeinschaft vor ihnen ihren verbrecherischen Absichten geschützt werden, dann sollen die zur Sicherung der vorbeugenden Verbrechensbekämpfung durch den Runderlaß des Reichs- und Preussischen Ministers des Innern vom 1.12.1937 festgelegten Bestimmungen Platz greifen.

'직업범과 상습범' 으로 등급이 매겨진 사람들은 사실상 법률위반이 없어도 구금될 수 있었다('예방구금'). 더 나아가 이 법은 '반사회적' 부류인, 매춘부, 알코올중독자, 부랑자와 '집시' 에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확장시켰다.

Degenen die geclassificeerd waren als "beroepscriminelen en recidivisten" konden in hechtenis genomen worden zonder de wet te hebben overtreden ("preventieve hechtenis"). De wet breidde deze maatregel verder uit zodat deze toegepast kon worden op dergelijke "antisociale" groepen zoals prostituees, alcoholisten, zwervers en "zigeuners".

강제수용소 포로들간의 위계구조
De hiërarchische structuur onder gevangenen in concentratiekampen

1933년부터 나치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원하지 않는 그룹'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격리 수용하고 강제노동에 동원시키기 위해 강제수용소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의 강제수용소

오스트리아가 독일 제국에 '통합' 된 지 겨우 5개월 만인 1938년 8월, 나치는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를 설립했다. 마우트하우젠이 강제수용소 설립지로 채택된 것은 그곳에 화강암 채석장이 있어 수용소 포로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우트하우젠은 무엇보다 제3단계 수용소, 곧 가장 혹독한 조건을 가진 수용소로 유명했다. 1940년에는 그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역시 채석장이 있던 곳에 구젠 강제수용소가 세워졌다.

From 1933 on, the Nazis began to built a system of concentration camps throughout the entire Reich territory for imprisoning political opponents and other "disliked" groups of people and force them to labour.

The concentration camps in Mauthausen and Gusen

In August 1938, just 5 months after annexation of Austria, the SS built the concentration camp Mauthausen. The location was selected because of the nearby granite stone pits, in which the workpower of the prisoners could be exploited to the fullest. Initially Mauthausen was considered as the only concentration camp at level III, which described the hardest prison conditions. In 1940 the concentration camp Gusen was built, just a couple of kilometers away. It was also located at a stone pit.



학대, 처벌, 질병, 계속되는 굶주림과 도처에 산재한 죽음이 수용소와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일상' 이었다.

Misbruik, straffen, ziekten, constante honger en de alomtegenwoordigheid van de dood gaven het "alledaags leven" in concentratiekampen en op de plekken van gedwongen arbeid weer.

포로들의 위계구조

포로들간의 위계구조란 사회적 지위, '인종적' 기원, 종교적 선호와 그 밖의 다른 기준들에 따라 포로들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나치는 이러한 위계구조를 통해 포로 사회를 작은 단위의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나치가 목표했던 바는 포로들간에 차별을 만들어내서 서로간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포로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것이었다. 나치 친위대는 이러한 위계구조에 근거해 특혜 부여와 불이익을 가하는 차별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부포로란 강제수용소 수감자들 중에서 나치가 특정한 임무를 맡긴 포로들을 말한다. 그 결과 이들은 포로 위계구조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어떤 포로들에게는 감시 임무도 맡겨졌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억압과 폭력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이 임무를 위해 나치 친위대는 아주 폭력적인 '범죄자' 포로들을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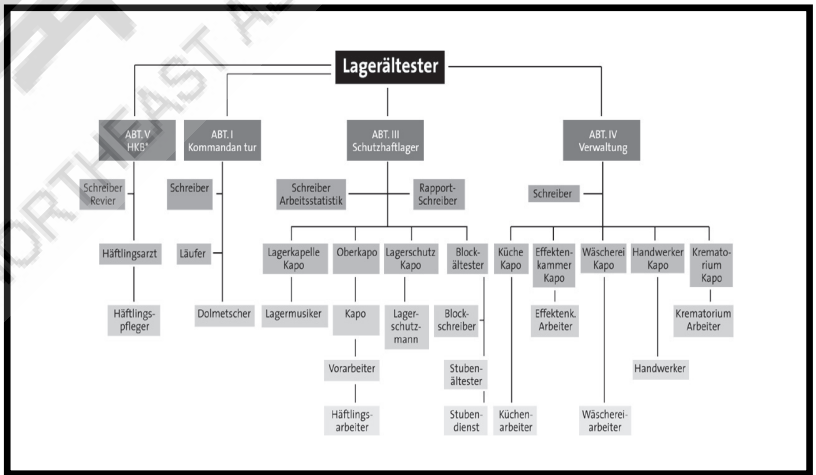
Prisoners' hierarchy

The prisoners' hierarchy was a classification regarding social position, "racial" origin, religious beliefs and other criteria. The SS divided the prisoners into smaller units. Their purpose was to create differences, to weaken solidarity and to play off the prisoners against each other. Based on the hierarchization the SS created a differentiated system of providing privileges and disadvantages.
Function prisoners were prisoners entrusted with certain functions. They therefore had a special position within the hierarchy. Prisoners were also entrusted with supervising functions and thus became part of the oppression and violence system. For these functions the SS usually entrusted "criminal" prisoners because they expected a higher acceptance towards violence from them.



나치는 이 위계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유형별 표식을 도입하였다.

De Nazi's introduceerden categoriale tekens om een dergelijke hiërarchie aan iedereen duidelijk te maken.



포로 위계구조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정 임무를 맡게된 포로는 수용소에서 보다 '더 잘', '더 쉽게' 생존할 수 있었다.

De positie die iemand had in de gevangenishiërarchie had een directe invloed op zijn of haar "dagelijkse overleving". Degenen die bepaalde functies toevertrouwd hadden gekregen, konden "beter" overleven en hadden een "makkelijker" leven in de concentratiekampen.

강제수용소 유곽의 설치와 포상규정

De bouw van concentratiekampbordelen en beloningsvoorschrif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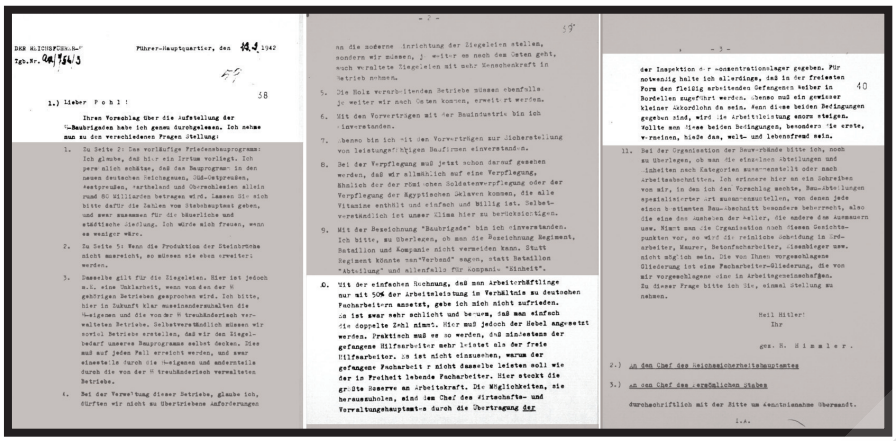
하인리히 힘믈러는 1941년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의 강제수용소를 시찰하고 난 후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을 위한 유곽을 설치할 것을 최초로 명령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용소 막사들이 개조되었다.
1942년까지 강제수용소에서의 노동은 주로 처벌이나 숙청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고 군대 징집이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군수 산업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 때부터 강제수용소 포로들은 독일 전쟁산업을 떠 맡아야 했고, 군수 산업에 종사하는 강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촉진책' 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Heinrich Himmler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camp brothels for the prisoners after visiting the concentration camps Mauthausen and Gusen in 1941. For that purpose existing barracks in the camps were rebuilt.
Until 1942 labour in the concentration camps was in the first place a means of punishment or even annihilation. With the progression of the war and the increasing enlistments by the Wehrmacht deficits in manpower occured which were especially needed in the arms industry. To counterweight this development, forced laborers were to support the German war industry. The productivity of forced laborers should be increased with "bonus incen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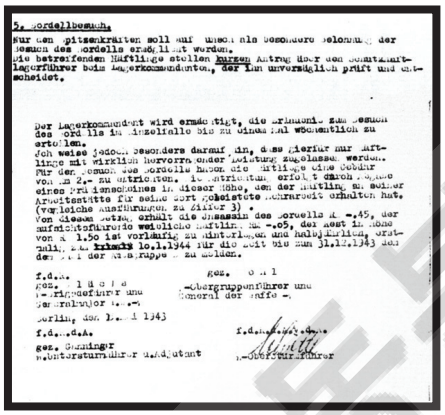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에 있는 포로유곽은 1942년 완공되었다.

De bordelen voor gevangen in Mauthausen en Gusen werden in 1942 voltooid.



힘믈러가 나치 친위대 경제부 중앙부처 최고 위원장인 오스발트 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힘믈러가 강제수용소 포로들을 나치 친위대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최대의 '비축 인력'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In een brief aan Oswald Pohl, de SS Obergruppenführer van het SS hoofdkantoor van de economische administratie bevestigde Himmler zijn plan om meer en meer concentratiekampgevangenen in te zetten in SS fabrieken. Hier zag hij de grootste reserve voor mankra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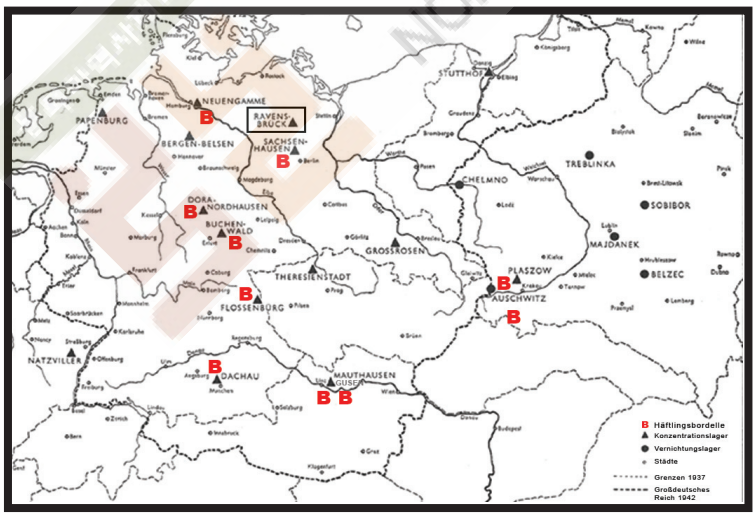
힘믈러는 포상제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1943년 5월 15일 포로들에 대한 특혜 부여를 허가한다는 규정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포상은 5단계로 부여되었다.

1. 수감기간 단축
2. 식료품 추가 지급
3. 금전적 포상
4. 담배 지급
5. 유곽 출입

Himmler's oorspronkelijke idee van een beloningssysteem werd verder ontwikkeld en leidde tot de voorschriften voor het aanbieden van privileges aan gevangenen op 15 mei 1943.
Privileges zouden volgens een 5 stappensysteem aangeboden worden:

1. **Vermindering van straffen**
2. **Extra maaltijden**
3. **Financiële beloningen**
4. **Verschaffen van tabaksproducten**
5. **Bezoeken aan bordelen**



그 후 다른 강제수용소에도 수감자 유곽이 설치되었다.

Daarna werden er meer bordelen gebouwd in andere concentratiekampen.

강제수용소 유곽에서의 '생활'
"Leven" in een concentratiekampbordeel

강제 성노동자들의 생활조건

강제 성노동 종사자들은 유곽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나은 식사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포로들의 질투 대상이었다.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의 유곽 막사에서는 보통 열 명의 여성들이 지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았던 그들은 유곽을 출입하는 남자들하고만 접촉할 수 있었다. 이 곳의 여성들은 간혹 깊은 우정을 맺는 경우가 보고되긴 하지만 이 여성들 서로 간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 그들의 '성적 노동력이 소모' 되면 그들은 새 포로들로 대체되고 라벤스브뤽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다른 작업과 노동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자주 성병과 임신중절에 시달렸으며, 심리적으로 황폐해져 있었다. 그들 중 다수가 병으로 죽거나 의학 실험용으로 이용되었고 또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되돌아왔다. 그들은 하루에 수없이 남자들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피폐되고 병들어 있었고, 몇몇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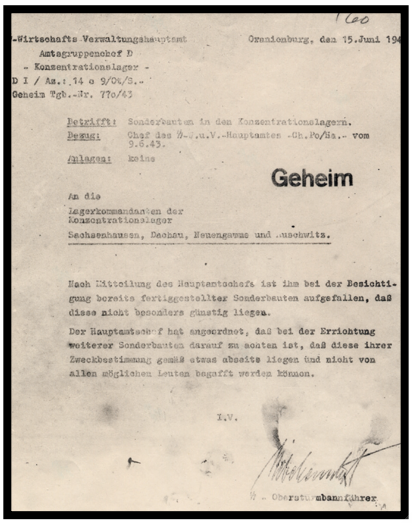
이르마 트르크삭, 라벤스브뤽 수용소의 여자 포로 생존자

Living conditions of the forced sex laborers

The forced sex laborers got more and better food in the brothel which caused jealousy under other prisoners. Usually about ten women were housed in the brothel barracks of Mauthausen and Gusen. They lived very isolated and had mostly only contact to the men who were allowed to visit the brothel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omen was mostly distanced although close friendships sometimes occured. When the "sexual manpower" was exhausted (normally after six months) they were transferred back to Ravensbruck where they would be deployed for other commandos and works.
They often had venereal diseases or an abortion and were psychologically destroyed. Many of them died because of the diseases, being exposed to medical experiments or being murdered as "incapable of working".

"They came back as wrecks. They had to receive what do I know how many men. They were ruined, sick and some of them died afterwards."

Irma Trksak, former prisoner in Ravensbruck



-Wirtschafts-Verwaltungshauptamt Oranienburg, den 15.Juni 194
Amtsgruppenchef D
- Konzentrationslager -
D I / Az.: 14 o 9/Ot/S.-
Geheim Tgb.-Nr. 770/43

Betrifft: Sonderbauten in den Konzentrationslagern.
Bezug: Chef des W.-u.V.-Hauptamtes -Ch.Po/Ha.- vom 9.6.43.
Anlagen: keine

Gehe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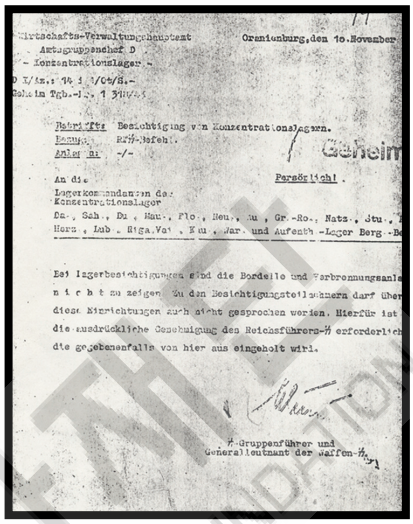
An die
Lagerkommandanten der
Konzentrationslager
Sachsenhausen, Dachau, Neuengamme und Auschwitz.

Nach Mitteilung des Hauptamtschefs ist ihm bei der Besichtigung bereits fertiggestellter Sonderbauten aufgefallen, daß diese nicht besonders günstig liegen.

Der Hauptamtschef hat angeordnet, daß bei der Errichtung weiterer Sonderbauten darauf zu achten ist, daß diese ihrer Zweckbestimmung gemäß etwas abseits liegen und nicht von allen möglichen Leuten begafft werden können.

I.V.

W. - Obersturmbannführer



Wirtschafts-Verwaltungshauptamt Oranienburg, den 10.November
Amtsgruppenchef D
- Konzentrationslager -
D I/Az.: 14 i 1/Ot/S.-
Geheim Tgb.-Nr. 1 3[illegible]

Betrifft: Besichtigung von Konzentrationslagern.
Bezug: RFW-Befehl.
Anlagen: -/-

Geheim

Persönlich!

An die
Lagerkommandanten der
Konzentrationslager
Da., Sah., Du., Mau., Flo., Neu., Au., Gr.-Ro., Natz., Stu., [illegible]
Herz., Lub., Riga, Vai., Kau., War. und Aufenth.-Lager Berg-Be[illegible]

Bei Lagerbesichtigungen sind die Bordelle und Verbrennungsanla[illegible]
n i c h t zu zeigen. Zu den Besichtigungsteilnehmern darf über
diese Einrichtungen auch nicht gesprochen werden. Hierfür ist
die ausdrückliche Genehmigung des Reichsführers-W erforderlich
die gegebenenfalls von hier aus eingeholt wi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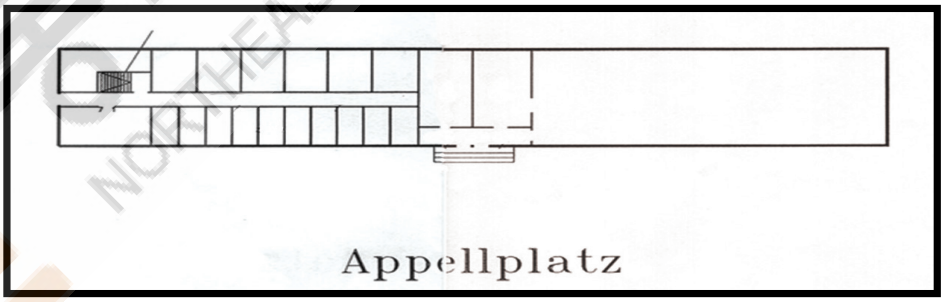
W.-Gruppenführer und
Generalleutnant der Waffen-W.

유곽 막사

마우트하우젠과 구젠에 세워진 최초의 포로 유곽은 수용소 바로 입구에 있었다. 그 곳은 눈에 잘 띄는 수용소의 중심부였다. 이와는 달리 다른 강제수용소에 있는 유곽 막사는 나치 친위대의 지시에 의해 외진 지역에 설치되었다. 1943년에는 유곽과 소각장에 대한 답사금지령이 내려졌다.

De bordeelbarak

De eerste bordelen voor gevangenen in Mauthausen en Gusen werden geplaatst bij de poort van het kamp dat zich in het centrum van het kamp bevond dat goed zichtbaar was. Na orders van de SS werden de bordeelbarakken in andere concentratiekampen gebouwd in meer afgeleden gebieden.
Vanaf 1943 waren bezoeken aan bordelen en crematoria verbode



강제수용소들의 유곽 막사는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마우트하우젠의 유곽 막사는 열개의 접대용 좁은 방과 숙소 공간인 여섯 개의 넓은 방이 있었다. 온수가 나오는 욕실이 여러 개 있었고 개별 방들은 세면대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 막사에는 체류실, 계산대 및 검사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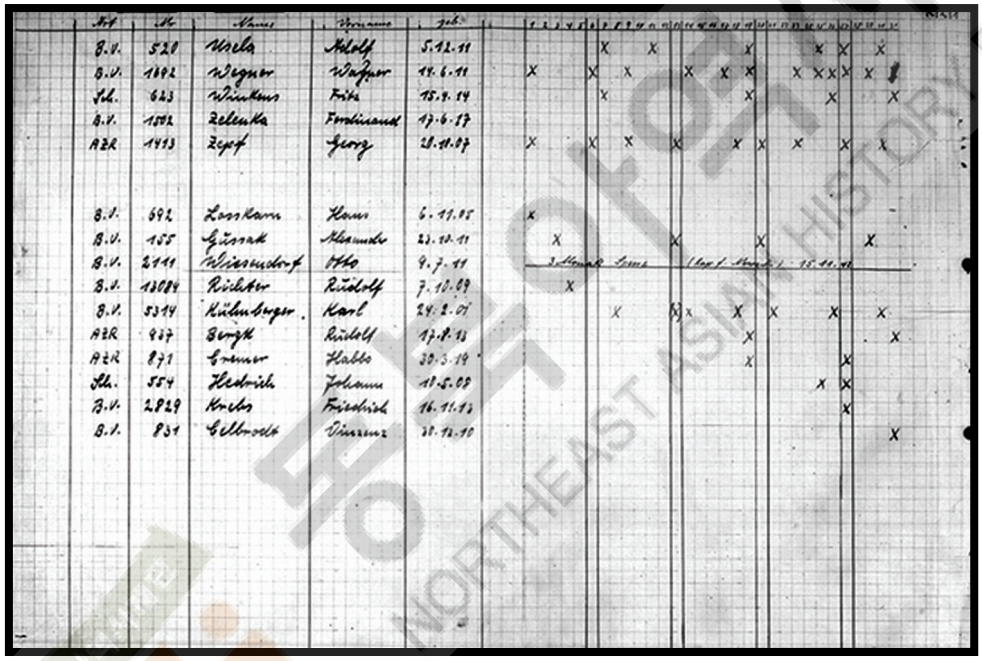
De bordeelbarakken leken erg op de bordelen in andere concentratiekampen. De bordeelbarak in Mauthausen was onderverdeeld in een werkgebied met tien smalle kamers en een slaapgebied met zes grotere kamers. Er waren verschillende waskamers met warm water en elke kamer was ook voorzien van een wasgelegenheid. De barakken hadden ook een gemeenschappelijke kamer, een kassiergebied en een onderzoeksgebi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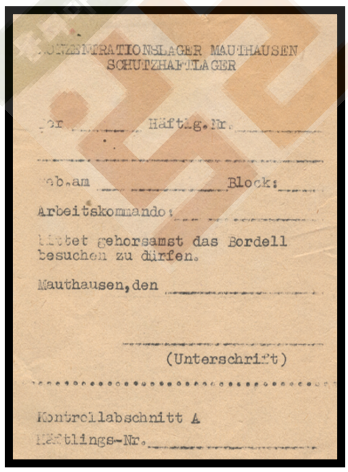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곽 출입 신청–요금–절차
Aanvraag, kosten en proces van een bordeelbezoek

대다수의 남성 수감자는 성관계를 갖기엔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때문에 권력 서열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수감자들만이 유곽에 출입할 수 있었다. 유곽을 찾는 대부분은 '범죄자 출신'의 간부 포로들이었다. 서열에서 가장 밑바닥인 유대인과 러시아인 수감자들은 유곽 출입이 금지되었다.

De meerderheid van de mannelijke gevangenen was fysiek gezien te zwak voor geslachtsgemeenschap. Dus alleen diegenen met een in verhouding hoge positie in de gevangenishiërarchie konden een bezoek brengen aan het bordeel. Het werd voornamelijk bezocht door "criminele" functie gevangenen. Joodse en Russische gevangenen waren niet toegestaan het bordeel te bezoeken aangezien zij zich onderaan de hiërarchie bevonden.




KONZENTRATIONSLAGER MAUTHAUSEN
SCHUTZHAFTLAGER

...or ..... Häftl.g.Nr. .....

...ob.am ..... Block: .....

Arbeitskommando: .....

...bittet gehorsamst das Bordell besuchen zu dürfen.

Mauthausen, de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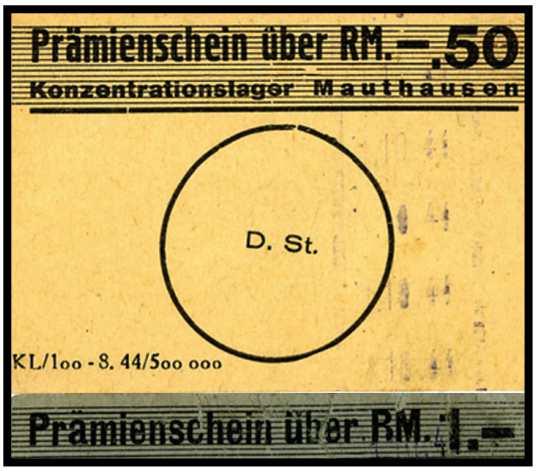
(Unterschrift)

Kontrollabschnitt A

...ftlings-Nr. .....

남자 포로가 수용소 내부 은어로 '덮치기카드'라고 불리던 유곽증을 작성하여 유곽 출입을 신청하면 수용소 사령부는 출입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했다.

De gevangene diende zijn aanvraag in met een bordeelkaart die in gevangenistaal, "Bespringkaart" werd genoemd. De kampcommandant besliste dan of het bezoek geaccepteerd werd of niet.





유곽 출입 허가는 매 점호시 공개적으로 전달되었다. 포로는 1회 유곽 출입을 위해 2제국 마르크를 포상쿠폰의 형태로 지불해야했다. 포상규정은 처음에는 0.45제국 마르크, 그리고 후에는 0.90제국 마르크를 강제 성노동 여성들에게 지불하도록 했지만 이것이 이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De toestemming werd openbaar gemaakt tijdens het appel. Een gevangene moest 2 RM betalen per applicatie in de vorm van een bonuskaart. Volgens de voorschriften van de bonuskaart was RM 0,45, later RM 0,90, bestemd voor de gedwongen arbeidster maar dit werd nooit uitbetaald aan de vrouwen.

마우트하우젠의 경우 유곽 출입을 허락받은 포로는 보통 저녁 6시와 8시 사이에 유곽 막사로 인도되어 등록을 하고 검사를 받았다.

"거기서 남자 포로는 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성기가 깨끗한가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주사를 맞고 나서야 여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한스 마르샬렉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 전직 수용소 서기

성행위는 누워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문에 달린 감시구멍을 통해 통제되었다. 1회 출입은 15분에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강제 성노동 여성들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성행위 후 크레졸 액으로 씻거나 어떤 경우 비데로만 씻어야 했고, 그런 후에는 주사를 맞았다.

In Mauthausen the prisoner usually was escorted to the brothel barrack between 6 and 8pm where he was registered and examined.

"And there the prisoner was somehow examined, his penis, if it is clean, then he got sprinkled and after all that he got sent in to the woman."

Hans Mar-lek, former camp writer in the concentration camp Mauthausen

Sexual intercourse was only permitted with both people lying in the bed which was also controlled through the peephole in the door. The visit was restricted to 15~20 minutes. The forced sex laborers only had very limited possibilities for contraception: After the sex act they had to wash themselves with a cresol-dissolution or simply in the bidet and they received injections.

독일의 1933~1945년과 강제수용소 조직

독일 1933~1945년

1933년 1월 30일 나치스가 권력을 이양 받으면서 의회 민주주의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고 독재 체제가 시작되었다. 나치스들은 극단적 반유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활동은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NSDAP 나치당) 당원들 및 돌격대(SA)와 친위대(SS)와 같은 당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치당의 한 조직으로서 친위대는 1925년 4월 1일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적인 경호를 위해 출범되었다가, 1934년에 독립적인 범군대적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나치의 엘리트 조직은 강제수용소 경비대가 되어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대적으로 관여했다.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침범을 필두로 독일의 침략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나치는 인종주의적 지배정책을 썼고 특히 폴란드와 소련에서는 주민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약 5천 5백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 전쟁 과정에 깊게 연루된 것이 홀로코스트였다. 유대인 대량학살은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여 그곳 유대인 출신 민간인들을 총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41년 말 나치는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점령지 폴란드에 있었던 집단 학살 수용소로 체계적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45년 5월까지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하였다.

나치의 지배는 1945년 5월 8일 그들의 국방군이 무조건 항복하여 종식되었다.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독일은 승전 4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점령구역으로 분할되었다. 이로인해 1949년 두 개의 독일 국가가 생겨났다. 독일의 분단은 1989~1990년 구 동독에서의 소위 무혈혁명을 통해 끝이 났다.



사령부에서 본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 소위 신수용소라고 불렸던 곳이 보인다. 오른쪽은 수용소 감옥

Concentratiekamp Ravensbrück gezien vanaf het hoofdkantoor. Ook is het Nieuwe Kamp te zien. Rechts: gevangeniscellen in het concentratiekamp SS fotoalbum van het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Ravensbrück 1940/41

Duitsland 1933~1945 en het concentratiekampsysteem

Germany 1933~1945

With the National Socialists coming into power on January 30, 1933, the Weimar Republic, a parliamentary democracy, was battered and the establishing of a dictatorship began. The national socialist movement, coined by a radically antisemitic world view, was carri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NSDAP), as well as by the party formations Stormtroopers (SA) and Protective Squadron (SS). The SS was established on April 1, 1925, as an organization for the personal guarding of Adolf Hilter. It became a discrete paramilitary organization in 1934. This national socialist elite unit provided guard forces for the concentration camps and was significantly involved in the murderin of European Jews.
With the invasion of Poland on September 1, 1939, the German war of conquest began, coined by a racist policy of supremacy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Poland and the Soviet Union, a policy of annihilation of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countries. Thus Germany had unleashed World War II, during which about 55 million people lost their lives. The Holocaust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course of war. The mass killing of Jews began in June 1944, with the shooting of Jewish civilians during the German invasion of the Soviet Union. From the end of 1941 on, the systematical deportations of the European Jewish population to annihilation camps in the occupied Poland began. Until May 1945 6 million Jews had been murdered.
The national socialist regime ended with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the Wehrmacht on May 8, 1945. Germany, occupied by the Allies, was divided into zones of occupation of the Allied powers USA, Great Britain, France and the Soviet Union, from which in 1949 two German states emerged. The division of Germany came to an end in 1989/1990, through the so called peaceful revolution in the GDR.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 사령부에서 본 막사 광경. 수용소 길 1번지가 보인다.
1940~1941년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나치 친위대 사진앨범

Uitzicht van het kantoor van de commandant op het barakkamp van het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Ravensbrück op Lagerstrasse1
SS fotoalbum van het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Ravensbrück 1940/41

강제수용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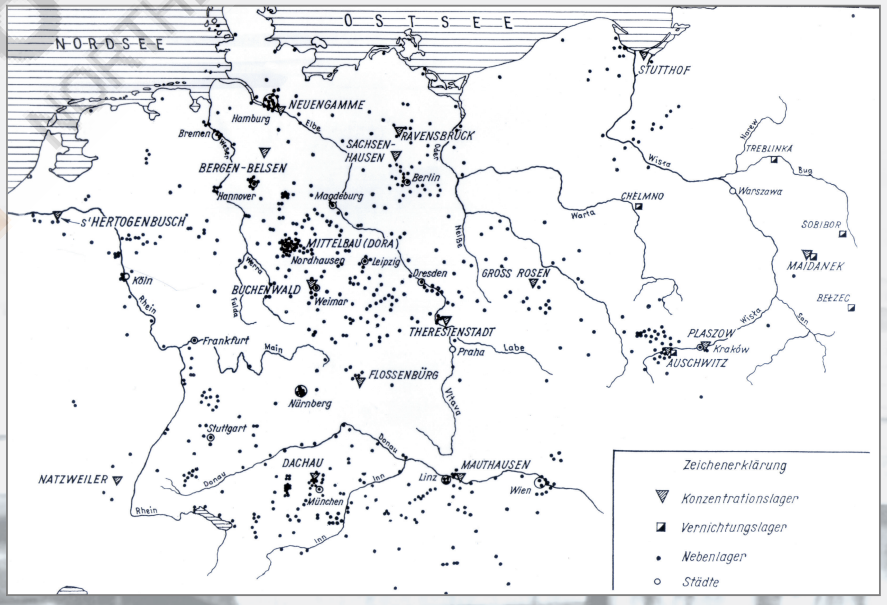
나치는 권력 장악 이후 부터 강제수용소 설치에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반대파들과 인종차별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에서 나치가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감되었다. 그런 부류에는 동성애자, 정신지체장애자, 여호와 증인과 소위 '사회 부적응자', 유대인 및 신티와 로마인(집시)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제수용소에서는 끔찍한 형벌, 고문, 전횡(專橫), 처형 그리고 이후에 실시된 가스실에서의 독살 등이 행해 졌다.

1934년 초여름까지 독일 제국의 곳곳에 오라니엔부르그 강제수용소(1933), 다하우 강제수용소(1933), 모링엔 강제수용소(1933년 남자 수용소/ 1933~1938년까지 여자 수용소)등과 같은 강제수용소가 세워 졌다.

1936년부터는 이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강제수용소 건설이 진행되었다. 1936년에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가, 1937년에는 부헨발트 강제수용소가 세워졌다. 1939년 5월부터 여자 포로들은 새로 세워진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에 보내졌다. 이 수용소는 기존의 중심적 여자 강제수용소였던 리히텐부르그 강제수용소의 역할을 대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더불어 강제수용소 조직은 더욱 확장되었다. 나치가 점령한 유럽 국가들의 주민들이 수용소에 수감됨에 따라 강제수용소 내 포로들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였다.

나아가 점령지들에도 강제수용소가 생겨났다. 1940년 5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설립되었다. 1942년부터는 전쟁 산업을 위해 동원되었던 수용소 포로들의 강제노동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다. 1941년 말과 1942년에 독일은 점령국 폴란드에 유럽의 유대인을 살해하기 위한 집단 학살 수용소인 첼므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와 마즈다넥 그리고 벨첵, 소비보, 트레블링카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강제수용소에서는 점점 더 많은 포로들이 군수산업을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야만 했다. 수감자들이 살해당하는 일도 더 늘어났다. 많은 수감자들은 혹독한 노동과 영양실조, 질병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졌던 생체 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부를 둔 강제수용소들의 지도

Kaart van de concentratiekampen met satellietkampe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The system of concentration camps

The erection of concentration camps (KZ) began after the national socialists came into power. Political enemies and other disliked people, be it for racist or social reasons, were imprisoned at the concentration camps. Homosexuals, mentally handicapped people, Jehova's Witnesses, so-called anti-social people, Jews as well as Sinti and Roma belonged to them. Imprisonment in concentration camps was coined by drastic punishments, torture, despotism, executions and later on also by killing with gas.
Until the early summer 1934, concentration camps of diverse sizes emerged in many parts of the German Reich, e.g. the KZ Oranienburg (1933), the KZ Dachau (1933) and the KZ Moringen (1933 for men/1933/1938 for women). From 1936 on, the construction of new, larger concentration camps was pushed forward: The KZ Sachenhausen was built in 1936, the KZ Buchenwald in 1937. From May 1939 on, female prisoners were brought to the newly built KZ Ravensbruck, which displaced the KZ Lichtenburg as central women's concentration camp.
With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the system of concentration camps was extended. Because of the imprisonment of people from the occupied European countries the number of prisoners continually increased. Now concentration camps were opened in the occupied territories as well. The KZ Ausschwitz was established in May 1940. From 1942 on, forced labour in the arms industry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end of 1941 and in 1942, the Germans built annihilation camps in the occupied Poland. The annihilation camps Chelmno, Ausschwitz-Birkenau and Majdanek, as well as Belzec, Sobibor and Treblinka were built for the murdering of the European Jews.
More and more prisoners in the concentration camps were forced to labour for the arms industry. The killing of prisoners increased. Many prisoners died because of rough labour assignments, undernourishment, diseases and medical experiments which were conducted on them.



나치 독일 지도

Map van Nazi-Duitsland
Westermann Schulbuchverlag GmbH, Braunschweig Special Issue 2001 Orbis Verlag fuer Publizistik GmbH, Munich Issuer: Westermann Druck GmbH, Braunschweig
Page 155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나치 친위대는 1939년 초부터 요양지 퓌어스텐베르그 근처의 프로이센 마을 라벤스브뤽에 여자 강제수용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쟁 발발 전 여자 포로들만을 위해 독일 지역에 세워진 유일한 대규모 강제수용소였다. 1939년 초 처음으로 1000명의 여자포로들이 리히텐부르그 강제수용소에서 라벤스브뤽으로 이송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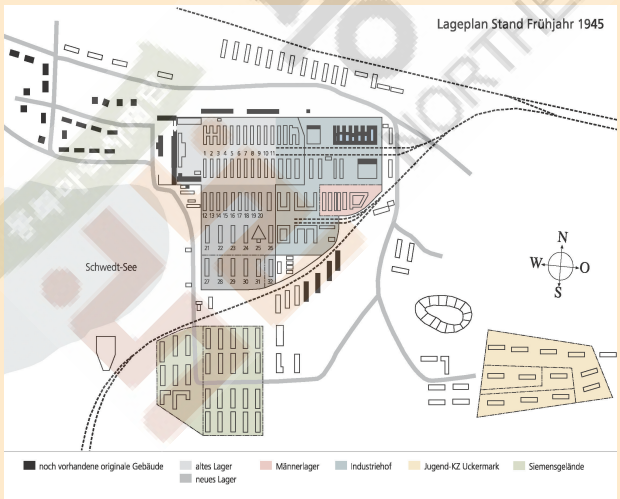
1941년 4월 이 여자 강제수용소 옆에 남자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1942년 여름에는 부근에 청소년 강제수용소 욱커마르크 수용소가 세워졌다. 이 두 수용소는 여자 수용소 관할하에 있었다. 라벤스브뤽 여자 수용소는 나치 친위대 여자 감시원들의 중앙 교육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여자 강제수용소는 계속 확장되었다. 나치는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막사들을 세웠다. 1944년 늦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수 천명의 여자포로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 50미터 길이의 천막이 추가로 세워졌다. 수용소 담장 안에 설치된 '산업원'에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을 하기 위한 작업장들이 있었다.



화물운반차에 짐을 싣고 있는 여자 포로들

Vrouwelijke gevangenen die materialen op wagons laden
SS photoalbum of the women concentration camp Ravensbrueck 1940/41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D_{10}



1945년 초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프랑스인 포로 아니스 포스뗄–비나이의 증언에 의거하여 라벤스브뤽 기념관 연구원이 제작한 1945년 4월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 도면

Vrouwelijke gevangenen die materialen op wagons laden
SS photoalbum of the women concentration camp Ravensbrueck 1940/41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D_{10}

From the beginning of 1939, the SS set up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in the Prussian village Ravensbruck, close to the health resort Fuerstenberg. It was the only large-scale concentration camp on German territory before the war designated for women. In spring 1939, the first of the 1.000 female prisoners from the concentration camp Lichtenburg were transferred to Ravensbruck. In April 1941 a men's camp was added to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and from summer 1942 on, the youth's concentration camp Uckermark was erected nearby. Both camps wer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Ravensbruck also was the central educational camp for female SS supervisors.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was extended permanently. The SS kept building new barracks for prisoners. In late summer/autumn 1944, an additional 50 meter long tent was set up, in which several thousand women were quartered under poor conditions. Inside the camp an "industrial site" was established, consisting of production sites for labour that was considered as traditionally women's work. Next to the camp area the company Siemens & Halske built 20 factory workshops in which the prisoners were forced to labour from 1942 on.



점호장과 막사들, 오른쪽은 수용소 감옥

Appelgebied en barakken, rechts het gebouw met celle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D_{1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갈대 돗자리 직조장에서 여자 감시원의 감독하에 강제노동하는 포로들의 모습
갈대 돗자리 직조장에서의 일은 특별히 힘들었다. 이 곳에서는 1943~1944년까지 돗자리, 갈대 돗자리, 차양막, 포장덮개 등이 생산되었다.

Gevangenen die gedwongen waren te werken in de rietmatfabriek, onder toezicht van een vrouwelijke supervisor
Het werk in de rietmatfabriek waar tot 1943/44 stromatten, rietmatten, schermen, verpakkingen werden geproduceerd, was zeer zwaar.
SS photoalbum of the women concentration camp Ravensbrueck 19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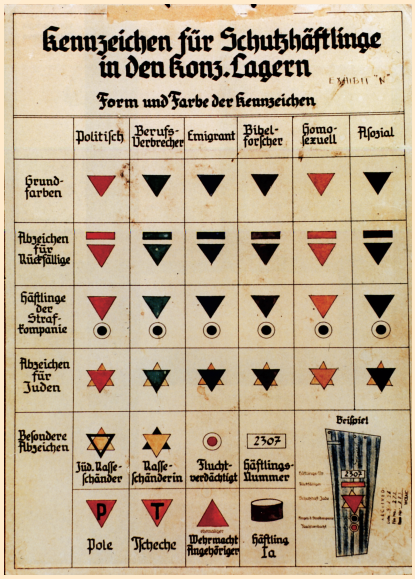
강제수용소 부지 옆에는 지멘스 앤 할스케 회사가 20개의 공장을 세웠다. 여기서 포로들은 1942년부터 강제노동을 해야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여자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한 많은 수의 수용소 지부가 제국 전체에 걸쳐 세워졌다. 이 수용소 지부들은 수용소 본부인 라벤스브뤽을 비롯 다른 강제수용소 관할 하에 있었다. 여기서 여자포로들은 전쟁산업을 위해 착취되었다.
1939년과 1945년 사이 '청소년 보호감호수용소 욱커막' 에는 약 13만2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 2만 명의 남자와 약 1천 명의 청소년들이 포로로 등록되었다. 40개국 이상의 국적을 갖고 있었던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은 물론 집시들도 속해 있었다. 수만 명의 포로들이 살해당하거나 기아와 질병 그리고 의학실험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포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1942년 2월 초부터 총 1천 600명의 여자포로들 (그 중 700~800명은 유대인)이 약 10회에 나누어 베른부르크와 잘레에 있는 치료 및 요양시설로 이송되었고 그 곳 가스실에서 살해당했다. 이는 서류기호 '14 f 13'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강제수용소에서 병자들을 제거하는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1943년 나치 친위대는 라벤스브뤽 수용소 내에 화장터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1944년 말 가스실이 설치된 후 나치 친위대는 라벤스브뤽에서 5천에서 6천명 사이의 포로들을 독가스로 살해했다. 종전 직전 국제 적십자와 스웨덴, 덴마크 적십자의 도움으로 약 7천500명의 포로들이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이송되었다. 나치는 수용소에 남아있던 수만명의 여자들을 북서쪽을 향해 '죽음의 행군' 을 시켰다. 1945년 4월 30일 붉은 군대는 라벤스브뤽에 남겨진 약 3천 명의 병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풀려난 수많은 여자, 남자, 아이들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몇 주 후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일생동안 강제수용소 수감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With the end of the war numerous satellite camps with female prisoners spread all over the Reich which were subjected to the basecamp Ravensbruck and other concentration camps. In these satellite camps women were exploited for the war production.
Between 1939 and 1945 about 132.000 women and children, 20.000 men and ca. 1.000 youths of the "youth protection camp Uckermark" were registered as prisoners. They were of 40 different nationalities, under them Jews and Sinti and Roma. Tenthousands were murdered, died of hunger, diseases and by medical experiments. Due to prisoners' statements, during a killing campaign, known under file number "14 f 13", which referred to the continuation of killing the sick in the concentration camps, altogether 1.600 female prisoners, under them 700 to 800 Jewish women, were brought to the sanatorium Bernburg/Saale and murdered in the gas chamber in February 1942. In April 1943 the SS began operating a crematory in Ravensbruck, belonging to the camp itself. After building a gas chamber end of 1944, the SS murdered between 5.000 and 6.000 prisoners with toxic gas in Ravensbruck. Shortly before the end of the war, ca. 7.500 prisoners could be rescued and taken to Switzerland and Sweden with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the Swedish and the Danish Red Cross. Tenthousands of women remaining in the camp were forced to "death marches" heading northwest by the SS. On April 30, 1945, the Red Army liberated about 3.000 sick people who were left behind in Ravensbruck. Liberation did not mean that the suffering for many women, men and children was over. Many of them died in the following weeks, others suffered for a lifetime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concentration camp imprisonment.



나치 친위대 사령관 하인리히 힘믈러는 1941년 1월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를 방문했다. 수용소 소장 막스 쾨겔에게 영접받는 모습

Reichsfuehrer van de SS, Heinrich Himmler, bezoekt het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Ravensbrück: begroeting door kampdirecteur Max Koegel (januari 1941)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D_{10}



강제수용소 내 감호수용포로들의 표식

Tekens voor gevangenen in het concentratiekamp
Dachau Concentration Camp Memorial Site
Copies taken from the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수감자들의 출신성분
De herkomst van de gevangenen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계층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농민, 노동자, 소시민계급, 상류층이나 귀족계급 출신의 여성들이 여기에 수감되었다. 어린 아이부터 고령의 노인들까지 전 연령층의 여성들이 포함되어있었다.

강제수용소로의 이송은 나치점령국가에서 비밀 국가경찰(게슈타포)과 사법경찰(크리포), 안기부(SD), 친위대(SS)와 군대의 명령에 따라 행해졌다. 1939년 5월 말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성 수감자 1000여 명이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에 등재되었다. 1939년 6월 말에는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에서 440명의 집시,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이 라벤스브뤽으로 이송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더불어 1939년 9월 23일 23명의 폴란드 여성 수감자들이 최초로 라벤스브뤽으로 수감되었다. 폴란드 여성들은 1945년 4월 말 해방될 때까지 약 4만명으로 가장 큰 수감자 집단을 형성하였다. 수용소 내 수감자들의 국적 비율은 수용소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1945년에는 외국 출신 수감자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들 대부분은 독일 제국 철도청의 죄수 차량이나 여행기차로, 나중에는 사방이 막히거나 또는 트인 가축운반용 차량에 실려 라벤스브뤽으로 왔다. 1942년 10월에 500명이 넘는 유대인 여성들이 라벤스브뤽에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니나 이르시코바가 그린 '남자수용소'

Tekening gemaakt door Nina Jirsikova "Mannenkamp"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781 E1



1939년 6월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에서 440명의 신티와 로마(집시)들이 이송되어 왔다. 강제 이송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포로는 14세의 소녀였다. 이 강제 이송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성인 여자와 소녀들을 밤중에 급하게 데려가면서 그녀들에게 일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강제이송은 펠트바흐와 그란츠의 감옥을 거쳐 라벤스브뤽에 도착할 때까지 이틀하고 반나절이 걸렸다

440 Sinti en Roma (Zigeuners) werden aan het eind van juni 1939 getransporteerd vanuit het Oostenrijkste Burgenland. De jongste van hen was 14 jaar oud. Overlevenden van het transport vertelden dat vrouwen en meisjes werden opgehaald om middernacht. Aan hen werd verteld dat ze naar een werkplaats gebracht zouden worden. Na een stop bij de Feldbach/Granz gevangenis werd de deportatie, die twee en een halve dag duurde, voortgezet naar Ravensbrück.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902 E1

1944년 중반까지 여자 강제수용소에는 유대인 수감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우슈비츠가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라벤스브뤽으로 대규모의 강제이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1944년 여름부터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이 숫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게 되었다. 수감자로 등록되어 있던 총 1만5천 명의 유대인 여성, 남자, 어린이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The prisoners in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Ravensbruck not only originated from different regions in Europe but they also came from different social classes. Rural people, women workers, women from the bourgeosie and of higher nobility were imprisoned at this camp. They were of different age groups, from infants to aged women. The deportation into the concentration camp was ordered by the Secret State Police (Gestapo),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Kripo), the Security Service (SD), the SS or the Wehrmacht of the occupied countries.
In the end of May 1939, ca. 1,000 female prisoners from Germany and Austria were registered at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Ravensbruck. End of June 1939, 440 Sinti and Roma, women, youths and children from the Austrian Burgenland, were deported to Ravensbruck. At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23 Polish women were imprisoned on September 23, 1939. Polish women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 of prisoners until the liberation end of April 1945, consisting of ca. 40.000 prisoners. In 1945, most of the prisoners were of foreign origin. There were brought to Ravensbruck in prison wagons of the German Reichsbahn, in regular trains and later in closed or open stock cars. In October 1942 over 500 Jewish women were deported from Ravensbruck to Ausschwitz. Until mid of 1944 there were hardly any Jewish prisoners in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The by far largest group of Jewish women got to Ravenbruck when Ausschwitz was evacuated step by step and in the course of extensive deportations from Hungary and Slovakia. Altogether names from 15.000 Jewish women, men and children are known registered as prisoners.



에르나 데 프리스(결혼전 성: 코른)의 포로복
1998년 라벤스브뤽 기념관에 기증됨
에르나 데 프리스는 1943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었다.
1943년 9월 16일자 '신참자명단'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성: 코른 | 이름: 에르나 | 생년월일: 1923년 10월 21일 | 수감이유: 정치적 유대인

Gevangenisuniform van Erna de Vries (Meisjesnaam: Koln)
Gedoneerd aan het Ravensbrück Memorial Museum door Erna de Vries in 1998
Erna de Vries werd in 1943 vanaf het Ausschwitz concentratiekamp getransporteerd naar het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Op de "Verwervingslijst" van 16 september 1943 is de volgende informatie opgenomen:
Familienaam: Korn / Naam: Erna / Geboortedatum: 21.03.1923 / Reden voor hechtenis: politieke Jood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2105 B2



여자들은 포로복과 함께 고유 번호와 표식(역삼각형)을 받았다. 표식은 수감자의 수감 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로 되어 있었다.
체코출신 여자 수감자인 의사 즈덴카 네드베도바의 빨간색 계급장과 수감번호

De vrouwen ontvingen samen met hun gevangeniskledij een nummer en een driehoekig label. De kleur van het label stond voor de reden van gevangenschap, voor iedereen zichtbaar.
Het nummer en rode label van Zdenka Nedvedova, een vrouwelijke gevangene, dokter uit Tsjechië
From: †Ravensbrückerinnen", textcollection of the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Issue no. 4, Berlin 1995

라벤스브뤽으로의 이송은 집단 수송편과 특수 또는 특별 수송편으로 이루어졌다. 약 2000명의 체코 수감자들 중 184명의 여성들이 리디츠 지역 출신이었는데, 그중 가장 연장자는 88살이었고 최연소자는 16살이었다. 네덜란드 여성은 1,000여 명이 수감되었다. 1944년 말까지 소련에서 라벤스브뤽으로 끌려온 여성들 숫자는 최소한 1만8천여 명에 달했다. 프랑스 여성들의 강제 이송은 1943년 3월에 시작되었다. 가장 최대 규모는 1944년 2월 3일 958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라벤스브뤽으로 이송되어 온 것이었다. 프랑스쪽 자료에 의하면 8천 명이 넘는 프랑스 여성들이 라벤스브뤽에 수감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소위 암암리에 끌려온 '밤안개' 수감자들이었다.
40개국이 넘는 출신 국적을 가진 여자들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라벤스브뤽으로 수감될 때 까지 겪었던 운명은 가지각색이었다. 많은 수감자들에게 라벤스브뤽은 다른 노동수용소로 가는 길에 거치는 통과수용소였다. 남자 수감자들도 라벤스브뤽으로 왔다. 남자 수감자수용소와 여자 수감자수용소는 철조망을 설치해 분리되어 있었다. 여자 전쟁포로들을 수감하는 것은 육지전에 관한 헤이그 규정과 제네바 전쟁포로협약의 명백한 위반이었다. 붉은 군대에 소속된 다수의 여자 대원들과 연합군 요원들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여자 낙하산병들이 그 해당자였다.
4개월에서 16세의 18개국 출신 약 900명의 어린이들이 비완벽한 '신참자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 말까지의 출생부에는 560명의 신생아가 기록되어있다. 많은 신생아들은 라벤스브뤽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여자수감자들이 이송 도중이나 아니면 수용소 내에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수용소 대모 역할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 적은 수의 아이들만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

The deportations of prisoners were carried out in collective and special transports. 184 of the 2.000 Czech prisoners were from Lidice, the oldest woman was 88 years old, the youngest 16. Ca. 1.000 Dutch women were brought to Ravensbruck. The minimum number of women who were carried off from the Soviet Union is 18,000. The deportation of French women began in March 1943. The largest group consisted of 958 women and arrived on February 3, 1944. Following French information, over 8.000 French women were imprisoned in Ravensbruck, a lot of them as so-called "Nacht und Nebel" ("cloak and dagger") prisoners. The fateful ways of the women originating from over 40 nationalities from the arrest to the
imprisonment in Ravensbruck were manifold. For many prisoners Ravensbruck was a transition camp on the way to another labour camp. Also male prisoners got to Ravensbruck, the men's camp separated from the women's camp with a barbed-wire fence. The imprisonment of women was a striking violation against the Hague Laws of War on Land and the Geneva Treatment on Prisoners of War. A larger number of female members of the Red Army as well as British, French and German parachutists in service for the Allied forces were affected.
Ca. 900 children at the age of 4 months to 16 years from 18 nations are registered on incomplete "acquisition lists". From September 1944 to end of April 1945 560 births we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of
births. Many newborns did not survive Ravensbruck. Female prisoners took care of those children who lost their mothers on the way to or in the camps.



· 표식 'R' 이 들어가 있는 빨간색 등급장
· 다양한 색의 십자수와 키릴문자로 짜여진 주머니
· 로스토우 암 돈 출신의 갈리나 로쉬노바(수감번호 18007)의 주소록. 수용소에서 나간 뒤 다시 만나기 위해 동료 포로들의 주소를 적었다. (1942년 5월부터 나치에 의해 점령된 소련 지역에서 여자 포로들이 이송되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범법행위' 로 인해 강제수용소로 끌려온 '동부 노동자들' 과 강제 노동자, 그리고 전쟁포로로 붙잡힌 소련군 여자들이었다.)

- Rood driehoekig label met een "R"
- Tasje geborduurd met gekleurde kruissteekmotieven in Cyrillische letters
- Adresboek, eigendom van Galina Roschnowa uit Rostow am Don, gevangene nr. 18007, waarin medegevangenen hun adres opschreven met als doel elkaar te ontmoeten na gevangenschap Vanaf mei 1942 werden steeds meer vrouwelijke gevangenen uit de bezette Sovjetgebieden naar het concentratiekamp gebracht. Het waren vrouwen die gevangen genomen werden als "Oosterse werksters" voor "overtredingen van de wet", dwangarbeiders en Sovjet oorlogsgevangene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403 B3, V 630 D4, V 1026 F2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받아먹기 위한 그릇은 금은보화처럼 애지중지됐다. "그릇이 없는 사람은 영양가 없는 짐승 먹이나 마실 것조차 배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죽음을 의미했기때문이었다.
이는 앤네 사에프코프(독일 출신 폴란드인 포로)가 그녀의 딸 에디뜨 바르너에게 해준 이야기이다.

Een kom voor het dagelijkse schaarse eten werd beschermd als een schatkist. "Dat was omdat degenen die geen kom hadden het primitieve en onvoedzame eten en drinken niet eens konden ontvangen."
Dit leidde vaak tot de dood.
Dit is wat Aenne Saefkow (Poolse gevangene uit Duitsland) haar dochter Editgh Warner vertelde.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423 B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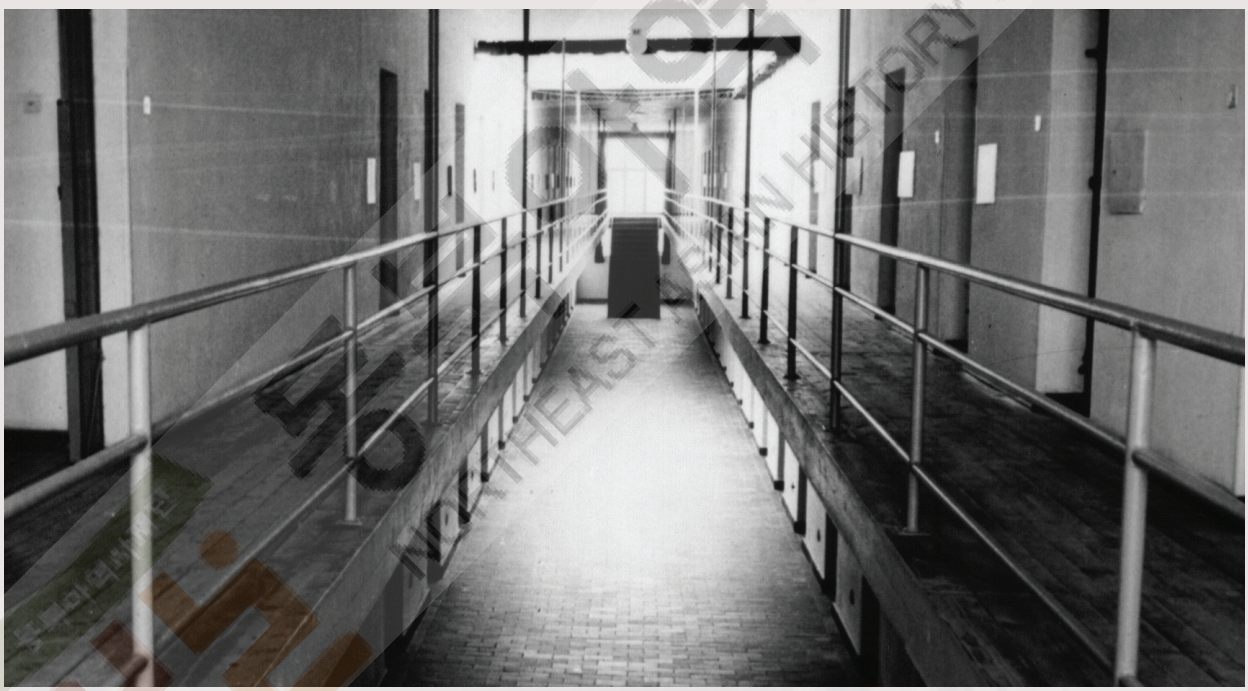
또 하나의 특수한 포로그룹은 소위 '밤안개' 포로들이라고 불려지는 포로들이었다. 독일군 최고 사령관 카이텔이 서명한 1941년 12월 7일자 '밤안개 지령' 에 의하면, "제국과 점령군에 반대하는 범법행위들은 척결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서유럽의 나치점령 국가, 특히 프랑스의 저항운동세력 소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프랑스 여성 비올레뜨 후지에-르꼬의 그림 "12. 최악중에 가장 최악: 밤안개……"
비올레뜨 후지에-르꼬는 1943년 10월 31일 다른 프랑스인 밤안개 포로들과 함께 라벤스브뤽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그 중에는 제르맹 틸리옹과 아니스 포스뗄-비나이도 있었다.

Zogenaamde "Nacht und Nebel" gevangenen vormden een speciale groep gevangenen. De "Nacht und Nebel" edict van 7 december 1941, getekend door de Generaal van het oppercommando van de Wehrmacht, Keitel, was bedoeld om "misdaden tegen het Reich en de bezettende macht" te vervolgen. Het verwees naar de strijd tegen de verzetsbeweging in de bezette West Europese landen, voornamelijk Frankrijk.
Tekening gemaakt door de Française Violette Rougier Lecoq "12. Les pires parmi les pires: Les N. N..."
Violette Rougier Lecoq werd samen met andere "NN gevangenen", zoals Germaine Tillion en Anise Postel Vinay, naar Ravensbrück gedeporteerd op 31 oktober 1943.
From: Rougier-Lecoq, Violette: Témoignages: 36 Dessins á la plume.- Ex. Nr. 587-Paris, 1948

폭력과 테러
Geweld en terr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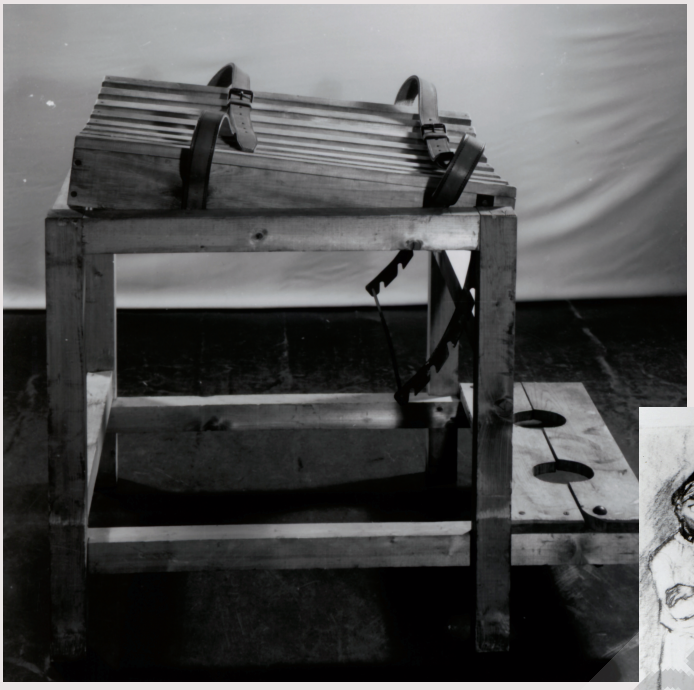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내규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과 구금형 및 육체적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형벌 규정에는 21개의 금지조항이 있었다. 이미 리히텐부르크 강제수용소에서부터 시행되던 체벌형은 라벤스브뤽 수용소에서 가장 혹독한 수용소 형벌로 여겨졌다. 1942년부터 '강화된 체벌형' 으로 옷을 벗긴채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Disciplinary, detention and physical punishments were set out in writing in the camp regulations of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The punishment regulations contained 21 restraints. The beating punishment, already applied in the concentration camp Lichtenburg, was considered as one of the hardest camp punishments in Ravenbruck. From 1942 on, the "harsh beating punishment" was introduced beatings on the unclothed back.



1939년 말 완공된 수용소 감옥은 달갑지 않은 포로들을 규율화시키기 위한 억압과 테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 곳은 고문과 범죄의 장소였다. 길이 53미터, 넓이 4미터의 내부 복도. 양쪽 옆으로 두 개의 층에 나누어 78개의 감옥방들이 있었다. 1940~1941년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나치 친위대 사진앨범

Het concentratiekamp waarvan de bouw in 1939 werd voltooid, werd gebruikt als een middel om de gevangenen te onderdrukken en te terroriseren om ze zo te disciplineren. Het was ook een plaats van foltering en misdaad.
Aan elke kant van deze 53m lange, 4m brede hal zaten 78 cellen op twee verdiepingen.
SS fotoalbum van 1940/1941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D_{10}



◀ Design element from the first camp museum, artist unknown.
Copy i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 Fo V/B; Foto: 2028

▼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V/D1-1,Foto:5510



추후에 제작된 체벌대
체벌형은 1939년 이래로 형벌 목록의 하나였다. 1942년 4월 힘믈러는 여자포로들에게도 엉덩이를 벗기고 때리는 형벌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체벌형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행해졌다. 최초의 수용소 박물관에서 나온 기본도안. 작가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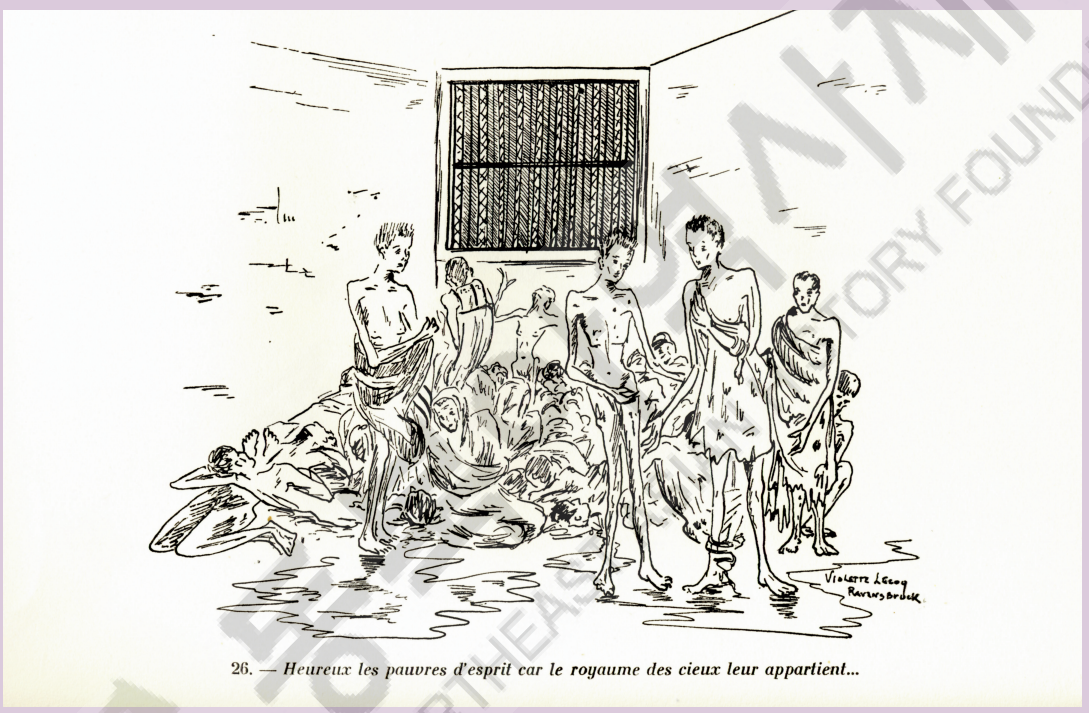
Een straftafel geproduceerd op een latere datum
Sinds 1939 was slaag een gewone vorm van straf. In april 1942 beval Himmler dat vrouwelijke gevangenen ook gestraft moesten worden door slag op hun ongeklede achterste.
Deze straffen werden uitgevoerd op dinsdagen en vrijdagen.
Ontwerpelement van het eerste kampmuseum, artiest onbekend.

많은 여자들이 학대로 인해 건강에 손상을 입거나 체벌형을 받고 죽었다. 최고형은 며칠의 간격을 두고 한 번에 25대씩 3회에 걸쳐 체벌하는 것이었다. 이 체벌형은 다른 형벌들과 마찬가지로 강제수용소의 수용소 감옥에서 집행되었다.
형벌은 하루 또는 며칠씩 음식배급을 중지하는 것에서부터 개별적으로 또는 한 구역이나 수용소 인원 전체를 몇 시간씩 서 있게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였다.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또 다른 형벌은 형벌구역에 보내지는 것이었다.

Numerous women suffered from health damages caused by cruelties or died because of the consequences of the beating punishment. The harshest punishment possible consisted of three times 25 beatings which were executed in the course of several days with interrup-tions. The beating punish-ment, as other camp punish-ments as well, was executed in the camp prison.

이 형벌구역은 철조망을 통해 기타 다른 수용소와 구분되어 있었다. 형벌구역은 '수용소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이 곳에 수용된 포로들은 보통보다 적은 양의 식사를 배급받았고, 특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할당 받았으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감금되거나 창문이 폐쇄되기도 하였다. 또한 포로들은 나치 친위대 여자 감시원들의 잦은 폭력세례에 노출되어 있었다.

군수산업장에서 사보타주를 일으킨 자로 간주된 포로들은 특히 엄한 벌로 다스려졌다. 1944년 3월과 1945년 3월 사이에 사보타주로 의심받았던 러시아 여자 65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160명이 넘는 폴란드 여성과 영국 및 프랑스 낙하산 여자 부대원들 일부, 그리고 그외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총살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특별법정'에 의해 사형판결을 받고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로 온 사람들이었다.



26. — *Heureux les pauvres d'esprit car le royaume des cieux leur appartient...*

나치 친위대는 정신병자들이 기거하던 공간을 경멸적으로 '병신내무반'이라고 불렀다. 이 방은 약 3미터 넓이에 길이는 4.5미터였다. 나치는 창문 유리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두꺼운 각목을 대고 못을 박았다. 이 각목들 사이로 바깥의 냉기와 열기가 그대로 들어왔다. 여기 감금되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강제수용소의 일상을 버텨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들은 보통 음식양의 절반 밖에 배급받지 못했다. 이 '병신내무반'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곤 했다.

비올레뜨 후지에–르꼬의 그림 26번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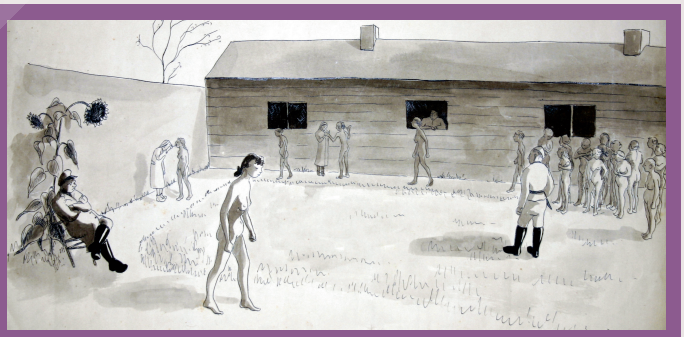
De SS noemde de kamer waarin de verstandelijk zieken verbleven minachtend het "knusse kamertje van de idioten". De kamer was niet groter dan 3 meter breed en 4,5 meter lang. De Nazi's hadden de ramen eruit gehaald en dikke houten balken voor de openingen getimmerd waardoor hete en koude lucht eenvoudig kon binnenstromen. De meeste vrouwelijke gevangenen in deze kamer waren diegenen die het dagelijkse leven in het concentratiekamp niet aankonden. Velen van hen hadden de wil om te leven al verloren. Zij kregen slechts de helft van de porties eten. De meest verschrikkelijke dingen vonden plaats in het "knusse kamertje van de idioten". Tekening gemaakt door Violette Rougier Lecoq "Heureux les pauvres d'esprit car le royaume des cieux leur appartient...," blad 26.
From: Rougier-Lecoq, Violette: Témoignages: 36 Dessins á la plume.- Ex. Nr. 587-Paris, 1948

The range of punishments stretched from denying food for one or several days to standing at the same spot for hours, for single women or whole blocks or even the entire camp. Another dreaded punishment was being sent to to the penal block. A wired fence seperated this area from the rest of the camp. It was guarded by the "camp police". The conditions in the penal block were marked by smaller food rations, extremely hard work, overcrowding or nailing up windows. The prisoners were additionally frequently exposed to violent excesses by female SS guards.
Especially assumed sabotaging activities in arms factories were a reason for rigorous punishments. Thus between March 1944 and March 1945, 65 Russian women were executed because of assumed sabotaging activities. From 1941 to 1945, over 160 Polish women and several English and French parachutists and women of other nationalities had been shot. Some of them came to Ravensbruck with death penalties imposed by "Special Courts" already.



유명한 폴란드 여자 화가 마야 바레조브스카는 수용소에서 그림을 그렸다. 마야 바레조브스카와 마찬가지로 라벤스브뤽이 있었던 폴란드 포로 우르줄라 뷘스카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 폴란드 여자 화가가 모든 수감자들에게 무척 화제가 된 날이 있었죠.……우리는 토끼'라는 주제로 그린 상징적 그림때문이에요. 앞발이 묶인 흰 색 토끼가 철조망 속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플랍스(수용소 스프)가 담긴 그릇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토끼 상체에는 'P'라는 글자가 새겨진 붉은 색 삼각형과 실험용으로 수술을 당한 한 여자 수감자의 수감번호를 달고 있었죠.……"
마야 바레조브스카의 그림 '실험용토끼', 1943년 9월 2일 라벤스브뤽 모임회, 바르샤바
Maja Berezowska, een beroemde vrouwelijke Poolse gevangene, maakte schilderijen in het concentratiekamp.
Ursula Winska, ook een Poolse gevangene in Ravensbrück zegt:
"Op een dag had iedereen het over onze vrouwelijke Poolse schilderaar... vanwege het symbolische schilderij van "Konijnen": op dit schilderij staat een wit konijn met vastgebonden voorpoten achter prikkeldraad gebogen over een kom van onze dagelijkse soep. Op zijn bovenlichaam staat een rode driehoek met de letter "P" en het nummer van een gevangene die experimenteel geopereerd was..."
Maja Berezowska, "Experimenteel Konijn," 2 september 1943
Ravensbrück Gathering, Warschau
Copy i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네덜란드 여성 아트예 시겐베크 반 호이켈롬의 그림은 라벤스브뤽에 수감되었던 여성들에게 최악의 순간, 즉 사형 집행 대상자 선별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거나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점호를 받을 때 이를 알려야 했다. 그들에겐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의무실에서 바로 살해되던지 아니면 소위 검은 수송차라고 불렸던 수송차에 실려 치료 요양소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또는 집단 학살 수용소나 라벤스브뤽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아트예 시겐베크 반 호이켈롬의 그림



Schilderijen van een Nederlandse vrouw [Atie Siegenbeek van Heukelom] laten de laatste momenten zien van vrouwen die gevangen zaten in Ravensbrück, d.w.z. het moment waarop de selectie werd gemaakt van diegenen die geëxecuteerd zouden worden.
Degenen die ziek waren of niet konden werken, moesten dat bekend maken tijdens het appel. Voor hen was de dood een feit.
Ze werden of meteen gedood in een apotheek, naar gaskamers gestuurd in een voertuig genaamd de zwarte drager, of gedood in massaslachtingkampen of in de gaskamers van Ravensbrück.
Een schilderij gemaakt door
[Atje Siegenbeek van Heukelom]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V 1544 E1

라벤스브뤽에서 소위 환자 의무실이라고 불렸던 곳은 죽음, 살해, 말살 선별과 임상 실험을 위한 장소였다. 이 곳은 의무실이라는 이유로 라벤스브뤽 막사들 중 첫번째 줄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 이 의무실 옆에는 환자구역이 있었다. 거기에서 같은 수감자인 의사와 간호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티푸스, 디프테리아 및 기타 다른 질병들을 처치했다. 이 환자구역은 이후 '죽음의 구역' 이 되었다. 특히 악명 높았던 것은 10번 구역이었는데 이 구역은 결핵을 앓거나 정신병을 가진 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었다. 거기에는 소위 '병신내무반' 이라는 것도 있었다.
거기서 지냈던 여자들 대다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거나 말살을 위해 선별되었다. 포로들은 될수 있는한 자신들의 병을 숨기려고 했다. 그들은 나치 친위대 의사들과, 말살 대상자로 선별되거나 약물투입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1942년 8월부터 1943년 8월까지 나치 의사들은 칼 겝하르트 의학 교수의 지도하에 74명의 폴란드 여성들과 다른 국적을 가진 12명의 포로들에게 실험을 행했다. 설포나미드를 통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뼈, 근육, 신경이 적출되었고 인위적인 감염(가스화상)을 유발시키기 위한 수술이 행해졌다. 수술받은 여자들은 수용소 은어로 '실험용토끼' 라고 불렸다.
5명의 폴란드 여성과 12명의 다른 여자포로들이 수술 직후 죽었고 또 다른 6명은 그 후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총살되었다. 1945년 2월부터 동료 포로들이 그 실험에서 살아남은 포로들을 수용소에 숨겨주었다. 실험 대상이 되었던 포로들 중 몇 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증언하였다.
그 밖에 120명에서 140명의 집시 여자와 소녀들(그 중 제일 어린 포로는 8살이었다)에게 강제로 불임 실험이 행해졌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The so-called sick bay, located at the first barrack line, was a place of dying, killing, selections and medical experiments. Next to the sick-bay there were sick-bay blocks in which prisoner doctors and prisoner nurses treated Typhus, Diphtheria and other diseases, within the range of their possibilities. These sickbay blocks developed into "dying zones". Especially infamous was block 10 in which prisoners suffering from tubercolosis and the mentally ill were housed. The so-called "idiots' snuggery" was located there as well. Most of the women who were transferred there died after a short while or were selected for the annihilation transports. Often prisoners tried to hide their illnesses because they feared the SS doctors, selections and killing through injections.
Between August 1942 and August 1943, SS doctors under the lead of Prof. Dr. Karl Gebhardt conducted experiments on 74 Polish women and 12 prisoners of other nationalities. The experiments were about the extraction of bones, muscles and nerves, as well as operations that should cause infections in order to find treatments and substances based on sulfonamides. In the camp slang, operated women were called "guinea pigs". 5 of the Polish women and 12 other women died immediately after the operations, 6 more were shot not long after with wounds that would not heal. The other surviving victims hid fellow prisoners in the camp from February 1945 on. Some of the test victims testified as witnesses in fro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in Nuremberg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Furthermore steriliz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ca. 120 to 140 Sinti and Roma women and girls, the youngest being 8 years old. Many of them died.



임상 실험은 하인리히 힘믈러의 학교 친구였던 칼 겝하르트 의학 교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겝하르트는 호헨뤼헨에 있는 나치 친위대 요양소를 책임지고 있었다. 실험 대상이 된 어떤 여성들은 여섯번이나 수술대에 올랐다. 2주일에 한번씩 상처들이 다시 절개되었고 커진 상처부위에는 감염이 일어났다. 여러 차례의 실험 후 겝하르트는 "설포나미드는 상처감염 방지 예방물로 적합치 않다", 즉 전쟁으로 인한 상처 감염의 처치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Het begin van klinische experimenten kan teruggeleid worden naar Prof. Dr. Karl Gebhardt (een schoolvriend van Heinrich Himmler). Gebhardt leidde een SS sanatorium in Hohenlychen. Een aantal vrouwen werd tot 6 keer geopereerd. Elke twee weken werden de littekens weer opengemaakt waar het vergrootte gewonde gebied geïnfecteerd raakte. Aan het einde van de reeks experimenten stelde Gebhardt dat "sulfonamiden niet geschikt zijn voor het voorkomen van infectie van wonden als preventief middel", m.a.w. dat ze niet geschikt waren voor het behandelen van geïnfecteerde wonden veroorzaakt in een oorlog.
Copy i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I/B, Foto: 2106, 2107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질인 진정제 에피판이 마취제로 사용되었다. 이 제재를 혈관에 매우 천천히 맞을 경우 환자는 구토없이 마취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빨리, 한꺼번에 주사할 경우 즉사를 하였다.
1g의 에피판–나트륨이 들어있는 앰플, 1962년 5월 예전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 부지에서 발견됨

Het begin van klinische experimenten kan teruggeleid worden naar Prof. Dr. Karl Gebhardt (een schoolvriend van Heinrich Himmler). Gebhardt leidde een SS sanatorium in Hohenlychen. Een aantal vrouwen werd tot 6 keer geopereerd. Elke twee weken werden de littekens weer opengemaakt waar het vergrootte gewonde gebied geïnfecteerd raakte. Aan het einde van de reeks experimenten stelde Gebhardt dat "sulfonamiden niet geschikt zijn voor het voorkomen van infectie van wonden als preventief middel", m.a.w. dat ze niet geschikt waren voor het behandelen van geïnfecteerde wonden veroorzaakt in een oorlog.
Copy in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II/B, Foto: 2106, 2107

라벤스브뤽 기념관

Het Ravensbruck Memorial Museum

1959년 9월 12일 라벤스브뤽 국립기념관이 동독에서 가장 큰 3대 기념관 중 하나로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1945년 4월 30일 수용소가 해방된지 14년째가 되는 해였다. 1948년 9월 이래로 해마다 예전 수감자들과 휘어스텐베르크시와 지역 여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만남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예전 여자 강제수용소 자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기념일 행사나 연간행사가 열렸다. 시위, 평화집회, 추도의 시간, 기념회, 예배, 기타 등등이었다.

On September 12, 1959 the National Memorial Site Ravensbruck was inaugurated as one of three large Memorials in the GDR. The camp was liberated 14 years ago, on April 30, 1945. Since September 1948 former prisoners and women from Fuerstenberg and surrounding places met every year to remember the dead. Since then commemorations and anniversaries at the area of the former women's concentration camp took place in different forms: rallies, peacemeetings, parties, commemoration meetings, worships and many more.



1948년 9월 예전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수용소 담장옆에서 행해졌던 추모행사

Herdenkingsceremonie gehouden naast de kampmuur van het voormalige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september 1948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V/A1, Foto:3632



1959년 9월 12일 '라벤스브뤽 국립기념관' 개장식 포스터

Poster voor de opening van de "Ravensbrück National Memorial Hall" op 12 september 1959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 Fo IV/H, Foto: 2001/1108



브록하우스 백과사전에 실린 현재의 독일 지도

Map of Germany taken from Brockhaus-Lexikon, issue 3, page 271 with the insertion "Fürstenberg" by staff members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ück
F.A. Brockhaus GmbH, Leipzig. Mannheim 2002



2005년 4월 17일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해방 60주년 기념 추모식
두 명의 이전 라벤스브뤽 출신 여성들이 슈베트 호수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Herdenkingsceremonie voor de 60 jaar sinds de bevrijding van het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op 17 april 2005.
Twee voormalige "Ravensbrück vrouwen" herdenken andere slachtoffers bij het Schwedt meer.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 해방 60주년 추모행사
희생국가 기념벽(die Mauer der Nationen)에 화환을 헌화하는 모습
해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는 2005년 4월 17일 예전 여자 강제수용소 자리에서 열렸다. 60년이 지난 후 이전의 '라벤스브뤽 여성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들이 수감되었던 곳을 방문했다. 이는 브란덴부르크 주(州)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기념관 방문객들은 60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예전 강제수용소 부지의 일부에 다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Een ceremonie gehouden ter herdenking van 60 Jaar Bevrijding van het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Een bloementribuut aan die Mauer der Nationen
De 60 jaar herdenkingsceremonie vond plaats op het kamp van het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op 17 april 2005. Vele voormalige "Ravensbrück vrouwen" uit de hele wereld bezochten de plek waar zij 60 jaar geleden gevangen zaten. Het bezoek werd gevolgd door een uitnodiging van de provincie Brandenburg. Delen van het voormalige concentratiekampgebied werden voor de eerste keer in 60 jaar opengesteld voor bezoekers.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V/F1, Foto:2006/513

1993년 1월 이래로 라벤스브뤽 기념관은 새로 설립된 브란덴부르크 기념관 재단에 소속되었다. 여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가장 큰 강제수용소가 있었던 자리에서 오늘날 기념교육사업, 연구교육사업 및 역사 정치적 교육사업이 서로 연결되어 수행되고 있다. 기념관은 기념과 경고, 수집, 보관, 연구의 장소이자 적극적인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전시와 가이드, 강연, 비디오 필름 및 각종 행사들을 통해 예전 여자강제수용소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다. 2002년 초부터는 국제 청년 만남의 장소 행사를 개최해, 라벤스브뤽의 중 · 고등 학생들과 청소년 그룹들이 프로젝트와 세미나를 통해 여자 강제수용소의 역사를 공부할 기회를 갖고 있다. 매년 약 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 곳을 찾고 있다.



전시된 청동조각상들
1999년 11월 28일, 1945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라벤스브뤽 기념관의 역사에 대한 전시회 '추모의 언어'가 열렸다.

De expositie "Taal van Herdenking" over de geschiedenis van het Ravensbrück Memorial Museum van 1945 tot 1995 werd gehouden op 28 november 1999.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V/D3,Foto:2005/1133



2005년 라벤스브뤽 기념관에서의 워크캠프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라벤스브뤽 기념관의 워크캠프에 참여해 조사와 번역일을 도와주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국제 봉사단으로 활동하는 '북독일 청소년 단체'.

Werkkamp 2005 in het Ravensbrük Memorial Musem
Vele jaren lang namen jonge personen uit verschillende landen deel aan de werkkampen in het Ravensbrück Memorial Museum en zij hielpen mee met onderzoek en vertalingen.
Foto: internationale vrijwilligersgroep "Norddeutsche Jugend".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전시회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강제 성노동'
비엔나의 전시자 그룹과 베를린 예술대학의 '컨텍스트 아트 리서치 인스티튜트(컨텍스트 예술 연구소)'와의 공동작업 하에 라벤스브뤽 기념관이 개최한 작업실 전시회.

Expositie "Gedwongen Seksarbeid in Nazi Concentratiekampen"
De Vienna Exhibitor Group en het 'Context Arts Research Institute' uit Berlijn UDK sponsorden samen de werkkamerexpositie die gehouden werd in het Ravensbrück Memorial Museum.
(Nazi staat voor Nationalsozialistische, wat nationaalsocialisme betekent)
De expositie werd gehouden in het Ravensbrück Memorial Museum van 14 januari tot 30 september 2007.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 Fo IV/D5

Since January 1993, the Memorial Site Ravensbruck is part of the recently founded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At the largest location of the concentration camp only built for women, today work for remembrance, research and historical political education is done. The Memorial Site is place for commemorating and reminding, of collecting, maintaining and researching as well as an active place of
meeting. Exhibitions, guided tours, lectures, videofilms and events inform about the former womens' concentration camp. Since spring 2002, students and youth groups have the possibility to deal with the history of the womens' concentration camp in projects and seminars in the International Youth meeting place. Every year ca. 100.000 visitors come to see the Memorial.



1993년 5월 23일 전시회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지형도와 역사'가 예전 나치 친위대 사령부가 있던 자리에서 개막되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의 설립과정과 포로들 수용 실태, 수용소의 일상, 노동과 죽음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었다.

Op 23 mei 1993 werd de expositie "Topografie en geschiedenis van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geopend in het voormalige SS hoofdkantoor. De expositie was gericht op het ontwikkelingsproces en gevangenschap in het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het dagelijks leven in Ravensbrück en arbeid en dood.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IV/$D_{1\text{-}1}$,Foto:96/609



전시회 '나치 친위대의 추종자: 라벤스브뤽 여자 강제수용소의 여자 감시원들' 2004년 10월 17일에 개막된 이 전시회는 사상 처음으로 라벤스브뤽 강제수용소의 감시원으로서 전 유럽에서 끌려온 여자 포로들을 괴롭혔던 여자 감시원들을 중심 테마로 삼았다. 전시회는 예전 감시원들이 살았던 8채의 기숙사 중 특별히 이 전시회를 위해 기념관으로 수리한 기숙사에서 열렸다.

"Volgelingen van de Schutzstaffel (SS): vrouwelijke supervisors in het Ravensbrück concentratiekamp voor vrouwen" werd gehouden op 17 oktober 2004. De expositie behandelde voor de eerste keer het thema van vrouwelijke supervisors die vrouwelijke gevangenen uit heel Europa martelden. Het werd gehouden in een slaapruimte die special voor de expositie gereconstrueerd was uit acht slaapruimten die gebruikt werden door de voormalige supervisor.
Collection of the Memorial Site Ravensbrueck / 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
Signature.: Fo V/D10,Foto:2005/99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획 및 제작

| 한국 |
박정애
김은경
오혜주
남상구

| 독일 |
크리스틀 빅커트
베레나 패토우
도미니크 위르트
카타리나 예더만
이리나 노바레제
자베 분쉬

| 네덜란드 |
켄 보스

Planning and Creation

| Korea |
Park Jung Ae
Kim Eun Kyung
Oh Hye Joo
Nam Sang Gu

| Germany |
Christl Wickert
Verena Paetow
Dominique Hurth
Katharina Jedermann
Irina Novarese
Sabe Wunsch

| Netherlands |
Ken Vo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차 세계대전의 여성 피해자
Women Victims in World War Ⅱ

초판 1쇄 인쇄 2009년 5월 27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6월 2일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ISBN 978-89-6187-119-8-0390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